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라오스, 치앙마이 6일
6월7일, 14일, 21일, 28일 8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5월 25일(음력4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527호

부처님오신날 대형행사 개최

SGI, 불교 표방 '공론화'?

(창가학회)

15일 잠실운동장서 '2005 나라사랑대축제' … 10만 신도 운집

"불교교단 인정 못한다" 정서 속 불자들 혼란 우려

평소 불교를 표방해 온 한국 SGI(Korea Soka Gakkai International, 한국창가학회)가 부처님오신날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대사회적으로 공개적인 종교활동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한국SGI를 불교교단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불교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불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한국SGI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05 나라사랑 대축제'를 개최했다. '희망을 만들어요'라는 테마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참가한 10만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2만여명이 '독도는 우리땅'을 새긴 카드섹션을 연출한 것을 비롯해 8백여명의 사물놀이와 2백여명의 마칭밴드 퍼레이드, 3백여명의 컬러가드 군무, 5백여명이 펼친 가로 80m 크기의 초대형 엠블럼 퍼포먼스, 3백여명의 기수단 행렬 등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띄웠다. 또 축하·문화공연과 공식행사는 대형퍼포먼스, 개회사, 불우아동과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기금 전달, 나라사랑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SGI측은 행사자료를 통해 '평화와 희망을 향한 역사의 전환'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평화의식의 공감대 형성' '희망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문화 실천방안 제시' 등을 이번 축제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조용히 활동해 온 한국SGI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의혹의 시선이 보내지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가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고 치러져 한국SGI가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한국SGI는 일본에서 유입돼 1975년 교단의 형태를 갖춘 이래 30년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번 행사와 관련 한국SGI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법화경>을 신봉하는 불교 신도단체로 현재 190개국에서 신앙하고 있는 세계적 종교단체"라며 "한국에서는 120만명이 신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SGI는 불교단체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유수종단에 버금가는 신도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SGI가 짧은 기간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전국을 35개 방면, 111개권으로 나누어 신도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통적인 불교를 부정하면서도 불교 신도단체를 자처하는 한국 SGI가 교세를 확장할 경우 불교의 왜곡된 전파가 우려된다. 사진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 한국 SGI 주최로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2005 나라사랑 대축제' 모습. 이날 10만여명의 한국 SGI 신도가 참가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한국SGI를 불교의 한 종파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학자들 사이에서 수년째 '불교-비불교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은 학계와는 달리 불교계에서는 한국SGI가 불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석가모니부처님과 전통적인 불교를 부정하는 한국SGI의 간행물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SGI가 발간한 <법화경> '방편품 정해'에서 "지금 말법시대에서 석가는 우리에게 이익을 줄 힘이 조금도 없다. 석가를 받들고 있는 사람은 마치 썩어서 독이 작용하고 있는 밥을 먹고 있는 것과 같으니 사종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통적인 불교를 부정하고 있다.

불교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점이다. 한국불교와는 상당히 다른 교상체계와 신앙형태를 갖고 있는 한국SGI가 불교단체를 표방하면서 보다 확산될 경우 전통적인 한국불교를 왜곡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SGI의 교상체계를 연구해온 혜경스님(화담정사 조실)은 "이대로 나아간다면 한국SGI가 대중 속으로 더 깊숙이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며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불교계가 이제부터라도 한국SGI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 불교의 왜곡을 미연에 막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유철주 기자

하안거 결제 법어 8면

모스크바에서 한국불교를 검색한다

本社 5월 23일 러시아판 부다피아 오픈 … 뉴스·경전 등 콘텐츠 다양

russia.buddhapia.com

유물론의 고향 러시아에 '마음이 곧 부처'임을 전하는 법음(法音)이 인터넷을 통해 메아리친다. 현대불교는 5월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어 불교사이트인 '러시아판 부다피아(russia.buddhapia.com)'를 오픈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생애, 한국 전통사찰 사진전, 불교용어사전, 반야심경 해설, 고려인 한마당 게시판, 부처님오신날 특집, 법어, 불교뉴스, 러시아인 축사 등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이 사이트는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국불교를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미리 살펴 본 러시아 출신 귀화 사학자인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는 "러시아 불자들이 못한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학구적인 러시아 지식인들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갖출 경우 러시아 불교 발전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몽골이나 중국 또는 티베트를 통해 18세기 이전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래까지 불교신행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세계 불교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낮지 않다. 베토링크, 로드, 슈미트, 프란츠 등 수많은 불교학자를 배출해 이른바 '러시아 불교학파'를 형성할 정도다.

러시아불교연합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젊은이들이 불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으면서 불교의 교세는 더욱 커져갔으며, 현재 전체 인구의 0.1%에 해당하는 40여만명이 불자라고 한다. 러시아불교연합에 가입된 단체로는 '닷산 쿤츠세초이네이 불교사원' '로터스 달마 센터' '티베트불교 연구소' '모스크바 불교센터' '사카이 페테르부르그 불교회' 등 18개 불교단체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티베트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불교단체 가운데 한국의 연등국제불교 원명스님이 91년 타슈켄트에 설립한 정각사와 숭산 스님이 모스크바에 개원한 관음선종 지부 등이 눈에 띈다. 러시아 불교는 지난 해 12월 달라이 라마의 방문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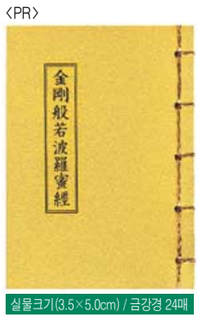
알림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5월 27일 접수 마감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참가신청: 5월 27일까지
■ 주최: 현대불교신문
■ 기간: 7월 28일~8월 18일
■ 정원: 선착순 40명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협찬: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하와이 플랜테이션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전 세계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숍박물관 관람.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크루즈여행. 잠수함 및 요트여행.
※지난해 참가자에게는 와이메하공원 원주민체험, 쿠할로아목장 승마체험, 워터파크등 별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0-95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할'



그림·조태호

동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신문사

보살님! 올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올 봄,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
기성 쾌선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 신국판 / 198쪽 / 가격 7,000원
독송집 : 국배판 / 92쪽 / 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 · 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 · 인터넷 주문배달 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총판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0(여시아문),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기본여건강화 등 관계법 개정

정부차원 사찰 화재시스템 마련…올 하반기부터 시행

정동채 문광부장관 국무회의 보고

산불 등 화재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5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낙산사 화재피해 복구 및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은 낙산사 복원에 따른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와 사찰의 화재예방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전통사찰 화재예방 대책의 골자는 △안전선 및 방화선 확보 △재난방재 기본여건 강화 △재난 방재시스템 및 대피시설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안전선과 방화선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찰 주변 20~30m 거리의 수목을 제거하거나 솎아내 마련된다. 사찰로부터 1km 거리에는 소방용임도로 활용 가능한 방화선이 구축된다.

방재여건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용수 확보. 소방차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20여분을 버티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소화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수댐을 확대설치하고, 주요 목조문화재 소장 사찰 20여곳에는 소방서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막설비(스프링클러 등)를 설치해 재난방재여건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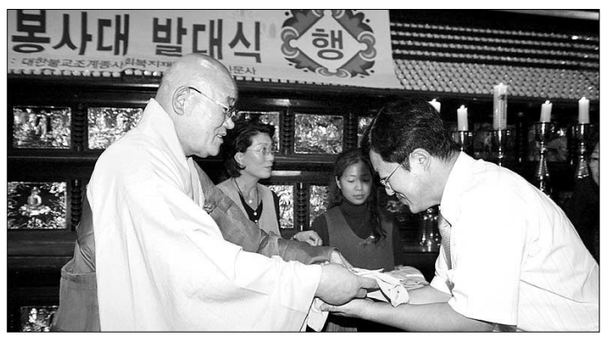
또 사찰성보박물관 방화시설을 보완하고, 방화벙커를 만들어 문화재 대피시설로 활용한다. 무거운 동종과 철불 등은 도르레나 매몰 구덩이 등을 설치해 보호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설설치 · 수목제거 · 내화수종 식재를 제약하는 산림법 · 자연공원법 ·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방재대책 이행을 원활케 하는 한편, 방화시설 설치기준,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문화재 소산계획 등을 담은 화재대응 매뉴얼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익순 기자

낙산사 복구에 89억 투입

정부는 낙산사 동종과 전각 12동 복원에 88억8천4백97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낙산사 피해복구 지원대상 전각은 원통보전 등 소실된 건물 12동이다. 우선 원통보전 등 주요지역을 발굴해 가람배치를 파악하는 등 가급적 원형에 가깝게 짓는다는 방침이다.

피해복구예산 89억원은 국비 46억원, 지방비 27억원, 복권기금 16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초과하는 비용은 사찰측이 부담한다. 산림복원 계획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조계종은 5월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앞으로 국내외 재해에 봉사인력을 즉각 파견할 수 있는 재난구호봉사대를 창립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언제든 어디든 출동한다!"

조계종 재난구호봉사대 19일 조계사서 발대식

조계종은 5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314명의 봉사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총재 법장)' 발대식을 갖고 체계적 재난구호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창설된 긴급구호봉사대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현지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 1회 기본교육과 동원시스템을 점검 ▲재난 발생 3일 이내 선발대 현지파견 ▲사건발생 7일 이내에 40인 내외의 본대파견 ▲현지 활동은 일주일 기준 등의 활동 방안을 토대로 운영하게 된다. 김강진 기자

해외포교현장 직접 살핀다

법장 스님 5월24~6월1일 미국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 방문 중 법장 스님은 28일(현지시각)과 29일 뉴욕대법회와 LA대법회에 참석해 현지 불자들을 위로하고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중요성과 복지사업 분야에서가장 높은 성과 등에 대해 법문한다. 법장 스님은 또 27일 하버드대학 교수 및 하버드대학 종교 · 불교학자와의 좌담회 등에 참석해 간화선을 전통으로 한 한국불교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뉴욕 불광사와 LA 관음사, 고려사, 달마사 등도 방문할

문광부, 저작권 궁금증 해결 책발간

문화부가 소장한 유물들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해 사진을 못찍게 하거나 응용 문화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또 박물관의 유물과 같이 저작자가 따로 없는 문화유산은 특별한 절차나 요건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할까?

문화관광부가 저작권과 관련한 의문사항을 정리한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 보호 주체와 대상, 저작권 확보방법 등 저작권 일반 상식 뿐 아니라 60가지의 사례를 들어 저작권과 관련한 갖가지 궁금한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다. 특히 불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각종 문화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해 하나의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문화부 저작권과측은 "문화예술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저작권을 가볍게 생각하다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불자대상' 상금 종단발전기금 쾌척

김윤규부회장 · 박지성 선수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불자대상을 수상한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과 박지성 선수가 부상으로 받은 300만원을 조계종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법요식 후 김윤규 부회장은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성공적으로 회향해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지성 선수 대신 수상한 할아버지 박동래(75)씨와 할머니 김매심(69)씨도 "지성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라겠다"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후 산불 피해를 입은 양양 낙산사 복원 성금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전달했다. 남동우 기자

총무 현고 재무 허운 문화 탁연 기획특보 여연 스님

조계종 총무원 인사


현고 스님


허운 스님


탁연 스님


여연 스님

조계종 새 총무부장에 현고, 재무부장에 허운, 기획특보에 여연 스님이 5월 19일 임명됐다. 탁연 스님도 20일 새 문화부장에 임명됐다.

현고 스님은 1971년 사미계, 75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송광사 주지,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1972년 사미계, 78년 비구계를 수지한 허운 스님은 보림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 은적사 주지를 맡고 있다. 여연 스님은 1972년 사미계, 7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1969년 사미니계, 76년 구족계를 수지한 탁연 스님은 총무원 문화부장



진각종 제27대 통리원장 취임법회에서 회정 정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화합 · 상생으로 종단발전 이끌터"

진각종 20일 회정 통리원장 취임식 봉행

진각종 제 27대 회정 통리원장 취임법회가 5월 20일 총인원 야외특설무대에서 3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정 통리원장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상생을 종단운영의 기조하에 창의적 사고와 추진력 있는 인재를 중요하고, 행정기관의 자율적 기획과 추진을 독려함은 물론 문화종책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법장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진각종은 교육장과 발전을 이룩해온 진각종이 통리원장에 취임하는 회정 정사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각종 혜일 총인을 비롯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부원장 춘광, 조계종 종회부의장 원택,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과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문화관광부 이보경 종무실장 등이 참가했다.

글 · 사진=김원우기자

경주캠 기숙사 건설의혹 東大 이사회 감사보고서 지적

5월 20일 열린 제210차 동국대 이사회에서 2004년도 법인 각급기관 감사결과, 지난해 개관한 경주 캠퍼스 복지관(기숙사)의 입찰계약과 관련해 각종 위법사실을 보고했다.

법인의 이홍섭 감사는 "동국대가 복지관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청의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 5개월이나 앞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이뤄졌고, 시공능력과 도급기준이 미달하는 S종합건설과 무리하게 계약이 체결 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용수 기자

내달 중순 조사결과 발표 역사기념관 조사대책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위원장 장주, 이하 조사대책위)는 5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교중앙박물관 공사과정을 점검할 감리사로 김태출(새담종합건축 감리단장)씨를 선정했다. 조사대책위는 감리사가 6월 2일 감리결과를 보고하는 대로 6월 중순경 조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6월말~7월초에는 불교계 내부의 불사문제를 조명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불사현황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국불교 최고 고승 대덕큰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기원한다.

공 광복60 전국민평화불교도대회 고

2005년 6월 14일 (화) 오후 1시 - 1부 법회 2부 축원
대전 / 한밭종합운동장 / 충무체육관

■ 주 최 : 봉행위원회 ■ 주 관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社團法人 韓國佛教團體總聯合會
■ 참가문의 : TEL 02)868-0108, 02)3487-7751 / FAX : 02-3281-0108

참가단체는 대표자에게 봉행위원회 증명, 자문위원, 봉행위원, 홍보대사, 평화대사 각분과위원장으로 추대한다.
대회장에 종단 단체 명칭 현수막을 설치하며(현수막제작설치비10만) 참가자에게는 평화의 상징 기념품을 증정
본 대회에 참가하는 종단은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종교활동에 뒷받침이 되는 공익법인 증서를 받도록 행정을 지원함.

■ 후 원 : 연합불교방송국 WWW.CBC108.TV, 대전불교사암연합회
■ 회장 011-352-7751, 사무총장 011-356-3427, 집행본부장 010-3033-0124

우 152-05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4동 732-2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법회 800회 · 연예봉사 · 서적 기증…

20년간 재소자의 '등불' 역할

제23회 교정대상 수상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는 노랫말과 같이, 한 사람의 묵묵한 선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밑거름이 된다.

한 스님이 이와 같은 일을 2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 5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3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인 '자비상'을 수상했다. 그 주인공은 전북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

승천 스님은 1985년 일광사 주지 소임을 맡은 직후인 86년부터 전주교도소와 인연을 맺고, 재소자들을 새 삶으로 인도하는 '등불'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교정대상까지 받게 된 것이다.

스님은 지금까지 전주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위한 800여 회의 법회를 열고, 1500여 장기수를 위한 교리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1420명에게 계를 주고 불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또한 연예봉사단을 후원, 국악과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을 열어 문화적인 소외감도 덜어주고 불교 서적과 용품, 교화용 텔레비전 등을 기증해 수감인들의 갱생을 도왔다.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많은 재소자들은 출소 후 직장과 가정을 가진 어엿한 사회인으로 거듭 나고 있다.

승천 스님은 자신의 선행이 자기보다 남을 앞세우는 스님 본분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겸손해 한다. 그러나 전주지역 불자청년회 원들은 "재소자와 불우 청소년,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스님의 모습은 지역 불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광사는 300여 년 전에 세워진 전통사찰이지만 최근까지 허름한 슬레이트 건물에 불과했다. 외형적인 불사보다는 '인간불사'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소신 때문이다. 그런 스님의 뜻에 공감한 불자들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고, 스님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일광사를 여법하게 바꿔 놓았다. 그리고 이제 일광사는 신도수 1500여 가구의 정읍을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 잡았다.


재소자들의 갱생을 도운 공로로 승천 스님(사진 맨 왼쪽)이 교정대상 자비상을 받고 있다.

그래서일까. 스님은 모든 공을 신도들에게 돌린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부처님 심부름하고 신도들 심부름하고…, 제가 받은 상도 부처님과 신도들 몫이지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심부름 해야죠"하며 겸연쩍어 했다.

승천 스님은 지역 독거노인 15가구에도 주기적으로 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읍경찰서와 함께 재학 중 죄를 범한 학생들을 위해 한달 1회의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불우가정 청소년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승천 스님은 앞으로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스님은 "시골 폐교를 인수해 장애인과 외로운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23일에는 지역 장애인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는 행사도 주최했다.

글 · 사진=강유신 기자

'참여불교' 종교개혁 방향제시

권력화 자본주의화 배타주의 문제 다뤄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을 통해 창출된 근대권력이 다시 도전받고 있다.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도입한 선거제도가 '계파정치'를 낳고, '권력'의 논리가 교단 상층부를 관통해 권력과점화의 폐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발행하는 〈참여불교〉가 '종교개혁'을 주제로 2005년 봄호부터 4회에 걸쳐 종교의 권력화, 자본주의화, 보수우경화, 배타주의 문제에 접근해 종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봄호에서 첫 번째 주제인 '종교의 권력화'와 관련, 정웅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은 '조계종 권력과점 현상의 심화와 그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조계종 내부가 '독점에서 권력과점으로' 권력구조가 재편됐으며, 그 중심에 '탈색된 문중주의와 교구본사권력 및 중앙종회'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중앙종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인사에 대한 폭넓은 선출권'과 '불징계특권' 등을 꼽으며 "중앙종회는 과도한 겸직문제(입법/사법/행정)의 진원지로, 무책임하고 반불교적인 정치세력화, 선거부정(금권선거), 선거법 무력화(책임추궁 없음/평가 부재)등 온갖 부정적 역할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재개 반발

불교환경연대, 반대 성명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왔던 통영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5월 13일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토지 소유자인 용화사가 조계종 총무원에 토지 임대 승인 요청을 했고, 통영시는 조계종의 토지 임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또 "케이블카 설치 공사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총무원은 토지 임대 승인 요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어 "우리는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전국 곳곳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후 불교계 및 시민 · 사회 · 환경 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통영시는 2002년 12월 미륵산 아래 케이블카 정류장을 짓는 공사에 착수해 내년 3월경 완공할 계획이다. 유철주 기자



빈그릇운동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빈그릇운동 100만명 서명 캠페인

"음식물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24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정토회의 '빈그릇운동'이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다시 시작됐다.

정토회 에코붓다(이사장 법륜)는 5월 20일 서울 명동에서 '빈그릇운동-음식남기지 않기 100만인 서약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에코붓다 이사장 법륜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 곽결호 환경부 장관, 원불교 천지보은회 이선종 교무, KNCC 총무 백도웅 목사, 방송인 김미화, 배종옥, 손현주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빈그릇운동이 전국민의 생활문화운동으로 번져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되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법륜 스님은 "향후 빈그릇운동이 환경운동과 기아문제해결을 위한 지구촌 생명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도 "230억원의 돈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며 "전국민적 동참으로 헛돈이 쓰이지 않게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빈그릇운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종옥씨와 손현주씨도 "뜻깊은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코붓다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빈그릇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국공립학교 종교교육 시정 촉구

종교자유정책硏, "정규과정 포함 교육기본법 위배"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일부 공립학교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자연은 5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립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관리감독 강화 재요청' 공문을 보내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아닌 교육체계 안에 포함된 정규교육과정"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교육기본법을 위배한 것인 만큼 교육인적자원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이에 앞서 서울시내 55곳의 공립중고등학교 종교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5곳 등 총 29곳이 종교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학교 8곳의 경우 교내가 아닌 특정 종교시설을 이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교육기본법 6조에는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학교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동대부고 전국 축구 우승

동국대부속고등학교(교장 한성규) 축구부는 5월 16일 군산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제14회 금석배 축구대회 고등부 결승에서 서울 중동고를 물리치고 우승했다. 동대부고는 전 · 후반 90분과 연장 접전에서도 득점을 올리지 못해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8-7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동국대 이사장 현해스님은 19일 감독과 선수들을 초청해 대회우승을 보고 받고 격려했다.

조용수 기자

백양사-전남도청 공동 28~29일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가 지자체와 손을 잡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 템플스테이 사업팀이 전남도청과 공동으로 백양사 템플스테이를 5월 28~29일 개최한다.

전남도청은 지난해 전남 도내 10개 사찰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도 전남의 9개 사찰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백양사 템플스테이의 참가 경비는 어른 7만9000원, 어린이 7만4000원이며 신청은 5월 27일까지 마감한다. 신청은 주관 여행사인 여행자 클럽(02-2277-5155)으로 하면 된다.

우리는선우, 장학생 선발

(사)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가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한다.

우리는선우 산하 향산장학회는 불심이 깊고 불교활동에 공로가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가운데 미래의 사회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학원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며 대학생에게는 100만원 또는 150만원이 주어진다. 장학생은 불교활동과 사회봉사, 자기표현능력,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02)2278-8672 박봉영 기자

미래연구소 준비 토론회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5월 17일 올 12월 개소할 '활기찬 미래연구소' 준비 제1차 토론회를 가졌다.

관장 지완 스님을 비롯해 서울소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관계자들이 참가한 토론회는 '활기찬 미래연구소'가 주력하고 있는 노인취업문제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 노인행정과 조관호 팀장의 노인취업훈련 정책 개요와 정은하 연구원의 노인 취업훈련 조사서 발표로 진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활기찬 미래연구소'에 현재 1명의 전임 연구원과 10명의 자문위원을 이미 구성해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9월과 11월, 두 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하안거 90일간 제2차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및 백중 천도기도 법회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여 불자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축원 드립니다.

기도영험도량이자 전법수행도량인 서초동 수안사에서는 5월22일(음. 4. 15)부터 8월 19일(음. 7. 15) 백중까지 하안거기간 동안 **제2차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및 백중 천도기도 법회**를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기도는 그동안 1차 천수다라니 독송기도법회에서 닦았던 기도공덕과 신도님들의 성원에 더욱 힘입어 매일 세 번(새벽, 사시, 저녁)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와 매주 토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하며, 백중까지 친가와 처가의 5대조 영가까지 열 번의 조상천도 법회를 봉행합니다.

천수다라니경에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모든 중생들에게 안락을 얻게 하고, 모든 병을 제거하며, 수명장수하게 하고, 부귀와 풍요를 누리게 하며, 모든 악업과 중죄를 없애고, 모든 선근을 성취케 하며,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고, 모든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바를 빨리 만족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끊임없이 지송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과 호법선신들이 항상 아끼고 보호하며, 천마(天魔)와 외도(外道)가 침범하지 못하고 극락정토에 왕생하며, 무생보(無生報)를 이루고 필경에는 성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수안사에서는 하안거기간 동안 제2차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및 백중 천도기도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이 선근공덕으로 조상영가와 유주무주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하시며, 가정이 늘 행복하고, 모든 업장과 액난이 소멸되고 복덕이 구족하여 모든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고 구경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천수다라니 독송기도법회 시간 :**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6시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기도 : 밤 11시 부터 새벽 3시 30분 까지

● **백중 천도기도법회 일시**
⊙ **입재일 :** 2005년 5월 22일 (음 4.15) (일) 오전 10시 30분
⊙ **1 재 :** 2005년 5월 31일 (음 4.24) (화) 오전 10시 ⊙ **2 재 :** 2005년 6월 10일 (음 5. 4) (금) 오전 10시
⊙ **3 재 :** 2005년 6월 20일 (음 5.14) (월) 오전 10시 ⊙ **4 재 :** 2005년 6월 30일 (음 5.24) (목) 오전 10시
⊙ **5 재 :** 2005년 7월 10일 (음 6. 5) (일) 오전 10시 ⊙ **6 재 :** 2005년 7월 20일 (음 6.15) (수) 오전 10시
⊙ **7 재 :** 2005년 7월 30일 (음 6.25) (토) 오전 10시 ⊙ **8 재 :** 2005년 8월 9일 (음 7. 5) (화) 오전 10시
⊙ **회향일 :** 2005년 8월 19일 (음 7.15) (금) 오전 10시 30분 (백중)

※ 이번 제2차 천수다라니 독송기도는 지난 1차 독송기도 때와 마찬가지로 천수다라니를 매일 108번씩을 기준으로 독송하게 되며, 동참자들의 독송 횟수를 날마다 합산하여 백중날까지 독송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매일 수안사 법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가정에서 21번이나 49번, 108번을 독송기도하시고 나서 반드시 수안사에 독송횟수를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영가천도재는 친가와 처가의 5대조 영가까지 위패를 모시고 열흘마다 천도재를 모두 열 번 봉행하오니 영가 명단을 수안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587-4677, 3213 / 팩스 : 02)522-5666**
● **계좌번호 :** 외환은행 108-18-51234-7 (예금주 : 박경열)
● **오시는길 :**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 → (도보 7분) 두 번째 GS주유소 뒤 3층 건물입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8의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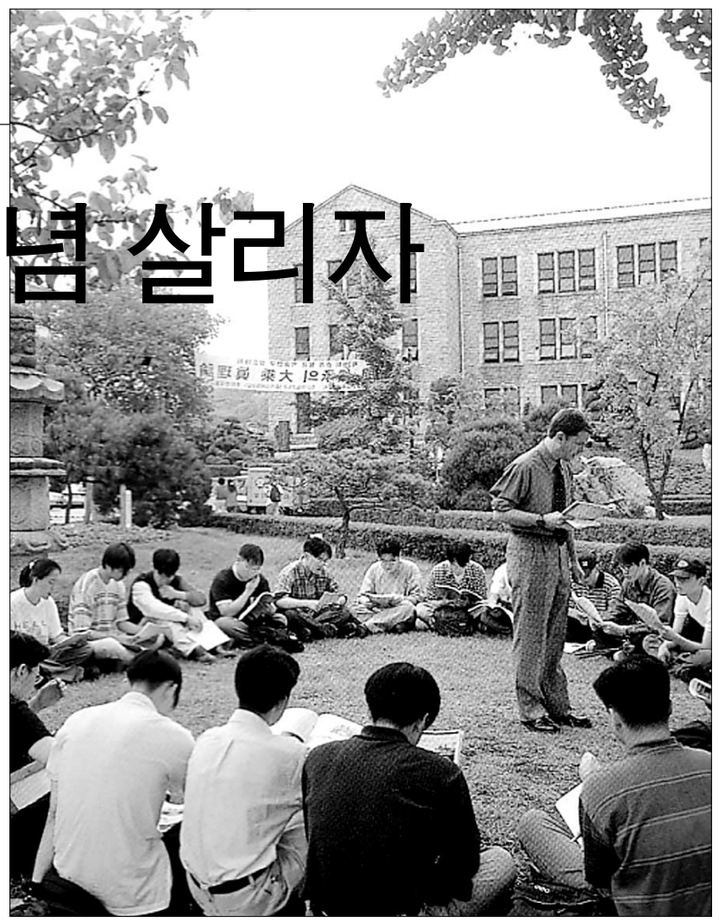
수안사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독송공덕을 상세히 설하고 있는 「불설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다라니경」을 법보시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우면산 수안사 회주 세 민 합장

건학 100년 동국대 이대론 안된다

1.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2. 불교대학 '개혁' 만이 살길이다
3. 재단에 대학발전 기대할 수 있나?
4. 100년 동국대 비전은 어디에?

총체적 혁신으로 건학이념 살리자



한국불교의 근대교육을 상징하는 동국대가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대학당국, 종단, 재단, 동문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제2의 건학을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점이다.

100주년 동국대 비전 어디서 찾아야 하나? 최근 교육부는 2007년까지 10~15개 사립대학을 구조조정 선도대학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별 특성화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세기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수많은 대학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대변화 흐름에 동국대도 예외일 수 없다. 더구나 한국불교의 근대교육을 상징하는 동국대는 곧 한국불교의 사회적 위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대학자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건학 100주년을 앞둔 동국대가 제2의 건학이라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종단 재단 동문 그리고 대학당국이나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은 대학발전을 위해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 100년 전 원력으로 세운대학, 이제 그 원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대학 열린 경영으로 전인교육 토대 형성

동국대는 불교학과 인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또 역사와 전통, 편리한 교통, 높은 취업률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좁은 캠퍼스와 허약한 재단, 보수적이고 변화에 둔감하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대학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 ·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 동국대를 바라보는 학교안팎의 시각은 다소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정적 시각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교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지금처럼 종단 · 재단 · 학교당국 · 교수회 · 학생회가 따로따로인 상황에서 대학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에 따라 대학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대학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재단의 관리나 간섭을 배제하고 투명한 리더십을 갖춘 대학 전문경영인이 앞장서 구성원들의 발전 의지를 다독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침체된 학교분위기를 일신하고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학습관리'와 '비전제시' 못지않게 구성원들의 대학발전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학생회장을 지낸 유영빈씨는 "지금은 대학당국이 모든 사안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의사구조"라고 비판하고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고 이를 착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필수적이다. 교원확보,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특성화 집중육성, 연구성과 제고라는 장기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과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또 막대한 재원 투자가 필수적인 외부기관의 대학평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동국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특화시켜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학교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불교학, 한의대, 경찰행정, 연극영화 등 기존의 특성화된 학문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동국대 졸업생은 성실하고 바른 인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회적 평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동국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동국대의 한 교수는 "동국대가 종립대라는 점에서 모든 사고가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반 학문 분야를 불교와 접목시키는 등 연구 영역을 넓혀 동국대만의 응용불교학 연구 영역을 구축하고, 불교대학이 종무행정 사회복지 장례문화 등 불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용학문으로의 저변확대를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 종단정치 탈피 · 재정기여 우선돼야

대학발전을 걱정해야 할 재단이 오히려 대학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단운영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재단운영의 원칙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급선무는 이사회 구조의 안정에 있다. 재단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종단 정치세력 간에 격돌하는 양상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객관적 3자 기구에 협상과 조정을 의뢰해서라도 대승적 차원의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이사회 구조의 전면적 개편도 고려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한 불자 국회의원은 "재단 개편과정에서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교구본사 추천 교육전문가(출가, 재가 구분없이)나 교육에 뜻을 둔 (불자)기업인, 동문, 명망가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를 통해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단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확대를 위한 노력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동국대 재단은 연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다루지만 재단의 살림은 고작 10억원 규모다. 학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사립이지만 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준공립'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재정확대 노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대학의 경우 재단 살림 규모는 100억대 이상이다.

상임이사 영배 스님은 "늦었지만 재단이 가진 자산(부동산) 가운데 일부 활용가치가 높은 부동산 개발과 일산불교병원과 연계한 실버산업진출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재단전입금 확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설 뜻임을 밝혔다.

종립대학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단차원의 관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종학연구와 스님들의 전문교육 등 종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머지 단과대학들과 의대 · 한의대를 통해 불교적 소양을 가진 우수한 인

종단 · 동문 간섭보다는 지원 · 외호기능 강화를

종단이 대학운영에 관여하는 실질적 창구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유일하다. 그러나 재단이사 추천권 이외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비등하다.

동국대 한 교직원은 "지금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간섭과 통제 개념만 있는 불필요한 기구"라고 혹평했다. 이와 함께 "산하 학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발전 정책 개발과 재원확보 방안을 고민하는 '종립학교지원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100주년을 앞두고 발전기금 모금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로 종단과 동문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1사(寺) 1과(科)' 지원제도나 동문들의 지정장학금제도의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가 가진 고급 인재들을 활용해 조계사 등 유력사찰들이 추진하는 연구소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동국대의 영향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동문들의 활용 통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한의대 동문회처럼 대학에 애정을 갖고 20억원이라는 발전기금을 모금한 동문들의 의견이 대학운영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학교관계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동문들을 정치, 경제, 언론 등 전문분야별 자문단으로 구성, 불교와 학교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별취재팀
강지연 · 조용수 · 박익순 기자

인터뷰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



"정체성 강화 위한 특성 고찰이 중요"

"동국대는 종립대학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육중심대학을 지향해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불교학을 기반으로 하는 종립대학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도 건학이념을 사회화 하는 교육중심대학을 동국대의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과 경쟁을 도모하는 민간기관으로 정부를 대신해 4년제 대학들의 평가와 대학정책개발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동국대의 침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당국의 비상한 위기 인식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대학의 미래와 특성화 분야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여러 개설 학문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불교학과 한국학을 100년 가까이 이끌어온 대학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의 전폭적인 지원, 총장의 대학경영 자율성 보장, 외부인사의 재단참여, 대학 경영자의 변화의지를 동국대 발전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다.



“청주 불심 똘똘 뭉쳤어유~”

봉축법요식에 5천여 사부대중 참여 ‘화합’ 과시



5월 13일 열린 청주 · 청원불교연합회 주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는 예년의 300~500명의 열배가 넘는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종단 초월한 의견 수렴이 변화의 힘
문화축제로 지역민 참여 유도도 한몫

청주불교가 달라졌다. 사찰들이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단 간 사찰 간 불협화음으로 삐걱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은 불자들의 자긍심도 높아졌고, 불교를 바라보는 지역정서도 바뀌기 시작했다.

5월 13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청주불교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법회였다. 이날 법회에는 5000여 명이 몰려 행사장이었던 무심천변을 가득 메웠다. 예년의 300~500명 수준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참가자들조차도 “청주 불교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다.

행사 자체에 대한 성공요인은 법요식을 종교적 의식에서 문화축제마당으로 바꾸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처음으로 시내 중심가에 연등을 설치하고 봉축탑 점등식도 봉행하는 등 봉축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또 각 사찰마다 봉축장엄물을 만들어 나오도록 함으로써 신도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민들을 끌어들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거둔 것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한 번 해보자’는 청주 스님들과 불자들의 의지와 이런 의지를 하나로 묶어낸 청주 · 청원불교연합회(회장 각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의지와 노력은 봉축행사 준비과정에 그대로 반영됐고, 결국 청주불교는 1년 만에 가장 모범적인 지역불교 성공사례로 꼽히게 됐다.

이번 행사 준비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봉축위원회를 꾸리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종단과 사찰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각 사찰 관계자들이 한 달에 두 번 이상 머리를 맞댔다. 또 신행단체 재가자들이 실무국장을 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승가와 재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봉축법요식에서의 봉축 법어도 불교연합회장이 해오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지역의 원로인 태고종 스님에게 배려하는 등 조계종 위주의 행사진행 틀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해관계를 초월해 화합하자’는 인식이 자리잡아갔다. 그 결과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찰이 청주지역 100여 사찰 중 70곳에 이르게 됐다.

예년의 행사 참여 사찰 수가 조계종을 위주로 30여 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보면 괄목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천태종 청주지부 명장사 전승규 신도회장은 “각의 스님을 중심으로 불교연합회가 종단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청주불교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봉축행사를 기획 추진한 청주 · 청원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겸 사무총장인 현진 스님(관음사 주지)은 “현재 청주시가 주관하고 있는 직지축제에 불교연합회 차원의 동참을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청주불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예능 나눔으로 무등등한 세상 구현”

광주전남 불자연예인 ‘무등 예술봉사단’ 창립



무등 예술봉사단원들이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무등등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불자 예술인들이 모여 ‘무등 예술봉사단(단장 이애자. 이하 무등예술단)’을 결성했다.

광주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중가수, 연주가, 연극인, 춤꾼 등 불자 연예인들은 지난 5월 11일 광주불교방송 법당에서 무등예술단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서 초대 이애자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국정토 구현에 재능 있는 이들의 솜씨를 보태고자 뜻을 모았다”며 “소외된 이웃을 찾아 무등등한 세상을 이루는 도우미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도법사 무이 스님(덕림사 주지)은 “정기법회를 통해 신심을 쌓고 무의탁노인, 교도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공연과 연등축제, 산사음악회 등 불교계 공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무등예술단 향후일정을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혜향 스님,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 이상진 광주전남신도회 회장을 무등예술단 명예단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무등예술단은 얼쑤(전통풍물패), 요델클럽(요등송 클럽), 광주 재즈오케스트라, 굿마당(전통농악), 꼬두메 등의 음악단체를 비롯해 신현돈(불자가수회 부회장), 유상호, 주권기, 이은하, 오목대, 원재로 씨 등 연극, 연주가, 가수 등 5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부처님 찬탄소리 들리는가!

경남도 무형문화재 22호 ‘불모산영산재’ 정기공연

향토색 짙은 불교문화예술로 인정받아 경상남도로부터 2002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불모산영산재가 2005년 정기공연을 펼친다.

불모산영산재보존회(회장 석봉) 주관으로 5월 27일 마산 종합운동장내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펼쳐지며, 불모산영산재 전 과정을 영상물로 제작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또한 이번 공연은 현재 불모산영산재 보존회 회장이자 불모산영산재 범음범패 법고무 예능보유자인 석봉 스님이 집필 중인 ‘불모산영산재 총람’ 발간을 축원하는 자리도 겸한다.

석봉 스님은 “통도사 범어사 중심의 아랫녘 소리 가운데 독특한 일파를 이루어온 고성, 통영 지방의 범패 전통을 잇고 있는 불모산영산재는 전통성과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불모산영산재가 보존 전승돼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후세에 그칠 날이 없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055)246-779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주도 불교유산 관광화 추진

제주도가 불교문화유산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청은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거리로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불교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5월 16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불교문화유적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 문화재 지정 및 전통사찰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통사찰 정비를 통해 제주 사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해인사, 종합 홍보관 개관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호차원에서 5월 1일부터 장경각 탐방시간제한제도를 시행하고 5월 4일 해인사 종합 홍보관을 개관했다.

해인사와 가야산 팔만대장경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한 후 문화재 해설사 안내에 따라 체계적인 관람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해인사 홍보관은 구광루 1층에 영상실과, 인터넷검색대, 사진 홍보관 등을 갖추고 있다.

해인사 홍보관 설치는 장경각 탐방 시간제한 제도와도 맞물려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취해진 장경각 탐방 시간제한제도를 보완하는 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경각 탐방 시간제한제도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화요일 하루 장경각을 휴관하고, 장경각을 홍보관에서 영상으로 관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인사는 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장경각 탐방을 제한하다가 2010년부터는 문화재 휴식년제를 도입, 10년을 주기로 1년씩 장경각을 휴관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배지선 기자

양산불교문화특구사업 ‘삐걱’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를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계획 중이던 양산불교문화특구사업이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으로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국회의원과 양산시가 4월 통도사 설법전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된 이번 사업은 통도사가 자연경관훼손 등 난개발 위주의 특구지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지역 내 60여 교회모임인 기독교총연합회 측도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은 환영하지만 특정종교만을 위한 특구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양산시는 공청회 이후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판단,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양산불교문화관광특구사업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천미희 기자

진주불교단체협의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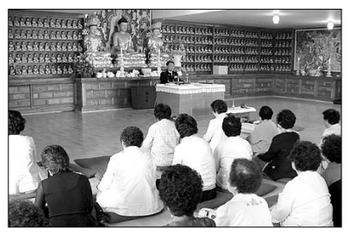
진주의 불교단체들이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불교단체협의회를 창립했다.

진주불교사암연합회, 진주교도소 불자회, 진주 MBC 불자회 등 진주 지역 25개 단체는 지난 5월 1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진주불교사암연합회 혜만 스님과 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은 허익구 진주산업대 교수, 김영석 진주시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진주불교단체협의회는 포교, 불교지도자 양성, 종교간 대화와 협력 증진, 불교문화예술 증진, 사회복지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벌이게 된다. 한명우 기자

광주 덕림사, 명사초청 강좌



도심 속에 자리한 사찰에서 신도들의 교양강화와 포교를 위해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개설했다.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격월로 지역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열기로 하고 5월 10일 서부경찰서 양승규 서장을 초청해 첫 강의를 가졌다(사진). 이준엽 기자

개금복지관, 노인의료서비스

부산 개금복지관(관장 박용하)은 5월 19일 부산 개금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상담을 펼치는 사랑의 의료봉사단 순회 진료를 진행했다.

특히 개금복지관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요보호 어르신 100명에게 의약품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5월 25일에는 찜질방 일일체험에 지역 어르신 10명을 초청하는 행사도 가졌다. 천미희 기자

열린가람, 어르신 합동결혼식



사회복지법인 열린 가람(대표이사 난승)은 5월 19일 포항 학산종합복지관에서 노인무료 합동결혼식을 열었다(사진).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주례로 열린 이날 결혼식에서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예식을 치르지 못하고 살아온 6, 70대 노인부부 4쌍이 지역 노인 1천여 명의 축하 속에 식을 올렸다. 결혼식에 이어 오후에는 축하연이 펼쳐져 훈훈함을 더했다. 배지선 기자

광주 무각사, 남미 산사음악회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7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천왕문 앞에 꾸며진 특설무대에는 남미 민속음악 공연단 ‘시사코리아’가 출연해 ‘속삭임’ ‘울면서 떠나네’ 등의 남미음악을 소개했다.

음악회에 앞서 주지 광민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찰에서 울리는 잉카, 자연의 소리를 통해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선문 활짝 열고 禪바람 일으켰다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의 정식 등록 참가 인원만도 2985명, 10회 이상 참가로 수료증을 받은 사람 1374명. 10회의 참선 실수를 모두 참가한 사람 또한 421명에 달했다. 이로써 범어사가 '문(門) 없는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활짝 열어 놓은 선문(禪門)에 들어선 대중이 수 천 명을 족히 넘어섰다.

문이 많아 문 찾기 어렵고, 문이 없어 문 찾기 어렵다고 했든가. 그만큼 올바른 법을 구하기 위해 문을 찾고 있는 사부대중들이 많고 선에 대한 대중들의 갈망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열 번에 걸쳐 진행된 법회 참가자가 큰 변동 없이 매주 4천~5천명을 유지한 일은 근래 들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범어사 설선법회는 한국 선불교의 역사를 새롭게 쓴 '대 불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어사 설선대법회가 가져온 선의 바람을 어떻게 내 안에 불어오게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다.

매주 4천여명 참가…정식 등록자 2985명 중 全회 수료 1374명

설문 응답자 424명 중 84% "다시 열리면 참가하겠다"

"장소 좁아 불편" 아쉬워…선문화센터 건립 계기 돼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설선대법회의 성공을 밑거름으로 선풍을 진작할 새로운 법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참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5월 7일 마지막 법회에서 배포된 1천여 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것은 424부. 그 결과에는 설선대법회에 대한 평가. 향후 법회에 대한 대중들의 바람, 설선대법회를 계기로 뜨거워진 수행 열기가 반영돼 있었다.

이번 설선대법회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26명(29.7%), 만족한다가 246명(58%)로 전체 참가자 중 88% 정도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하반기에 법회가 열리면 다시 참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355(83.7%)명이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법회에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문 뒤에 진행됐던 질의법사와 재가질의자의 문답 시간 진행에 대해서는 354명(83%)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됐다고 답해 질의응답이 대중들의 이해를 돕고 공부를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법내용에 대해서도 적당하다는 응답이 278명(65%), 어렵다 94명(22.1%), 쉽다 28명(6.6%)로 나타나 설법의 수준도 적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어사가 불교계 최초로 도입했던 ID 카드 활용과 관련해서는 276명(65%)가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46명(10.8%)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해 카드 활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또 어떤 법회가 열리길 희망할까?

범어사가 참선 실수 프로그램을 계속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329명(77.5%)로 나타나 참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직접 수행을 하겠다는 수행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과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번 법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간화선을 생활화, 대중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밖에, 범어사를 비롯해 전국의 사찰 법회 중 최근 1~2년 사이에 참석했던 법회 중 가장 유익했던 법회를 적는 주관식 설문에서는 '설선대법회'가 가장 높았다. 범어사가 다시 기획했으면 하는 법회를 묻자 설선대법회와 같은 법회나 참선 실수 관련 행사를 해달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 법회에 초청하기를 원하는 대상스님으로는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등이 1, 2, 3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번 법회의 문제점은 없었을까?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했던 것은 법회 장소의 문제(54%)로 법회가 열렸던 보제루가 협소해 대부분의 대중이 야외에서 법문을 들어 집중도가 떨어지고 날씨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참선 실수 공간이 너무 좁았다는 의견도 높았다.

결과적으로 설선대법회로 촉발된 선 수행에 대한 열망은 향후 장기적인 범어사의 방향타를 '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로 확고히 했으며, 선의 우수성을 알리고 널리 체험하게 하는 선문화센터 건립 추진의 계기가 됐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설선대법회 뒷이야기

영산회상 그 모습 그대로

○…설선대법회는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10주, 두달 2주 동안 열렸지만 참가자들은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까지 사 계절을 체험하는 이채로움을 맛보았다.

3월 5일 첫날, 눈이 귀한 부산에서 101년만에 폭설이 내렸다. 일체의 시비분별을 덮어버리는 눈으로 첫 법회가 장엄된 것이다.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매화 벚꽃 등 범어사 경내는 봄꽃 향기가 만발했으며 세찬 바람이 분 날도 있었고, 4월 9일 여섯 번째 법회에는 비가 내려 대중들은 우비를 입고 법문을 들었다.

또 봄같지 않게 뜨거운 햇볕 때문에 범어사는 일곱 차례나 선캡을 무료제공하기도 했다. 눈이 오던,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조금의 미동도 없이 법문을 듣고 있는 수 천 명의 불자들. 그 모습 그대로 시공(時空)을 초월, 영산회상을 재현한듯 보였다.

"범어사가 달라졌다"

○… '국고보조금 횡령, 주지 자리 놓고 갈등.'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일간지를 장식했던 범어사. 심지어 '부산불교의 중심에 범어사는 없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범어사가 확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대성 스님 취임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범어사가 설선대법회를 계기로 부산불교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섰다는 것. 선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토요참선 법회, 참선 템플스테이를 상설하며 선찰대본산의 위상을 되찾은 범어사는 선중심 도량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계속 선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상기병치료제 '진득찰' 어디서?

○…처음으로 대중 법문에 나선 네번째 법주인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인각 스님. 워낙 대중 법문을 하지 않았던 터라 설선법회 법문 후 법문 요청이 곳곳에서 쇄도했다. 특히 법문 중 경험담과 함께 들려줬던 상기병 치료제 '진득찰' 이라는 풀에 대해 문의해 오는 전화가 많았다. 그만큼 공부에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



간화선법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가자들. 등록자 2985명중 10회 모두 참가한 수료자는 1374명에 달한다.



범어사는 설선법회 참석 횟수와 안거 참석 여부를 최첨단 ID카드에 기록하는 시스템을 불교계 최초로 도입해 참가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전국서 인터넷 통해 법회 시청

○…설선법회가 진행되는 10주 동안 법회에 대한 관심은 범어사 밖에서도 뜨거웠다. 조계종의 한 중진 스님은 "직접 가서 듣지는 못했지만 다른 스님들을 통해 법회의 분위기와 법주 스님들의 법문 내용을 매주 듣고 있다"며 "도시에 있는 젊은 스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터넷을 통해 법회를 시청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법회가 장외에서 스님들의 관심을 끈 이유에 대해서는 법주스님들이 조계종 수행가풍 진작의 실질적인 주역이며 차세대의 '종정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범어사 사하촌은 회색 법복 물결

○…매 토요일 설선대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오전부터 범어사 사하촌과 지하철 일대는 회색 법복을 입은 불자들로 물결을 이뤘다. 회색 법복을 즐겨 입는 부산 불자들이 만들어낸 진풍경이다. 지하철과 법회장에서 만나는 길고 긴 회색 행렬은 다른 지역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원고 준비하는 치밀함

○…이번 법회에서 '선 수행의 단계'를 주제로 법문에 나선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 스님은 법문 원고를 책자로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한곳도 틀리지 않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성과 진지함으로 법회를 진행해 법문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비록 준비한 법문내용을 모두 낱낱이 기억하지만, 대중을 존중하고 성의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원고에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법문은 듣는 대중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공공의 행위입니다. 대중에게 더욱 완벽한 법문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를 원고로 남기고 또한 제대로 전달할 때 바로 동사섭이며 보현행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 스님이 내다본 이 시대의 법문 양식이다.

"제방에 선지식 많아"

○…회향법회에서 사회자 지환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이번 법회에서 모신 열 분의 법주 스님들 이외에도 훌륭하신 선지식들이 제방에 많습니다. 또한 이 법회에 동참하고 싶어도 일정과 여건상 함께 동참할 수 없었던 불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이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진할 것을 주문했다.

"법회 성공 계기로 선문화 대중화 박차"

인터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범어사는 물론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 설선대법회는 선의 진수, 선의 향기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전할 기초를 세운 귀한 법석(法席)이었다고 봅니다."

3월 5일부터 두 달여 간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를 회향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설선대법회를 마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절집 생활 40여 년 동안 가장 꿈을 많이 꾼 시간이었다"고 밝힌 스님은 "설선법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소년처럼 뭉게뭉게 피어나는 꿈을 꾸었고, 때로는 뜻대로 안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설선대법회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확신하는 스님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이번 법회를 회향하는 소감의 전부라고 할 만큼 부처님과 은사 동산 스님, 사형스님들이 두루 함께 응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선대법회 덕분에 범어사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고 있으며 며칠 전에는 조실 지유 스님과 사형인 정관 스님께도 칭찬을 들었다"며 웃음을 보인 스님은 "그 칭찬을 들으며 범어사의 미래가 곧 한국 불교의 미래로 닿아 있다는 믿음으로 부단히 변화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의 선맥(禪脈)을 잇는 선승들이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이번 법회는 '제 2의 설선대법회'를 또다시 꿈꾸게 한다"며 향후, 숨어 정진중인 눈밝은 선지식을 대중법석에 모시고 선법문으로 깨달음의 장을 열어 보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100명의 대중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범어사는 설선대법회를 계기로 부산시, 금정구와 함께 선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선문화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산= 천미희 기자**

2005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5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초급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20명	3개월
중급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3개월
전통의식과정	49재의식 및 전통교육	20명	6개월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사물 다루는 법	10명	3개월

②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③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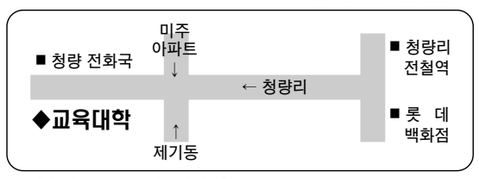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기간** : 5월 23일 ~ 31일까지 모집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까르마업)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 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 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회향 소감

설선대법회 첫 법회가 열렸던 3월 5일, 법문에 나선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은 '법회는 대화'라고 했다. 대화는 홀로 할 수 없다. 열 번의 법회가 열린 두 달여 동안, 법회를 기획했던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 열분의 법주스님들, 법문을 들었던 수 천여 불자들, 스님과 재가질의자 모두가 '설선대법회'라는 거대한 그물에 꿰인 구슬이었다. 각기 다른 역할로 '설선대법회'라는 거대한 그물을 만들었고 그 구슬이 되었던 첨석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설선대법회 의미와 파급효과, 향후 방향 등을 짚어보았다.

생활속 수행으로 이어져야 회향 잘한 것

입제식·무차선회 사회 지환 스님



"범어사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 간화선에 대한 관심과 '붐'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불자들의 실제 생활속 수행으로 이어져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설선대법회 여섯 번째 법주이면서 입제식과 회향법회인 무차선회 사회를 맡았던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은 이렇게 바람을 표했다. "설선대법회가 간화선 중흥을 이끌어낸 법회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간화선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등의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그래야 설선대법회가 진실로 성공적으로 회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환 스님은 이어 "선(禪)은 법문 몇번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심과 굳건한 신심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선지(禪旨)법문이 필요한데, 주제 법문에 충실하느라 선법문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설선대법회에 참가했던 법주스님들 중엔 나중에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한 스님들이 많았는데 일평생 정진해 온 수행의 열매를 대중들에게 남김없이 고루 나누어주고픈 자비심이 불러온 안타까움이었다. 지환 스님은 "대중들을 향한 법주스님들의 이런 안타까움이 제 2의 설선대법회를 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한다"며 "특히 현대불교신문사의 꼼꼼한 법회 준비가 너무 좋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법회때 질의법사를 맡았으며 2회부터 9회까지 법문 후 있은 질의와 응답에서 능숙한 사회로 분위기를 이끈 스님은 설선대법회의 가장 큰 성과로 "두 분 조실스님들의 자상한 법문과 대답을 대중들에게 전함으로써 '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모범을 보인점"을 먼저 꼽았으며 "여덟 분의 선사스님들이 들려 준 법문은 신선했고, 범어사는 대중들의 높은 관심 속에 부산불교의 새로운 희망으로 선찰대본산의 본분을 찾은 것 같아 좋았다"고 밝혔다.

스님은 법회에서의 아쉬움 점도 없지 않았다고 했다. 먼저 법문의 내용이 대중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계획될 수 없었던 점. 그래서 법문의 내용과 질문자들의 질문이 일부 중복된 점은 내내 아쉽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라도 청중의 질문을 유도하는 자리가 배려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스님은 "다음에 설선법회가 또 열리게 되면 어록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기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다음 법회 선어록 중심으로 기획됐으면

'질의응답' 사회 화랑 스님



부처님 당시 수보리된 듯 가슴 벅차

'홍일점' 비구니 질의법사 흥수 스님



"대중을 대신해 질문을 했을 때 마치 부처님 당시의 수보리가 된 듯해 가슴이 벅찼습니다."

비구니스님으로는 유일하게 질의법사로 참석해 주목을 받은 흥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비구니선감) 은 말끝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다. 질문자로서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간화선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끊임없는 우려 속에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설선대법회가 시작됐으니 질문에 나선 마음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은 스님은 "간화선이 대중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선공부에 입문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감개무량했던 질의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각박하게 살고 있는 현실에서 간화선 공부를 통해 서로 화합되고 활짝 열린 마음이 될 때 불국토가 가까워진다고 본다"는 스님은 재자들에도 최상승의 공부가 바로 간화선임을 거듭 강조하며 "대중들이 더욱 간화선에 가까이 가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참다운 진리를 느끼며 선의 세계에서 하나로 소통하는 멋진 살림살이를 맛볼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답 통해 바른법에 대한 의문 풀어

재가질의자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선원에서 정진하시는 큰 스님들을 찾아뵙고 공부를 여쭐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설선법회에서 큰스님에게 법을 물을 수 있는 질의자가 된 것은 그것 자체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번 법회 10명의 재가질의자 중 한명이었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몇 천명의 대중이 한 마음 돼 숙연하게 법회를 듣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으며 대중을 대신해 질의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범어사가 중심이 돼 참다운 법에 목말라 하는 부산시민들에게 선 법문으로 선의 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감로수를 마시게 했고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묻고 답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를 그대로 펼쳐보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질문과 답을 통해 스스로 의문을 풀었을 뿐 아니라 대중에게 바른 법의 세계를 전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한 설 교육감은 "전국 각지에서 범어사를 찾아 고르지 않은 날씨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심으로 법문을 경청한 많은 불자들에게 깨침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평생공부 기반 될 확고한 신념 얻어

대표로 수료증 받은 김용갑 거사



"확고한 신심을 바탕으로 참나를 찾기 위한 노력을 더욱 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득이죠."

5월 7일 회향법회에서 참가자를 대표해 수료증을 받은 김용갑 거사(77 · 관조)는 허리가 아파 서 중단했던 공부를 설선대법회로 인해 새롭게 시작했다며 기뻐했다.

부인인 문영옥(70 · 연지행) 보살과 함께 열 번의 법회와 참선 실수 모두 참석한 김 거사는 "전에는 여러 경전을 공부했는데 이번 법회를 통해서 이렇게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과 오로지 참선에만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을 세웠다"고 말했다.

"처음엔 날씨가 추워서 고생을 했고 나중엔 더워서 힘들었지만 범어사가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서 고마웠다"며 "열 번의 법회가 평생 공부의 기틀을 다져줬으니 이제 더욱 정진하는 일만 남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앞으로 힘들어도 범어사 토요 참선에 참석하고 또 생활 중에도 늘 화두를 놓치지 않도록 정진할 것"이라며 말했다.

인생의 의문덩어리 푸는 실마리 찾아

카이스트 수석졸업자 이수칠 거사



"인생의 커다란 고민 앞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설선대법회 소식을 접했고 설선법회를 통해 저를 옴짝 달싹 못하게 하던 깊은 의문의 높은 턱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설선대법회로 인해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안목을 얻었다는 이 수칠(26 · 정광) 거사는 어머니와 함께 아홉 차례 설선대법회에 참석했다. 아홉 번 법회 모두가 가뭄에 내린 단비처럼 반가웠고 마른 논바닥에 물이 스미듯 법의 감로에 흠뻑 젖어들었던 체험의 시간이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 거사가 동국대 한의학과로 편입학 한 후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친 것은 지난해 가을 해부학을 공부하면서다. 해부학 수업을 하면서 '과연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 앞에 서게 됐다. 그 물음이 해결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 휴학계를 냈고 의문을 풀기 위해 밤을 새며 매달렸다. "법문과 이어지는 문답이 제 의문과 고민을 푸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법회가 자주 열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점검받고 발심하여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렵기만 하던 禪 첫걸음 뗐어요

봉사하며 법문들은 김외숙 보살



"선에 대한 책을 읽어도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설선대법회에 열 번 모두 참석하면서 들은 법문 덕분인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참선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는 결심도 섰고요."

법회 참석때마다 설선대법회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범어사 기획실 종무원들, 주차 관리인들까지 챙겨가며 김밥, 초밥, 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가져온 김외숙(48 · 여의주) 보살은 선공부에 입문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 보살은 이번 법회를 위해 뒤에서 점심도 굶어가며 고생한 범어사의 스님들, 기획실 직원, 현대불교신문사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전했다.

토요일을 기다리며 한주일을 살았다는 김보살은 "최고의 선지식인 스님들의 설법과 질의응답, 선방 스님의 지도로 이뤄진 참선실수 시간 등이 조화를 이뤄 초심자도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법회 육성테이프도 사서 듣고 책도 사서 읽으며 복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김외숙 보살은 "화두를 챙기며 공부할 수 있는 생활선에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 되겠다"고 다짐했다.

철야정진하며 함께 공부하니 기뻐

10회 참석 89세 변금연대 보살



"화두 공부하면 힘이 절로 나고 철야정진을 해도 끄덕 없어. 이번 설선대법회 기간 동안에도 매주 철야정진을 하면서 대중과 함께 공부하니 참 좋았어요."

89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매주 토요일 법문을 듣고 철야정진을 모두 마쳐 안거증을 받은 변금연대 보살. 금연대 보살은 차를 6번이나 갈아타며 설선대법회에 참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성철 스님이 영가 스님의 <증도가>를 풀어 쓴 법문집을 공부의 길잡이로 삼고 있다는 금연대보살은 이번 법주스님들의 법문이 직접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의 힘이 담겨 있어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68세부터 전국의 재가 선원을 다녔고 통도사 보살선방 등에서 입승을 10년 동안 보았던 금연대 보살은 수행의 대선배답게 "스님들의 좋은 법문도 또 대중을 위해 했던 많은 질문들도 결국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닿지 않는다"며 수행자세에 조언을 해주었다.

천미희 기자

부산여성불자회장이
현대불교신문사에

지상 무차법회 제안합니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범어사 설선대법회는 참으로 그 의미가 깊고 불자들을 깨어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처에 선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큰 흐름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큰 신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불자들에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다들 근기에 맞추어 척척 공부해 나가기 마련이지만 출가 수행자가 아닌 재가불자들에겐 이와 같은 큰 법회가 열림으로 인해 모두가 자기 공부 방향이나 새로운 원력을 가질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왕에 선으로 인도하기 위한 큰 법회라면 재가불자들이 공부하기 좋은 방법을 하나 하나 열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생활선이 가능하다면 늘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지침서가 필요한지, 무조건 선원에서 공부만 하면 되는지 등 어리석은 질문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회향날 무차선회시간은, 준비된 질문자보다 다소 수준은 떨어지고 예의에 어긋남도 보였지만 말 그대로 '대중화'에 가까이 가고 있는 듯 새로운 시대적인 가능성을 엿보게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법회가 아니더라도 지상(紙上) 무차법회를 열어, 출가자와 재가자, 각 선원별로 기회를 제공하여 선에 입문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공부의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종 통증완화' 쑥뜸기 좌훈기 개발 출시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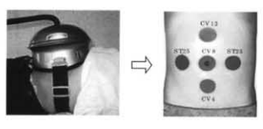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되고, 쑥뜸시 화상 위험이 없으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
ISO 9001 인증제품 - 쑥뜸기, 좌훈기

신상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2)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적용혈자리 : 회음혈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신경성과민대장염, 성기능개선, 갱년기 장애





음양 쑥뜸기(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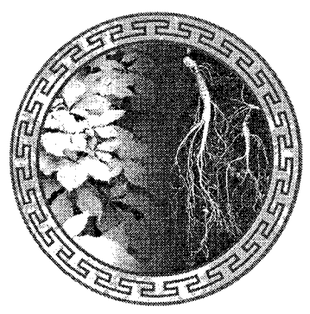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모사포유 www.moxa4u.com
D.M.I산업, 대구한의대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체인점 및 대리점 문의 : (02)521-6353~4
제품구입문의 : (02)598-9834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우직처

이것이 명품이다!



현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톱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祝 : 현풍 토종심마니 오가피 여자프로권투단 소속
김주희 선수의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1차 타이틀 방어전 승리를 축하합니다.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읍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각 총림 을유년 결제법어(요약)

을유년 하안거 결제일인 5월 22일,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는 일제히 결제 법회를 열고 3개월간의 하안거에 들어갔다. 안거란 동절기 3개월 하절기 3개월씩 일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하안거 결제는 하루 전날 저녁 결제대중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 방장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본격 시작된다.

자기마저 잊는 정진삼매로 공안 타파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운문 선사가 결제대중에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듣고서 도를 깨닫고 빛을 보고서 마음을 밝힌다. 어떤 것이 소리를 듣고서 도를 깨닫는 것이며 색(色)을 보고서 마음을 깨닫는 것인가?"

이에 대중들이 묵묵히 말이 없으니 선사께서 대신 대답하였습니다.

"관음보살이 돈을 가지고 와서 호떡을 샀는데 손을 내리고서 보니 호떡이 아니라 만두더라."

흔히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달았다' 고 함은 향엄이 대나무를 기왓장 조각으로 치고서, 그 소리에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 고 한 것은 영운 스님이 복사꽃을 보고 도를 깨달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지금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들을 때가 증득할 때요, 색을 볼 때가 증득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문 선사는 문성오도(聞聲悟道)와 견색명심(見色明心)을 묻고는, 잠시 후 스스로 '손을 들어서 호떡을 샀는데, 손을 내리고 보니 호떡이 아니라 만두더라' 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운문 선사께서 십자 네거리와 만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재를 바르고 흙을 문지를 줄 아는 것이며 귀신같이 나타나고 귀신같이 없어질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안거 결제를 하는 눈 밝은 납자들은 이러한 도리를 놓쳐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이는 동쪽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서쪽에서 일어서고, 남자의 몸으로 선정에 들었다가 여자의 몸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들판의 경치는 산천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고 달빛은 곧장 연못의 물과 통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안거철 석 달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자기마저 잊어버리는 정진삼매를 통하여 '운문성색(雲門聲色)' 의 공안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승이 결제대중을 위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는다고 하나 도에 어찌 소리가 있겠으며,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고 하나 마음에 어찌 색이 있겠습니까?

영광독요형탈근진(靈光獨耀逈脫根塵)이로다.
홀약근진개변법계(忽若根塵皆徧法界)하니
우자마생(又作麼生)고
장위시만두각시호병(將謂是饅頭却是餬餠)이로다.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근과 육진을 아득히 벗어나는구나.
홀연히 육근과 육진이 법계에 두루 하니
또 어찌 하겠는가?
만두라 여겼더니 도리어 호떡이구나.

근원에 들어가 뜻 얻는곳 어디인가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짧음도 없고 길지도 않고 본래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다. 곳을 따라 청색과 황색이 나타나는 것이 법(法)"이라 했고,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온갖 법이 나지 않고 온갖 법이 멸하지도 않는다" 하였으니 눈 닿는 곳마다 모두 여여하다.

법(法)이 불생불멸함에 허공과 같아 본래공(空)하고 오음(五陰)이 없으나 일체경계가 자기의 분별심, 오직 망령된 생각을 의지해서 차별이 있음을 알겠는가?

야우초청수성진(夜雨初晴垂星辰)
암중한등독불면(庵中寒燈獨不眼)
취겁외가무공적(吹劫外歌無孔笛)
편월수풍잠창간(片月隨風潛窓間)

비 개인 밤별은 휘장처럼 드리우고
암자의 차가운 등불아래 홀로 잠 못 이루어
구멍 없는 피리로 겁외가를 부는데
조각달은 바람 따라 창틈 몰래 스며드네

법(法)이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의 깨달음을 여의지 않음이니 세간을 여의고 보리(菩提)를 구하려 하지 말라

구하고자 할 때에는 십이시중(十二時中)과 사위의(四威儀)안을 향하여 일어나는 파도 속에서 깨달음을 관찰함이니 엿보고 오고 엿보아 갈 것이니 이러하면 홀연히 그 곳에서 근원을 식득(識得)하여 감이니라(중략)

(양구(良久)하신후)

해가 서산에 지면 달이 동쪽에서 뜨니라
알겠는가!

명년갱유신조재(明年更有新條在)
뇌란춘풍졸미휴(惱亂春風卒未休)

명년에 또 다시 새가지가 뻗어
봄바람에 흔들리어 끝이 없으리

주장삼타(柱杖三打)

생명뿌리 끊어지니 흰눈이…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할애사친출가래
(割愛辭親出家來)

공부핍철직무의
(工夫逼掇直無疑)

명근돈단허공락
(命根頓斷虛空落)

유월염천백설비
(六月炎天白雪飛)

애정 끊고 부모 떠나 특별히 여기와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화두를 타파하여서
생명 뿌리 끊어지고 허공마저 무너지니
유월염천에 흰눈이 날리는도다.

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

의심 사라지니 편안하고 한가롭네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방하만사서(放下萬事瑞) 수도조주관(須度趙州關)
삼도백불회(參到百不會) 편시로단단(便是露團團)

온갖 일 다 놓아버리고
반드시 조주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니
참구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경지에 이르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느니라.

직절여사거(直截如斯去) 수유파의단(須臾破疑團)
납승가중사(衲僧家中事) 여시내안한(如是乃安閑)

곧 바로 이와 같이 가다보면
잠깐사이에 의심덩어리가 부서지니
중이 사는 집안일은
이 같아야 편안하고 한가로우니라.

이는 우리 종단의 종조님께서 어떻게 안거를 해야 참된 안거인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견성 못한 이가 있거든 스스로를 돌아보고 을유년 여름은 내 일생에 없는 샘치고 초심행자를 벗어나지 못한 이 병납(病衲)과 함께 우리 종조님 말씀대로 때와 장소 구별 말고 각기 처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구애받지 말고 한번 철저하게 참구해 봅시다.

편안한 것은 한가로워야 합니다. 한가로운 것은 아무 일이 없어야 합니다. 스님에게 편안하냐고 묻는 것은 안거를 잘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후략)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후 자이툰부대장 황의돈 소장과 악수하는 법장스님. 식당에 모인 500여 자이툰 장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아르빌에 연등 밝히고 세계평화 기원

종교지도자로 첫 방문…주둔지 시찰 · 법회 등 강행군



자이툰 아르빌 평화사 법회장면. 맨 왼쪽이 평화사 주지 법사 정연태 법사.



평화와 자비의 연등을 달고 있는 법장 스님.



폭탄테러로 다친 이라크 소년을 위문하는 모습 .

3600여 장병과 함께 식사 "하루빨리 평화 정착되길…"

"파병군인 여러분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위로 방문단은 5월 12일 오후 12시(현지시각 오전 11시)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아랍어로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부대를 방문, 3600여 군인들의 무사안녕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연등을 내걸고 병사들을 위문했다.

법장 스님은 아르빌 하울러 공항에 도착한 뒤 자이툰 부대장인 황의돈 소장의 영접을 받고 곧바로 이동해 지휘통제실에서 부대현황을 보고받은 후 시설을 둘러봤다.

법장 스님과 조계종 위문단은 자이툰 부대에 위문금 2만달러(2000만원)를 전달하고, 식당에서 500명의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격려말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싶고, 어려움이 있다면 전부 걷어갈려고 왔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하루빨리 이라크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이툰 부대 황의돈 소장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곳까지 찾아와주시니 힘이 저절로 난다"며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평화, 재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가 재건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장 스님과 조계종 위문단은 군법당 평화사(주지법사 정연태 대위)를 방문, 500여명의 불자 장병들과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장병들의 고통을 모두 나에게 다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만족의 보물을 선사하겠다"며 "이 보물은 고통이나 슬픔이 없고, 매일 좋은 날만 생기게 하는 보물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아르빌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이툰병원을 둘러보고, 5월 4일 1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아르빌 폭탄테러 당시 부상을 입은 야흐야(6세)와 나우로즈(23세)를 위로했다.

스님은 야흐야와 나우로즈의 손을 잡고 쾌유를 기원했다. 야흐야 어머니는 법장 스님에게 "한국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이툰 부대는 병원진료, 현지 의료인 인턴십 교육, 각종 물자기증, 부대지원 건설공사, 문맹자 및 태권도 교실, 제빵제과, 자동차 정비등 수준높은 기술교육원을 운영해 아르빌 현지에서 '한국군은 친구'라는 인식을 심고 있었다.

법장 스님과 조계종 위문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아르빌 하울러 공항에서 수송기를 타고 쿠웨이트로 나와 곧바로 귀국했다.

한편 이날 이라크 자이툰부대 방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 화계사 주지인 성광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수행사서 명정 스님, 사회국장 정업 스님,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 김상래 군법사와 실무자, 취재기자등 17명이 동행했다.

글 · 사진/이라크 아르빌= 김원우 기자

■ 미사일 위협 피하기 위해 비밀 운항 … '작전' 방불



자이툰 부대원들을 실어 나르는 c-130 공군수송기 앞에서 1만2000km 무사고를 달성한 이해원 중령과 함께한 법장 스님. 이 중령은 매주 평화사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이다.

5월 10일 밤 12시경 인천공항을 출발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일행은 5월 12일 오전 8시, 쿠웨이트 도심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알리알살렘 기지에서 제58 항공수송단의 C-130 수송기를 타고 이라크 아르빌로 들어갔다. 쿠웨이트 알리알살렘 기지에서 이라크 북부 아르빌 하울러 공항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됐다. 탑승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두 헬멧과 방탄 조끼까지 갖춰야 했다.

수송기는 이라크가 위험지역임을 감안, 지상에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2만피트로 고공비행하고, 최고속도인 550km를 유지하며 이라크 남과 북을 관통했다.

아르빌에 도착해서도 착륙에 앞서 방향을 바꾸는 급선회와 창밖으로 땅바닥이 보일 만큼 양쪽으로 뒤뚱거리는 곡예비행을 시도했다.

법장 스님은 오전 11시경 이라크 아르빌 하울러 공항에 도착한 뒤 4km 거리의 자이툰 부대로 향했다. 스님은 부대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지휘관과 환담했다. 스님은 아르빌에 머문 4시간 동안 장병들과 점심공양, 위문, 법회, 연등걸기, 주둔지 견학등 빡빡한 일정을 보냈다.

이라크 아르빌= 김원우 기자

■ "장병들의 사기 북돋기 위해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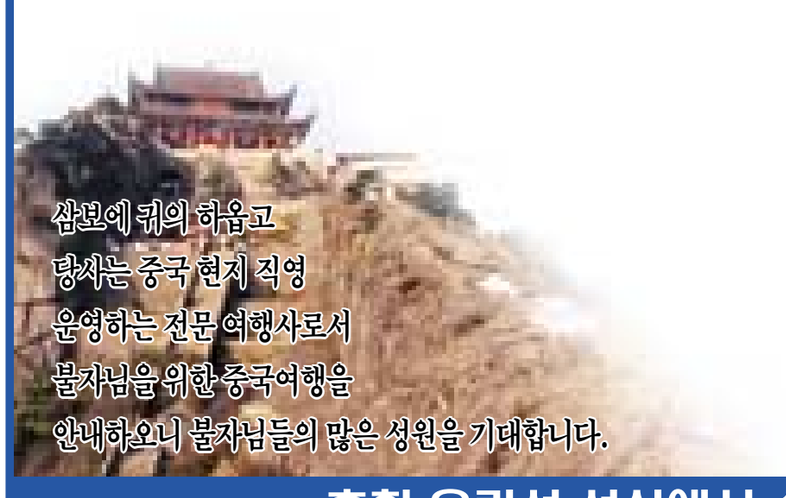
법장 스님은 5월 11일 오전 8시(현지시간) 쿠웨이트에 도착, 공항 VIP룸에서 송근호 쿠웨이트 대사의 영접을 받고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이라크행을 강행한 이유를 밝혔다.

법장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종교계의 수장으로서 이국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장병들에게 힘을 주자는 생각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오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전시지역이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는 소리를 안했는데도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리는 사람이 많았다"며 "내가 위험하면 이라크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누구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고 말했다.

쿠웨이트= 김원우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티벳 성지 순례 8일 6월 9일 출발
여행경비 : ₩ 1,85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79만원 (10명이상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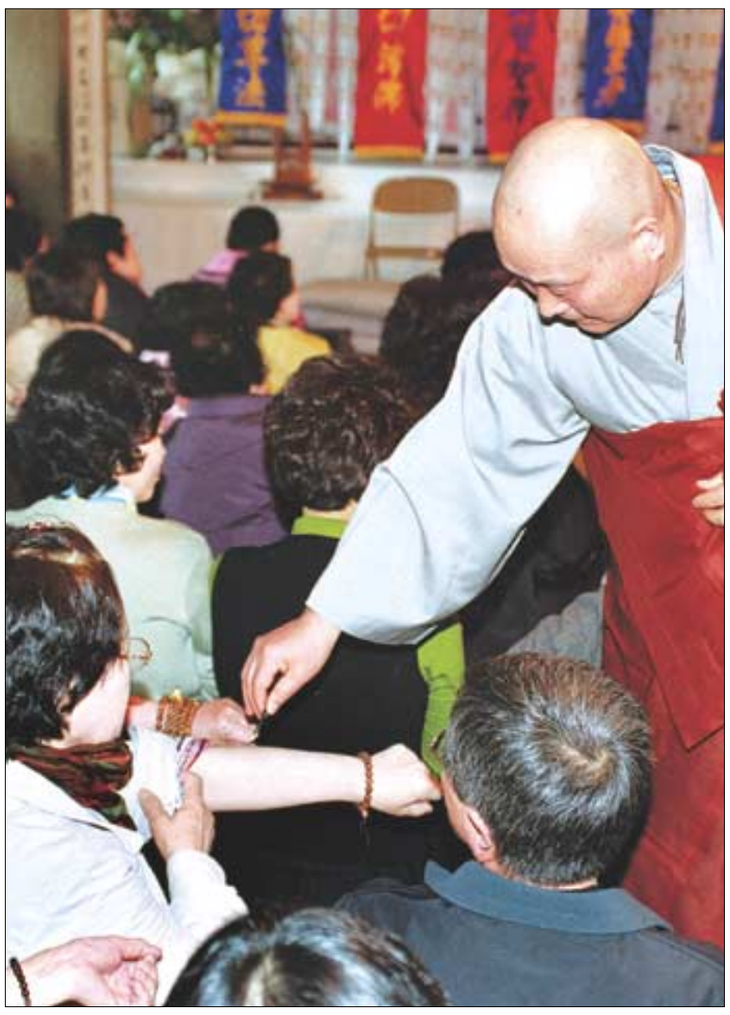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계 받기 겁나요? 그래도 받으세요

이제 겨우 불교에 첫 발을 내딛은 이들에게 수계의식은 난해한 격식과 복잡한 절차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를 수지하는 일은 참회와 서원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자 부처님 전에 올리는 약속이다. 때문에 못 지킬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받고 지키려 노력하는게 중요하다. 수계가 지닌 의미와 수계자가 지녀야할 자세를 정리했다.



수계의식은 요식행위로 흘려버리기 쉽지만 불제자로 거듭나는 중요한 의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제자로 거듭날 것 다짐 · 확인 받는 자리
계 받기 전 1보1배, 1080배 등 도움
인연 있는 스님께 받고 법명 꼭 기억해야

 # 수계 의미 바로 알아야

불교에 입문하면 수계의식을 치르면서도 대부분의 입문자들은 이에 대한 기초상식이 부족하다. 전계사는 반드시 수계의 의미를 알려주어 계가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는 잘못된 것을 막고 날로 선을 증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삼학(三學, 계 · 정 · 혜)의 으뜸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계를 받아 지니는 의식은 불전에서 엄숙한 가운데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확인을 받는 자리인 것이다.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계를 받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한다는 것"이라며 "계를 지켜야 참다운 불자가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서원을 세워라

수계의식에 담긴 두 가지 큰 뜻을 꼽으라면 참회와 서원이다. 참회는 자신의 죄과를 깨우쳐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식이며, 서원은 계를 받아 지녀 참불자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다. 이 외에도 각자의 원을 세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원을 세운다면 수계의 의미를 한껏 살릴 수 있다.

또한 서원은 원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서원을 이루겠다는 원까지 세워야 한다. 서원이 굳건하지 못하면 계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 수계하기 전 서원지를 작성하는 것은 서원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서원지를 간직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면 각오를 새로이 할 수 있다.

 # 용맹정진 후 계 받으라

계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계자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540배나 1080배 등으로 마음을 다잡는다면 도움이 된다.

용맹정진은 수계에서 스스로 굳은 다짐을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지계의 밑거름이 된다. 용맹정진 후에 계를 받는다면 수계의 의미는 한층 더 확고해질 것이다.

1박2일 또는 그 이상의 일정으로 수계를 받으러 사찰에 간다면 1보1배, 발우공양, 1080배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수계식에 임하는 것이 좋다. 받을 계에 대한 지식을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수계사찰 · 계사 선정 신중히

수계를 받는 장소와 계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평소 인연이 있는 스님에게 계를 받는 것이 좋다. 다니는 사찰이 없거나 알고 있는 스님이 없는 경우라면 앞으로 다닐 사찰에서 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사로부터 듣는 덕담이 지계의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에게 수계해준 계사와 계사가 내려준 수계명(법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계사와 법명을 알고 있어야 자긍심이 생긴다. 이런 자긍심은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 "수계했다" 주위에 알려라

수계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지계는 그렇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입문은 쉽지만 참다운 불제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수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계를 지킬 자신이 없다고 해서 수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를 받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수계의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수계를 한 뒤에는 자신이 계를 받았음을 대중에게 말함으로써 스스로 각오를 다지면 좋을 것이다. 계를 지키거나 또는 지키지 못하는 일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류남녕

불자약사보리회 총무

80만명에 무료투약 봉사
불교병원 선방 건립 발원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약사들로 구성된 불자약사보리회. 올해로 8년을 맞은 불자약사보리회는 왕성한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가운데 하나다. 12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불자약사보리회가 12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견실한 단체로 성장하기까지는 총무를 맡고 있는 류남녕(45 · 사진) 약사의 노력이 주춧돌이 됐다.

"IMF로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 거리에 내몰릴 상황에서 부처님 전에서 약국을 차려주면 1천명 무료투약을 하겠다는 발원을 했었어요. 약국을 차리고 난 후에는 빚 갚으랴 무료투약 봉사하랴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8년이 됐네요."

불자약사보리회를 창립하고도 운영비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을때 류총무는 자신의 약국에서 6백만원 상당의 약품을 내놓았다. 약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빚 갚던 시절이었다.

불자약사보리회의 봉사활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을지로 지하철역에서는 노숙자에게 컵라면과 무료약품을 제공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모이는 파주와 안산, 김포 등지를 찾아 무료투약과 상담활동을 펼쳤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을 3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하고 100일기도 다니기를 여러차례 해보았지만 봉사현장에서 흘리는 눈물만큼 값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류총무는 1985년 서울불교청년회 활동 이후 줄곧 불교개혁운동에 동참해 왔다. 지식인들이 깨어나야 불교가 산다는 신념에서다. 불자약사보리회를 창립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8년동안 불자약사보리회는 8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당초는 그저 1천명에게 무료투약하겠다던 류총무는 목표치를 훨씬 넘었지만 그만두지 못했다.

"후원금을 보내주는 회원 중에 한 보살님은 매일 108배를 해서 동전을 모아 마련한 남편 제사비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큰 돈 들여 천도재 올리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대조 되더군요."

충주 창룡사에 다니는 류총무는 불심이 매우 돈독하다. 집과 약국에 불단을 마련해놓고 하루종일 능엄신주를 욀 정도다. 그런 류총무가 불교병원과 선방을 건립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나이가 들어 오갈데 없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삶을 회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약국을 개원할 때 같이 세웠던 원이에요. 절에 다니면서 문중이 없어 쫓겨나는 스님을 보고 난 뒤였지요. 불교가 구태에서 벗어나 중생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불자들이 더 정진했으면 좋겠네요."

박봉영 기자

"불자 지휘관들 도움이 컸죠"

남양주 · 홍천 경찰서 불교회 연이어 창립

남양주경찰서 불교회는 5월 13일 청사내 강당에서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과 남양주경찰서 경승위원장 송묵 스님, 중랑경찰서 경승실장 범만 스님, 최재성 국회의원, 문수원 남양주경찰서장, 봉선사 합창단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초대회장에 김영철 경무과장(경정)이 선출됐다.

남양주경찰서 불교회는 문수원 서장의 후원으로 창립이 성사돼 훈훈한 감동을 전해준다. 문서장은 서울 남부경찰서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재직할 당시에도 불교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법사로 나선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오랜 기간 창립을 발원한 끝에 불교회가 결성된 만큼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규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불교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5월 11일에는 홍천경찰서 불교회가 청사내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홍천경찰서 불교회 창립은 홍천 백락사 주지 성민 스님과 최승화 수사과장이 1년여 동안 법당 개원과 더불어 준비해 오던 중 전병량 홍천경찰서장의 결단으로 법당 개원에 앞서 성사됐다.

홍천경찰서 불교회는 앞으로 홍천군청 공무원불자회와 연대한 연합법회와 월 1회 정기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질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경찰불교회는 5월 29일 오전 10시 평창 월정사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제3기 임원단 선출과 공로자 표창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공무원불자 합동수계식

6월 25~26일 통도사서

공무원불자들이 직장불교 활성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부처님 앞에 서약한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6월 25~26일 양산 통도사에서 공무원불자와 가족이 참가하는 제5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수계법회는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1보1배와 수계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불련은 이번 수계법회와 제11차 성지순례를 겸해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경인교사 · 다보회

성지서 야외법회 봉행

서울 · 경인교사불자회와 서울철도차량관리단 다보회가 5월 28일 성지순례 일환으로 야외법회를 봉행한다.

서울 · 경인교사불자회는 고달사지와 신륵사, 목아박물관 등지를 돌며 야외법회를 봉행한 뒤 이어 분당 하얀마음선원에서 3천배 철야정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다보회는 김제 금산사를 찾아 순례법회를 연다.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께 드리는 글

(어리석은 분은 읽은들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읽지 마세요)

"UFO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에 대한 책의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민족의 정서와 의식이란 그 밑바탕이 그 민족의 오래된 전통적 신앙과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意識)의 전환운동이란 그 시대를 잘 간파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인지함으로서 우리 민족의 의식(意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고 대처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옳고 합리적인 이론과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바른 사상과 종교를 널리 홍보함으로서 민족의 깨닫기 운동이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다(多)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천주교)의 독무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서거하자 마치 우리의 國父가 서거한 것보다도 더한 뉴스의 독무대는 민족의 주체적 의식이 망각된 채 사대주의 신앙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깨닫기 운동이란 바로 전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지표이며, 이 길은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설파한 일입니다. 미물까지도 널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인데 어찌 사도(邪道)들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도하고 바르게 이끌 사람들은 불교인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친척이며 형제들인 기독교(천주교)인들입니다.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수행자의 옳은 행위이며 자비 정신이므로 그들을 가련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교권수호의 여러 가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남의 신앙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법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요,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항상 쓰고 있으면 타성이 붙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닫기 운동이란 바른 법을 널리 홍보하고 깨달음의 길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널리 홍보하고 읽게끔 하는 그 자체가 포교이며,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이지 않고 종교 간에 갈등과 다툼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히 교화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도는 전 종교인의 과반수(過半數)가 넘고 천주교인도 4백만이 넘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에 있어 지도급 인사들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므로 사회는 그들의 논리에 좌지우지됨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인은 몇%일까요? 10%도 못되는 현실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兆). 우리나라의 전 예산을 퍼붓는다 해도 기독교의 교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스님들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신도가 줄어 폐사 위기의 사찰이 많은데 지금도 대형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이 크고 불상이 크면 영험한 부처님이 계신가요?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나와 있는 많은 사찰 매매는 무엇을 뜻하나요. 신도가 없으면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 아무리 큰 절을 짓고 불상을 크게 만든들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천지창조의 비밀**, 김종성 씀〉을 日刊紙에 꾸준히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읽게끔 한다면 불교인은 자긍심에 개종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무종교인은 기독교(천주교)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들도 비논리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 자각의 소리에 귀를 열고 깨달음의 종교에 귀의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교화하는 방법, 종교전쟁이 없이 교화하는 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교리의 홍보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성현의 가르침이 〈깨닫기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 임원 일동
회장 김 도 기(관음사 주지)

동참하실 분 :
농협 751025- 51- 021224 (예금주 : 김 팔 영(도기))
(054-633-0108, 010-2465-1357)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00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알바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전통범음범패학인모집
기초불공의식, 천도재, 49재, 바라무, 작법무
초급부터 고급까지 모든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영남범음범패교육대학
수료후 수료증 수여
011-849-0961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 천도재 49재 | 정안식 | 용왕산신재 | 바라나비춤 | 상가영불 | 천도시식전문 |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역학수강생모집 인생상담
〈출장강의 · 상담가능〉
● 강좌: 사주 기초과정 · 완성과정 (수시모집)
● 상담: 사주 궁합 사업 승진 신생아작명 상호 기타
동국역학 연구원
02)2273-1827 / 017-205-1962
서울 중구 묵정동 18-27 대학문화원 413호

아직도 영가장애로 고생하십니까
정토사에서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jungtosa.net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031)775-335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40 ~ 50대
밀양시 상남면 소재 영구암
055)353-0303

비구니,기도스님 행자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033)671-6079

신심있고 건강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지리산 50~60대
011-483-5639

보살님을 모십니다
(진주)
055)744-3106

행자모집
행자(女) 모집합니다
(서울 성북 · 강원 홍천)
011-732-693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전후,신심돈독한 분
사무원 구합니다
pc가능한 미혼여성, 경남 지역에 있는 조계종사찰입니다
055)289-7282

석자미만의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저렴하게 보시할 분
▷ 포교원
010-7324-511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천지역
(60세이상 70세 초반)
011-781-3513

인연을 찾습니다
암자나 포교당에서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거나 같이 운영할 인연을 기다립니다.
055)383-667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전 성불사
011-591-82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459-3108

명산에서 백일기도 하실 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696-8520

절에서 운전자리 요망
019-281-8272
011-642-207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광주시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010-9600-1454

토굴입니다
촛대 두쌍, 불기, 다기, 향로외 필요합니다
쓰셨던 것이라도 무관하오니 보내주신 다면 잘쓰겠습니다
043)733-4036
010-3919-33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상
010-7160-2734

기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 바랍니다
010-4586-7160

영각전-사무보조(女) 1분, 보광사-사무원(男) 1분
운전하실 처사님 1분을 모십니다
▷파주 보광사
031)948-7700~1

부전스님 모십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 50대)
▷경북
054)452-0845
011-539-0845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경북 청도
016-9870-2388
011-9493-0002

삼보귀의합니다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실 조용한 암자나 터전 인연을 급히 찾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지역
010-9216-3073

525호 본지 봉축광고에 청주 용화사 주지 각의스님이 회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526호에 다시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수 강 생 모 집

周易原典講義	春秋左傳	中庸講義
매주 (수) ● 오전11-1시 ● 오후 7-9시	5월 2일(월) 개강 ● 매주(월) 오후 7-9시	5월 4일(수) 개강 ● 매주(수) 오후 3-5시

(사)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02)2237-8970 ◆ 수강료 : 월 6만원
6호선 동묘역 2번출구 / 1호선 동대문역 4번출구

비구니 모십니다
(40세 미만의 사찰운영자신있는 분)
▷충북 영동
사무장 011-493-7428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안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전국 제일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학력,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 배출기관
● 최첨단 시설
▶ 행자 (에비스님 남 · 녀)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 – 45세미만,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 – 직접 강의 ('저거는 멘날 고기묵고'의 저자)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문의전화 : 053)474-8228 011-9852-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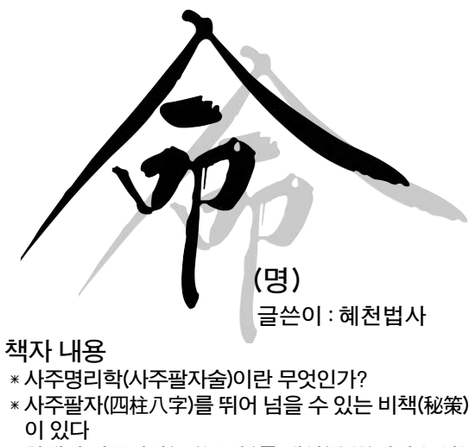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동울산사암연합회
원 로 원각사 월타
고 문 법륜사 눌암
회 장 대원사 동파
사무총장 대각사 초우
관음사 현 수
관음사 혜 원
자광사 향 공
정각사 해 승
동축사 문 성
등용사 본 명
반야사 노 암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동구 대송동 대원사내
전화:052)233-7176,281-0134

달마도 신묘장구대다라니
혜공스님이 달마도 범서 천수대비주 보급서원을 세웠습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삼가 소승이 법과 지혜의 상징화인 달마도에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천수대비주)를 경면주사로 써 범서(불교성전어닌 범어 sanskit)로 사경해서 국내외 최초로 접목하였습니다. 천수대비주는 옛선지식들은 물론 오늘날 까지도 승속을 막론하고 공부하는 상승의 수행주력문인 것입니다.
대다라니를 일심으로 정진 주력하면 묵은 업장이 소멸되고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충만해지며 호법 신장님들이 항상 보호하고 마침내는 견성성불의 길로 나아가게됩니다. 현재 대다라니를 주력하시고 계신분이나 앞으로 하실 승속의 수행자들 께서는 달마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사암이나 집에 걸어 모시고 정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달마도를 모시고 대비주를 정진하시면 모든 악운 액운 병재난은 서서히 물러나고 심중소원을 성취케 됩니다. 특히 속가에서는 불단이 없이도 초향하지 않고도 달마도 대비주 액자만 모시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체중생유정무정이 다 성불하여지이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달마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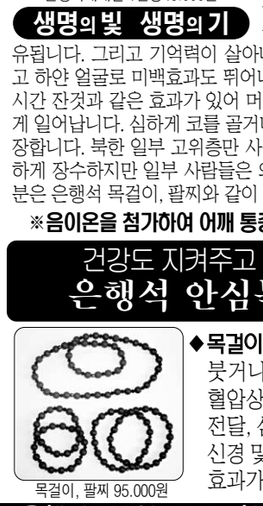
● 규격 : 46cm × 65cm ● 작품가격 : 13만원
달마도 신묘장구대다라니 액자 5개이상 주문하시는 분께는 만화기법 펜화 달마도 소액자 1개씩 보내드립니다.
● 계좌번호 : 우체국 104232-074008 (예금주 : 윤기중)
● 주문전화 : 011-9205-1149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3동 88-13호
송림사 주지 혜공 합장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 만화작가 윤호)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은행석배개볼 1인용45.000원
생명의빛 생명의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95.000원
◆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 25평
- 요사 : 90평
- 부지 : 672평
- 가액 : 4억

- 위치 : 전북 전주
- 법당 : 30평
- 요사 : 45평
- 부지 : 440평
- 가액 : 3억3천

- 위치 : 서울 강북
- 규모 : 100평
- 4층건물 4층
- 신규시설 요함
- 임대료 : 6000/80만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02)998-1994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11)713-5634

사찰안내

1. 서울 산속 계곡물 콸콸 200평-3억
2. 1000평 절경 6억 3. 200평-1억5천
4. 원주 1000평-2억
5. 양평 700평-3억
6. 판교 산속 대지 160평-2억5천
7. 여주 4만5천평 터-1억5천

※ 사찰많음.공양주 부전스님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동
- 평수 : 4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600만원
- 교통편리 몸만 오시면 됨

018-541-1890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 평수: 대지 100평 건물: 18평
- 창고, 암자로 구조변경가능 편리한 시설, 전망최고 관광개발지
- 가액: 8500만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2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시설비2500만원

011-253-7729

포교당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31)826-0376

사찰안내

- 위치: 김천IC 15분거리
- 부지 900평, 건물: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70평(1,2층)
- 특징: 백두대간, 청정지역, 계곡이흐르고 지장기도 영험도량
- 가액: 답사후 절충

054)431-3321
011-591-9339

사찰, 수련원 (급) 안내

- 위치:경남 산청, 지리산 해발 700고지
- 대지: 900여평, 임야 15000평
- 법당, 현대식 방사 , 황토집 등 4개 동 바위와 소나무, 계곡의 명당
- 가액 : 2억7천
- 사실 의향이 있으신분만 전화 요망

010-6398-5730
011-9136-131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가액 : 4억(융자가능)
- 산밑이며 주차시설 좋음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12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양도가 : 7억(융자가능)
※ 신도시 교통의 요지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터 안내

- 위치: 강원도 춘천 소양댐 근교
- 450평 평당 25만원 330평 평당 35만원

011-9796-7599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 단독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절충) 답사후결정
- 주변 환경 좋음, 교통편리 기도최적지

02)352-9810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천역사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2층 30평
- 법당1개,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 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목조각 완벽함.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주차 80% 주인직거래
- 비구니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

011-650-8481
032)667-8485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 구조: 대웅전 및 부속건물 58평
- 가액: 1억1000만원 (비구니스님 적합)

011-9405-8186
043)733-8186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 근처
- 부지: 233평 ●가액: 상담후결정

※ 사정상 급 양도

011-742-5925 / 043)644-1666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봉화산(원주 IC에서 5분거리)
- 총평수 : 1300평(800평 종교부지)
- 대웅전 35평, 보궁 25평, 삼성각 5평, 미륵대불, 석가탑 요사채 50평(신축, 심야전기)
- 여법한 정법포교 청정도량, 전국 각지 불자님 중심 포교지
- 산세 수려한 등산로. 삼존불, 각단탱화, 집기일체 양도함

※ 즉비법회 가능. 스님 건강상 급매
※ 가액 : 6억 3천만원(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0-6213-5949 / 031)594-9416

포교당 안내

- 위치 : 용인시 도심포교 최적지
- 42평 건물 4층 옥상 사용가능
- 법당, 산신각, 방2개 주방, 거실, 욕실
- 보증금 : 4천만원.월10만원 시설비 : 답사

017-372-8968

포 교 당 안 내

- 부산 교대앞 대로변
- 건평: 30평 법당, 공양간, 접견실
- 가액: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비품: 1300만원
- 운세감정하시는분 환영

010-2690-343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버스정류소에서 50m)
- 대지: 약 2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특징: 숲울창, 고급
- 가액: 4억9천만원 (융자 1억3천만원)

016-651-1800
011-870-1463

포교원안내

- 법당: 31평, 요사: 방2개, 거실, 주방
- 특징: 1. 최신 시설로 장엄이 잘되었음
  2.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변이 상가와 패션문화거리로 포교 최적지임
  3. 동사무소 옆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20만원(관리비 없음) 사찰전문용역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010-7195-659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속초 ● 건평 : 60평
- 내부 - 황토방, 쑥뜸시설 완비 환자치료하는 스님에겐 최적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들어 오시면 됨.
- 가액 : 답사 후 결정

033)631-4831
011-790-4809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당진군 합덕읍
- 평수 : 330평(등기허가),170평(구구지) 합 500평, 건평 115평 (3채 중 1채는 단독 전세, 매매 가능) 법당 50평(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짐)
- 조건 정리 되었고 산세수려, 마당넓고 차진입 가능, 물-바위속으로 600자
- 전세 1억(넌비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양도 2억. 인연있는분 만나고싶습니다

041)363-4905
011-325-127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산청 지리산 소리방 마을
- 총면적 : 12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완비.
- 진입도로 완비
- 가액 : 절충가능

055)973-8745
011-223-805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내 돌게이트 인접
- 1,2층 찜질방 단식원 3층 요사채, 방5, 4층 법당 건평 250평, 대지 170평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

011-857-3775

사찰(불교대학)안내

- 위치: 인구 60만 (대구 달서구 소재)
- 건물: 3층(70평) 법당(30평) 방4개
- 특징: 8차선 대로변 지하철역 1분거리(편리한 교통)
- 가액: 보증금2천5백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후상의

011-699-912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 목조 12평
- 요사채 : 벽돌 25평
- 가액 : 8천5백만원

016-652-7547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 2층건물중 2층, 총 60평에 법당 30평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영가단 옥탑에 삼성각
- 앰프설치 요사채 30평 방4칸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에어컨시설(즉시법회 준비완료)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

010-7121-5885

계곡, 고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법화산 청정계곡, 야생차 밭13필,
- 대지 200평, 32평 허가필. 전, 답, 임 총 6700평
- 가액 : 대출 4천만원. 1억

011-9393-496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평수 : 200평
- 법당 20평(기와단청), 삼존불, 약사전, 신중단, 각단 후불탱화, 범종, 원불, 삼성각(5평기와), 요사채 20평, 방3칸, 입식부엌(정화조 유)
- 가액 : 상담후 결정

011-9870-420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군 소재지
- 대지 100평, 법당 18평, 요사 23평, 용왕당, 산신각, 국유림 200평
- 전자제품, 집기 일체 무료
- 가액 : 1억2천5백만원

010-6510-9494

포교원(철학)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2,5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중 2층, 평수: 25평
- 대로변 번화가 사거리에 위치 목좋음
- 모든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시설금 2천5백만원 월40만원

010-8527-874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 평수 : 2, 3층 각 3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3167-1774

포교당 안내

- 위치: 해운대 달맞이고개
- 평수: 30평
- 시설비 절충

011-560-5661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내
-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40평
- 가액: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135-8229
011-9638-8229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인구밀집지역
- 2층건물 중 2층.총 32평
- 법당 1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016-640-8133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상주
- 대지: 108평● 법당: 20평
- 요사채: 20평
- 앞, 뒤 버스정류장과 기차역으로 교통요충지
- 가액: 7천2백만원

054)533-1477

사찰 및 전원주택 터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매천동
- 산세 최고 밭 254평(시부지 약150평 사용가능)
- 가액: 평당 87만원

053)358-0832

사찰(급)안내

- 위치: 마산시 근교
- 대지: 600평
- 건물: 대웅전, 요사채 (토담 신축 고건축)
- 가액: 4억원(절충가능)
- 기타: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30-1808

암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노루실
- 대지: 465평
- 법당: 50평
- 요사채: 20평
- 가액: 9천만원

055)356-5322

토굴(터)안내

- 위치: 남원 지리산 산내
- 대지: 126평
- 토굴터 포장 완료 (종교부지 10년 넘은 두릅밭 400평 토종고사리밭 600평)
- 가액: 1700만원

011-615-210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60평
- 구조: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은행융자: 3천5백만원
- 가액: 1억9천5백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토굴,암자, 별장 안내

- 해발 900고지
- 위치: 가야산 해인사 산내 치인2구
- 아름다운 계곡(마당앞) 뒤는산 물을 콸콸
- 부지 450평, 건물 44평, 옛집 12평, 창고 20평 9평
- 부처님, 탱화, 주방일체, 엠프완비, 즉시법회
- 가액: 1억2천만원

055)931-8114

암자(급)안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20분거리)
- 앞 수려한 경관, 뒤 울창한 산림의 수행터. 자연식수물과 큰 물이 흐르는 오래된 암자.
- 법당 1동, 요사채 70평, 정각2동, 산신각, 용왕전, 용화전, 기타 목욕실 화장실 등 전체 2,530평에 국유지 3천여평 사용가능.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종교관계 없음.
- 전화상담 후 현지답사. 가격결정

011-9126-2266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정류장 근처
- 평수 75평 2층
-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시설 주차장 완비 좋은포교당입니다
- 가액: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1-308-422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건물(시설): 방2개, 주방(총 40평)
- 법당: 삼존불, 신중, 시왕 탱화 모셔져 있음
- 특징: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850만원 월 23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011-9850-294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전혀 오염되지 않은 계곡이 마당에 접해있는 팔공산에 명당 암자, 제2석굴암 부근 금년내 한티재 터널공사 착공예정
- 건물: 법당, 요사채, 용왕당, 정자, 등기 330평 실제사용 면적 500여평
- 가액: 5억5천만원

017-805-145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 험 사 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자수 대진 합장

회암사지 출토 유물 소유권 분쟁 쟁점

사찰 경내지 출토 유물의 소유권을 놓고 양주 회암사(주지 각원)와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출토 유물은 대개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인데다 소유권이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옛 회암사와 현 회암사 같은가

회암사 "청동발우 · 암막새 등 유물 27건 반환 요구"

문화재청 "소유권 주장 앞서 역사적 연속성 입증해야"

소송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암사 측이 문화재청과 양주시청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회암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물은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에 있는 맷돌, 괘불대, 돌계단 및 석축 등 지상 유물 4건과 '檜巖(회암)'이라 새겨진 청동발우, 각종 칠기류, 백자 등 출토유물 23건이다. 이들 유물은 현 회암사가 소유한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18 · 19 · 20번지에서 나온 것들이다. 즉 회암사는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해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출토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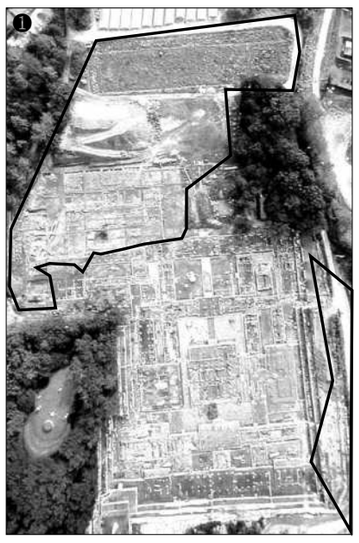
매장문화재는 모두 국가 소유

소송을 제기한 회암사는 회암사지 뒤편 천보산 자락에 위치하며, 회암사지 1만여 평 가운데 3천여 평을 비롯해 지역 일대 15만여 평의 산림과 지공 · 나옹 · 무학 스님의 부도 등 7점의 지정문화재를 소유 · 관리하는 조계종 사찰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회암사의 연속성' 여부다. '소송을 제기한 회암사'와 '절터만 남은 옛 회암사'가 과연 동일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회암사는 매장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46조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지금의 회암사와 옛 회암사의 연속성을 입증해야만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라고 전제한 뒤, "현 회암사가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옛 회암사와의 연속성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① 회암사지 전경. 굵은 실선내 지역이 회암사 소유지다. 회암사는 소유지에서 나온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회암사의 연속성을 문제삼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② 회암사 소유의 무학대사 부도(보물 제388호)와 석등(보물 제399호).
③ 회암사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하나인 3단지 출토 암막새.

회암사의 연속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암사지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지금의 회암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과 역사적으로 단절된 의혹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회암사지가 아닌 곳에 회암사가 재건됐다는 지적에 대해 회암사측은 동의하지 않는다. 현 회암사가 회암사지의 뒷산에 불과 500m 남짓한 거리를 두고 있어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암사지 발굴이 진전될수록 사역은 더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별개 지역으로 본다하더라도 회암사지 '중심'에 절을 재건할 수 없었던 역사적 상황은 감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조 38년(1605년) 회암사에 선왕의 어실을 조성하며 잡역을 면제시켰다가 사헌부의 반발을 산 일 △인조 4년(1626년) 회암사에 불사를 일으킨 항산군 이정이 파직된 일 등으로 미루어볼 때, 조선시대 억불책으로 인해 폐허가 된 회암사지에 회암사를 재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같은 억불책에도 불구하고 회암사지에 대한 회암사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돼왔다는 점은 회암사의 역사적 연속성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총독부의 토지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1911년 회암사지 일부와 배후 산림이 현 회암사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암사지 일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제일명당으로 꼽히던 회암사지 보광전 일대 부지를 대원군이 빼앗아 자신의 가묘를 설치한 때의 일이고 보면, 구한말까지만 해도 현 회암사는 회암사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해온 셈이다. 17세기 중엽 회암사가 전소된 이래 1827년경 지금의 회암사가 재건되기까지의 역사적 연속성을 입증해줄 자료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회암사가 유지돼왔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회암사측 입장이다.

그밖에도 회암사 측은 선교양종으로 정리된 조선시대 교종본산으로서 건재했으며 연속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봉선사가 회암사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해온 점과 서산대사 후손으로서 사자전승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법맥의 연속성 또한 회암사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강조하고 있다.

법맥으로 연속성 진단해야

회암사의 이번 소송을 돕고 있는 봉선사의 혜문 스님은 "사찰의 연속성은 구조물이 아닌 구성집단에서 찾아야 한다"며 "속가에서 호적이나 혈연이 연속성 판단의 기준이라면 불교에서는 사자전승을 통한 법맥이 그에 해당하는데, 이 같은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는다면 조계종의 존립 근간마저 흔들리고 말 것이다"며 "회암사의 연속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기존 유물과의 관련성이 명백한 경내지 출토 유물에 대해서도 소유관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다"며 "합리적인 판결이 나와 경내지 출토 유물을 일방적으로 국가귀속처리하는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은 현재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재판부가 양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7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청와대 석조여래좌상 균열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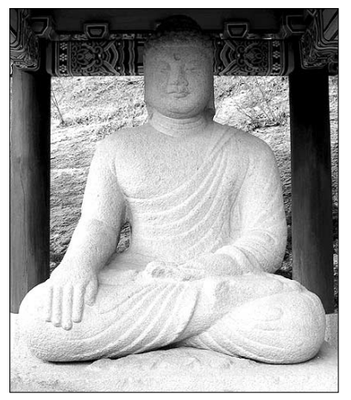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특별전 전시 힘들듯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의 훼손상태가 심각해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특별전 전시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띠고 있는 이 석조여래좌상은 김영삼 대통령 당시 폐기 의혹을 받으며 화제가 된 석불로, 지난해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보물급'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조계종의 대여 요청에 따라 이뤄진 최근 실사에서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은 "훼손상태가 심각해 보존처리가 시급하며 이운할 경우에 추가적인 파손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냈고, 이에 따라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특별전에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을 전시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시 문화재위원으로 실사에 참여한 동국대 문명대 교수는 이 석조여래좌상에 대해 "사실적인 양식을 반영한 석굴암 본존불 계열의 대표적인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경주남산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작"이라고 평가하며, "불상의 팔과 어깨, 등허리 부분에 파손상태가 심각해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있는 석조여래좌상. 팔과 어깨, 등허리 부위에 균열이 생겨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고려초조대장경집성 출간기념 봉정식

고려대장경硏, 5월 28일 여주 신륵사서

11세기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 대장경인 초조대장경 집성 및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 이하 대장경연구소)는 오는 5월 28일 <고려초조대장경집성> 4권 출간을 기념하는 봉정식과 학술세미나를 여주 신륵사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출간되는 초조대장경은 국내외 현존하는 2700여권의 초조대장경 가운데 학술조사를 거친 국내 120여권과 일본 난젠지(南禪寺)의 80여 권을 집성한 것으로, '한일공동 초조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및 영인 출판' 사업의 첫 성과다. 출간되는 4권에 해당하는 자료는 디지털 이미지로 가공돼 7월경에 인터넷으로 서비스된다.

이 같은 성과를 기념해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는 '초조대장경 디지털 DB구축 조사 연구'를 큰주제로 김성수 교수(청주대)의 '고려 초조대장경의 성립과 간행 배경 및 주제 서지적 연구과제', 남권희 교수(경북대)의 '초조대장경 조사 자료의 형태 서지적 분석' 등이 발표된다.

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은 "초조대장경집성은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대장경을 간행하는 것과 같다"며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면모를 그대로 간직한 초조대장경의 종교문화적 가치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02)923-7994

군위 인각사서 고려시대 목탑심초석 발굴



일연 스님이 주석하던 경북군위 인각사에서 고려시대 건물지와 목탑심초석(사진)이 확인됐다.

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성정)은 군위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인각사 극락전 부지를 발굴한 결과 정면 3칸, 측면 3칸 구조의 금당지를 지금의 극락전 90cm 아래 층위에서 발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극락전 주초석으로 사용된 석재 가운데 일부가 목탑 심초석이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지금까지 인각사 목탑에 관한 기록이 발견된 점은 없었으나, 목탑 심초석이 발견됨으로써 인각사에도 목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넘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제39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명상과 함께하는 여름불교학교

1. 일 시 : 불기2549년 6월 4일(토) 17:00 ~ 6일(월) 13:00 (2박 3일)
2. 장 소 : 속리산유스타운(충북 보은 소재)
3.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4.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 예상인원 : 500명 (선착순 마감)
6. 연수참가비

미리접수	당일접수	군종병 제주도, 울릉도	해외거주자
60,000	70,000	50,000	무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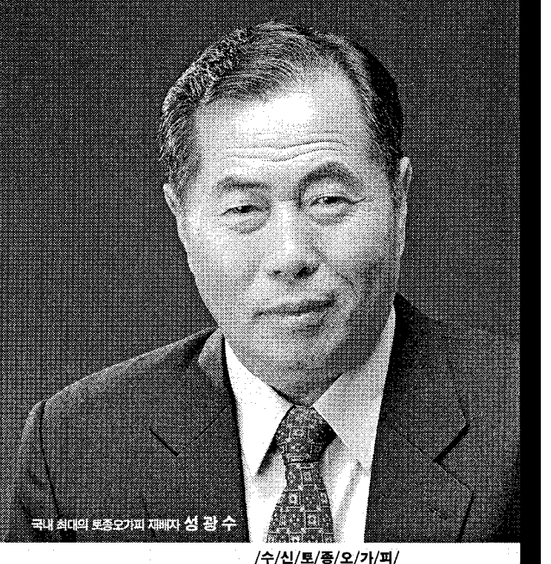
※입금하신 참가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재료비 포함가격)

7. 지 급 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 가방 외 / 8만원상당
8. 개인준비물 : 필기구, 간편복(여유복), 세면도구
9. 접수방법 www.dongja.org ☎ 051 · 864 · 4569 / 4570

강의	주 요 연 수 내 용	성명	비 고
강의1	우리는 왜 부처님을 믿나?	지광스님	· 서울 능인선원 주지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강의2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여름불교학교 및 컨설팅	강 낙 근 최 경 애 유 지 선 이 정 희 김 미 옥 김 광 호	· 부산여대 교수 · 불교환경연대 · 선재학교 교장 · 연산초등학교 교사 · 옥련유치원 원장 · 대한불교교사대학 부학장
강의3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여름불교학교의 실제	유 지 선 최 경 애 이 명 신 이 장 연 김 미 옥	· 선재학교 교장 · 불교환경연대 · 옥련유치원 원장, 동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강의4	수리수리마하수리 -마술의 세계	남 기 만	· (주)마술샘터 강사, 마술경력 5년 · 홍콩 및 롯데월드 공연
강의5	어린이법회에 응용할 수 있는 초기불교 수행법과 실제	각묵스님	·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강의6	어린이에게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오스님	· 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 선우도량 대표, 사천 구룡사 주지
강의7	즐거운 모닥불 놀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조 상 호	· 가창커뮤니케이션 대표
강의8	어린이 명상수련과 선체조	정여스님	· 금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여여선원 선원장 · 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강의9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찬불가	정 유 탁	· 풍경소리 · 여름불교학교에 활용할 찬불가
강의10	캠프율동	본 회 교 육 국	· 본회 교육국
강의11	이 시대 어린이 지도자로 나서는 우리들의 사명	설봉스님	· 청소년 전통문화수련원 무애원 원장 · 어린이지도자들의 사명과 자세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dongja.org TEL.(051)864-4569, 4570 FAX.(051)864-4665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수/신/토/종/오/가/피/ 예헌 禮獻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칠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 산삼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쁠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일 주 문



인도불교 유적지 사진전

김제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은 5월 5일부터 6월 말까지 미륵전에서 '태공월주 큰스님 인도불교유적지 순례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생명살림불사를 위한 즉문즉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5월 28일 오후 3시 광주 선덕사에서 '생명살림불사를 위한 즉문즉설' 법회를 연다.(062)263-4660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개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지현 스님은 6월 4~6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명상과 함께 하는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051)864-4569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장 현장 스님은 5월 26일 오전 11시 전남대 학생회관앞에서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갖는다.(062)234-6602



청소년직업체험 활동

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장 종실 스님은 5월 19~21일 고등학생 260여 명이 지역 기업체 40개소를 탐방하는 2005년도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재가는 하나' 주제 강연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회장은 5월 16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재가는 하나다'는 주제로 열린 공개 강연회에서 강연했다.



제2회 옥소예술제 개최

제천예술문화단체총연합 김연호 회장은 5월 20일 시민회관 앞 무대에서 '옥소의 꿈 능강에 살으리랏다' 주제의 제2회 옥소예술제를 개최했다.



정년기념 전시회

대구 동부경찰서 법우회 조상구 회장은 5월 28일~6월 4일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불화, 산수화 100여 점을 선보이는 정년기념전을 개최한다.(053) 951-5200

"최상의 서비스로 노인복지 모범 보일것"

춘천노인요양원 설립 마근 스님



"이번에 개원할 춘천요양원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역 노인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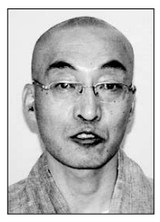
강원도 영서지역에 처음으로 춘천반야노인요양원을 건립한 신흥사 복지재단 이사장 마근 스님(사진). 스님은 "춘천 노인요양원이 복지정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의 노인들을 보호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가꿔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올 6월말 개원할 춘천요양원은 연면적 330평, 지하 1층 지상 2층에 오락실과 물리치료실을 갖춘 50인 수용 시설이다. 원장으로는 춘천 '퇴계 연꽃어린이집' 원장 청욱 스님(춘천 동덕사)이 내정된 상태. 여기에 사회복지사와 의사, 간호사, 생활지도사 등 20여명의 상주 직원도 이미 채용했다.

신흥사 복지재단을 이끌면서 속초반야노인요양원과 장사룸비니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마근 스님은 "앞으로도 재단 소유 대지를 이용해 불교 자비원력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강진 기자

"참선 수행 생활화에 도움되길"

'참선하며 놀자' 펴낸 현불 스님



"재가불자들에게 쉽게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참선 수행집 <참선하며 놀자>를 펴낸 현불 스님(양산 불광사 주지·사진). 태고종 스님으로는 드물게 참선 수행법을 발간한 스님은 "오랜 기간 수행을 하지 않았기에 책을 발간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선에 관심 있으면서도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다 쉽고 간편한 수련법을 제시하기 위해 큰마음을 냈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출판부가 발행한 <참선하며 놀자>는 1편 참선의 본질, 2편 마음의 실체, 3편 참선입문, 4편 참선의 완성, 5편 간화선과 위빠사나 비교, 6편 장애 극복법, 7편 토굴수행 지혜와 방편술, 8편 참선수행의 일상생활 활용등으로 기술돼 있다.

현불 스님은 현재 양산사암연합회 감사와 태고종 양산교구 총무국장을 맡고 있다.(02)382-5468

"동창회관 건립·동문화합에 최선"

동국대 총동창회장 재임 류주형씨



동국대 새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된 류주형(사진) 회장은 "동문들의 성원 속에 열린 이사회에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5월 17일 서울 장충동 소피텔 앰배서더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제67차 이사회를 열고 제23대 총동창회장으로 류주형 前회장을 재임시켰다. 이날 이사회에는 동창회 임원 1200여명 가운데 461명이 참석하는 등 근래 가장 높은 참석율을 보였으며, 류주형 동문과 김재기 한국씨름협회장이 입후보해 동창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현재 적립된 5억원의 발전기금을 바탕으로 총동창회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건립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는 류 회장은 "총동창회를 비롯한 동문들의 힘을 모아 동국대 100주년을 대학발전의 전기가 될

"동질성 회복에 도움 됐으면…"

'남북청소년이 함께 읽는…' 펴낸 김광하 대표



"남북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남북 청소년이 함께 읽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펴낸 작은손길 김광하 대표(사진)는 '불교문화에 기초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강조했다. 60여년 가까운 분단 상황이지만 그나마 남북청소년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문화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목동 양동중학교 학생들의 감상문을 편집해 첨부했다"며 "32편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탈북 청소년들이 부처님이 설파하신 '자비와 봉사'의 정신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도와야 한다"는 말했다. 유철주 기자

회당대종사 탄생 103주년 기념법회



회당 대종사 탄생 103주년 기념법회가 5월 10일 진각종 서울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봉행됐다. 교육원장 경정 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진각성존의 창종 정신을 가슴깊이 새겨 수행과 실천이 조화를 이룬 신행문화 형성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불국사 장애인 사랑나눔 건강걷기대회



경주 불국사(주지 종상)는 5월 14일 열린 제2회 사랑나눔 건강걷기대회를 후원했다. '꿈과 사랑으로 함께 하는 건강문화축제'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 참가한 1만여 시민과 장애인들은 경주실내체육관 앞을 출발, 5km 구간을 함께 걸었다. 주지 종상 스님은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위한 잔치 한마당



양산 천불사(주지 보원)는 5월 15일 지역주민,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신도 및 지역민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보원 스님은 "지역민들의 여가와 문화를 책임지는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2부 행사로는 외국인 노동자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청주 관음사 봉축 산사음악회 개최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는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5월 15일 경내에서 봉축기념 관음사 트롯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한혜진, 강민정 등 대중가수가 참석해 즐거운 무대를 만들었다. 관음사 합창단은 '남행열차'를 열창했고 어린이 불자 7명은 '7공주 춤'을 공연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논산 지장암 13회 경로잔치



법륜종 논산 지장암(주지 창법)은 4월 30일 논산 공주시 할머니 할아버지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경로잔치는 코미디언 백남봉씨의 사회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창법 스님은 "이웃의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대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산불교대 미술학과 불화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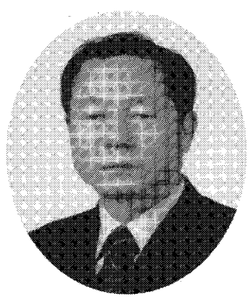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5월 18~24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제1회 동산불교대학 미술학과 불화전시회를 개최했다.

18일 열린 개막식에는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 붓다클럽 총재 안동일 변호사, 이수덕 전 BTN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 참가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익훈 교수의 지도 아래 1인당 2점씩 총 50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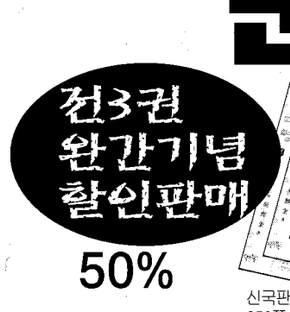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뜰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

교육시스템의 총체적 위기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관련 당국자는 이번에 바뀐 입시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평준화 이후 '인물'을 배출시키는 것보다 정형화된 보통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교육정책의 지표라고 믿고 있는가.

일선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보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쉬쉬거리면서 안으로 곪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덮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정성으로 인해 자녀들을 나약한 청소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학생들은 두발자유화 같은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의 '자유선언'을 우려하고 있는 어른들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있는가?

위의 질문들은 오늘날 한국의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념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안에 관하여 모두가 불만이다. 학부모도 불만이고, 당사자인 학생은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대학도 현재의 인재선발과 양성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기업체도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내보낸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그런 제도를 만든 교육당국자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관들은 조급증에 빠져 있다. 자기 임기 중에 탁월한 정책을 수립해서 위로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또 역사에 남는 일을 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너무 서두른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데 비판세력의 정책자료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았고, 새로운 정책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 있었다. 또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도 바뀌고 있다. 그러니 교육정책은 온탕냉탕이요, 뒤죽박죽이다.

지난 5월 6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외환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교육의 최고행정책임자도 현실의 위급함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연일 시끄럽다. 교육부의 내신등급제에 대한 일선교사와 학부모의 반발, 중고교학생의 두발규제에 대한 집회, 학업진행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학생이 금년 들어 20명이라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서울대 등의 논술고사 시행발표, 해외 조기유학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조 4800억원을 송금했으며, 조기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대학교육의 사회도구 부합정도'에서 한국은 60개국 중 52위였다는 보도 등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실패작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지식의 흡수만 강조하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으로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육까지 모든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또 막대한 사교육비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수십만 명의 학생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교육수준도 이런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난해하고 적응하기 힘들면서 공부를 한 학생의 질도 세계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자신의 수준에 걸맞게 대학을 결정하고 직장에 취업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1934년 '매일신보'에서 '석가여래상의 미남석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주남산에 있던 불상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뒤 총독부관저에 모셔진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인 총독부박물관에서 이 불상이 총독부 관저 안에서 비바람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 불상을 옮겨서 여러 가지 대형사건이 터진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 불상을 통해서 기독교장로 대통령에 대한 불교계의 불편한 심정이 표출된 것이다.

2005년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이 불상을 전시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이 불상의 어깨 부분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겨서 대여가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다시 불교계는 어떤 상황인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어느새 청와대 불상은 통치자와 불교계의 미묘한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인연을 따라 청와대에 모셔진 이 불상은 정치적인 상징성이 적지 않다. 조선시대에 구중심처, 그 가운데 임금의 침전에는 백성들이 계절별로 농사짓고 길쌈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인 경직도병풍(耕織圖屛風)이 설치되었다. 이는 임금님이 항상 드나들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잊지 말고 정치에 힘쓰라는 교훈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불상 역시 임금 침전의 경직도처럼 대통령이 불교계의 염원을 헤아리기를 바라는 상징이 된 것이다.

'미남 석불'의 수난

원래 이 불상은 경주 도지동에 있는 유덕사(有德寺)라는 절에 모셔진 것이다. 유덕사란 신라시대 태대각간(太大角干) 최유덕이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절이다. '매일신보'의 기사에서 '미남석불'로 칭한 이 불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때의 이상적인 형상과 조화로운 비례를 갖춘 조각이다. 지금은 서울시유형문화재 제24호지만, 보물로 승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명품인 것이다.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보니, 이 불상은 보호각에 안전하게 모셔져 있다. 다만 자연풍화로 인하여 어깨에 금이 가고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고 한다. 더 이상 손상이 없도록 보존처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불상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면서 불교계의 염원이 담긴 상징이기 때문이다.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노인 자살

"만일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거든 부모를 잘 섬길지니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대집경〉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연령대의 노인 10만 명당 71명꼴인 셈이다.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2000년과 2003년 사이 10만 명당 26명에서 7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노인 자살률이 급속도로 증가한 원인으로 '전통 가치관의 붕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은 자녀들이 당연히 부양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인부양의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또한 아직 바닥 수준이다. 자녀부양에서 국가부양으로 옮겨가는 사이에서 한국 노인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어느 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우화에 '홀스또메르'라는 말이 나온다. 홀스또메르는 젊은 시절 경마에서 우승을 하는 등 한 때 잘나갔지만, 얼룩빼기인 데다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젊은 말에게 조롱과 폭행을 당한다. 그러자 이렇게 말한다.

"늙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제껏 누구에게도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늙고 병들고 불구자가 된 것이 내 허물은 아니잖나?"

부처님오신날, 가정의 달인 5월. 홀스또메르의 외침이 불현듯 떠오른다.

■남동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봉축 프로그램 다양해졌지만….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프로그램을 시청한 결과 예년에 비해 양 · 질적 수준이 괄목하리만큼 좋아졌다. 방송 편성도 부처님오신날 당일이 아닌 1주일 내내 균형있게 이어졌다. 또 그동안 타종교 기념일에 비해 생색내기식의 초라한 편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봉축 프로그램도 감칠맛을 더했다고 평가된다. 이는 세계적 흐름인 불교와 수행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불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 방송사들의 불교적 주제를 담은 프로그램 발굴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어느해 보다 풍성하면서도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많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삶과 생활 속에 녹아든 불교의 모습이 아닌 고행과 산중이라는 틀에서 불교를 묶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봉축 프로그램을 단지 '수행'이라는 한정된 범위 속에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불교를 알리는 불교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찬이(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어처구니없는 '미륵' 사이트

서방에서 온 미륵(www.maitreya.co.kr)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가. 처음에 우연히 이 사이트를 발견하고는 불교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정말 그 황당함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 사이트는 서방의 미륵이라면서 '라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지구 위의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외계인(엘로힘)을 만나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데 문제는 이들이 불교의 미륵부처를 차용한다는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는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 '마이트레야 라엘'은 모든 불교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서방의 '미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엘을 소개하면서 불경도 끊임없이 인용했다. <아함경>에서부터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모든 예언이 들어 있다는 것. 물론 이런 류의 활동들에 대해서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륵부처가 구원불이라는 개념을 지니다보니 '미륵'이 불교와 관련없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던 "도를 아십니까?" 부류도 자신들의 종교 교주가 미륵임을 강조했던 적이 있었다.

불교의 구원불인 미륵부처님과 관련된 사상 · 교리는 불자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않게 미륵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불교를 모르는 이들은 당연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윤성희(서울시 양서구 목동)

어르신 포교에도 관심을

최근 한 일간지의 기사를 보다가 '종교'와 '행복한 노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다룬 부분을 읽었다. 그에 따르면 초고령 어르신들 가운데 신자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르신에게 종교는 임박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계속 느끼고 발견하면서 각종 상실감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심리적 · 사회적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처럼 종교가 어르신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면 종교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포교도 중요할 것 같다. 고통받고 소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중의 하나가 호스피스와 간병도우미들이 아닐까 싶다.

종교를 가진 어르신들이 행복하다면 어르신의 마지막을 살필 수 있는 호스피스들 역시 불자들이 많이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교계에서 좀더 어르신들과 호스피스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권현석(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 부처님 진신사리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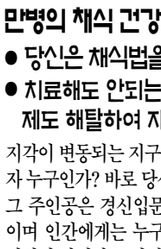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옴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대도진법은 말과 글에 붙어있지 않고 마음자리에 가려진 자성 찾는 경신도통 대법회

지구촌 지각이 변동되어 물과 불과 이름모를 각종 질병과 재질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

견성도통의 근본은 태식배꼽에 있고, 대자연과 산천초목 만물에 일체의 생명과 운명과 건강은 태양에 있으며, 부귀공명과 수명장수법은 마음자리에 가려진 배안에 검게 붙은 저승사자와 삼시구충을 몰아내어 건강찾고 큰부자되는 경신 도통 대 법회



선천법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했고 후천미륵 달마도법으로시작되는 2005년 (양)6월4일이 자시와 5일 오시에 경신일이 들어 지구촌 모든 종교문화가 바뀌는 종교시대에 미륵달마진법으로 천문도법인 초능력 도통비법을 경신입문한 공덕으로 평상시 수년을 수행한 공덕보다 큰 힘을 얻는 이법회에 그대를 초대하오며 동참한 이들에게 특별 돈부 달마를 드리오니 건강하시옵고 큰부자 되소서.

경신이 돌아오는 것은 60일,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기도수행으로 수마, 병마, 색마를 이긴 자리인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정진법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여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천안통만 잘하면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 이룬 恨을 풀어줄 수있는 기도중의 기도가 경신기도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 신비의 기도가 경신 수행인 것이고, 사람, 인간,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고 자신의 운명과 생명을 개척하는 최대의 운명을 바꾸는 수행법이 경신인 것이다.

만병의 채식 건강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채식법을 아십니까? ● 채식법 전강함
● 치료해도 안되는 모든병, 잡신의 병에 빙의 된 것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경신 수행법

지각이 변동되는 지구촌 개벽시대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중생을 구할 자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 주인공인 것이다.
그 주인공은 경신입문하여 진광의 빛으로 인가 받은 당신이 주인공이며 인간에게는 누구나 삼시구충이 있어 육신에 병을 만드는 것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진태양법으로 삼시구충을 제도하므로 모든 종교법이 육경신 도통회로 모아지는 것임을 명심할 지어다. 이 법으로써 도를 통하여 중생도 구하고 각종 종교의 종주도 되는 것이며 중생도 제도하는 것이다. 말법시대에는 너나 없이 도인 아님이 없으며, 말과 글과 입으로 통한 자와 알지 못하고 스승인냥 도인인척 하는 자는 하늘의 도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경신도통으로 육신에 병, 정신에 병, 잡신에 병, 마음에 병을 제도하여 영가해탈법을 득도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창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군자로 승화하오니 새로운 천문도법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신도통과 대도진광 진법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방법이며 도술, 의술, 침술, 점술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고 참선, 요가, 단전, 명상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채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고 을유년 6월 5일이 망중일에 경신이 들어 이름모를 괴질과 각종 병으로 잡신의 병에 빙의 되어 고생하시는 해이므로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배속에 검은똥은 악령의 저승사자인 고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저능하로 빙의 되어 각종 세포를 망가트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건강찾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도통하시어 큰 부자 되소서.

특별 일생대운, 건강, 운명 상담 ☎ 02)821-7767

● 입제 : 양력 2005년 6월 4일 토요일 음. 4. 28 (해시)
● 해제 : 양력 2005년 6월 5일 일요일 음. 4. 29 (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5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 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지혜의 샘’ 현대불교를 이웃에게

인 터 뷰 **법보시 신문발송 자원봉사자 변복희 · 김영자 보살**

“군법당 포교현장에 가보면요, 아직 맨 바닥에 자리 깔고 포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대불교가 그렇게 포교하는 현장에서 더 빛을 발하도록 도와야지요.”

전법현장에서의 ‘현대불교신문 효용론’을 이야기하는 변복희(50) · 김영자(64) 보살. 몇 해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신문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법보시 신문 발송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매달 빠짐없이 참석하

“ 포교현장서 더 빛나요 ”

다보니 봉투 끝에 풀을 붙이고 여미는 손길이 이제 전문가 수준이다. 그런데도 변보살과 김보살은 “한 것이 없어 부끄럽다”며 카메라를 향해 쑥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보살들이 ‘군법당’ 말이 나오자 말문이 터지기 시작한다.

“열악한 프로그램과 재정 수준으로 군법당에서 포교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인터넷 세상인데 불교계가 좀 더 많이 개발하고 노력해야죠.”



매달 한 번씩 현대불교 법보시 신문 발송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변복희(사진 왼쪽) · 김영자 보살. 두 보살은 현대불교가 포교현장에서 언제나 빛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불교는 변보살에게 마음에 드는 신문이다.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충실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거기에 김보살도 한마디 거든다.

“군부대나 교도소 등에 계신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질만한 신행적인 내용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읽기에도 부담 없다고 하구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현대불교 법보시는 물론 알리기에도 앞장서겠다는 두 보살은 “법보시 하는 신문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었어면 한다”며 “많은 불자들의 법보시 후원도 늘었으면 한다”는 말도 잊지 않고 전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2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212부의 신문이 군장병, 교도소 수형자, 군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5만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을 통해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1구좌 이상 전화로 신청

■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2(직통), (02)2004-8200(대표), 팩스(02)737-0697

● 매주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2005년 5월 25일 현재

구분	발송처	보시	부수
경찰	경찰병원	2	6
	경찰청 · 경찰서	185	189
교화기관	감별소	5	15
	교도소	36	198
	교정청	2	6
	구치소	9	43
	감호소	3	18
	소년원	12	36
군부대	국군병원	16	18
	군법당	354	405
복지단체	기업 · 복지관 · 재단 등	160	184
기타	대학교	36	36
	일반병원	3	45
기타	기타	11	13
합계		834	1212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강대덕행 강덕순 강도분 강명옥 강명자 강순희 강영내 강영신 강인자 강점숙 강춘계 강황진 경연혜 계미영 고경옥 고동환 고은영 고재흥 고준영 고필선 공덕화 공정심 공평근 곽동희 곽명순 곽성순 곽우진 곽은아 곽중경 곽춘자 광명선원신도회 구길자 구명보 구수연 구필회 국인호 권경숙 권구현 권대성 권두상 권명아 권미경 권순남 권오응 권윤진 권진희 김갑순 김강산 김강웅 김건용 김경수 김경애 김경옥 김경재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규순 김규정 김금옥 김금천 김기성 김기춘 김기홍 김나령 김남규 김다래 김덕임 김동자 김동찬 김명란 김명란 김명숙 김무재 김문자 김미래 김미연 김미진 김병일 김병희 김복영 김봉란 김봉애 김비연 김상 김상호 김석자 김선남 김선아 김선영 김선행 김선화 김성순 김수옥 김수정 김수현 김숙자 김순금 김순련 김순복 김순분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재 김승호 김애숙 김애자 김여경 김연수 김연수 김염순 김영삼 김영선 김영수 김영식 김영애 김영예 김영옥 김영자 김영출 김옥남 김옥선 김옥순 김옥정 김용숙 김용순 김용재 김용호 김우전 김원수 김원용 김월순 김윤관 김윤자 김은식 김의식 김인태 김재갑 김재방 김정규 김정덕 김정렬 김정숙 김정애 김정옥 김정원 김정환 김정희 김주현 김준형 김중철 김지숙 김지영 김지혜 김진근 김진선 김진영 김춘희 김태곤 김태수 김태순 김태영 김태형 김택곤 김학근 김학수 김향숙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김현화 김형운 김형태 김혜옥 김홍조 김화남 김화일 김효래 김효례 김효상 김희숙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나숙희 나순옥 남광 남국석 남선자 남여원 남유선 남종진 남주희 남현우 노성일 노성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노윤택 단영숙 덕장스님 도미라 도태순 류동연 류송우 류정오 류지형 류해창 마정혜 마진호 맥현기 맹남균 문경숙 문두상 문상철 문숙희 문순조 문영희 문의성 문재근 문정희 민경애 민성곤 민정원 민진옥 박경국 박경수 박경옥 박경자 박경환 박경희 박공임 박기숙 박기순 박남순 박노운 박동호 박말이야 박명란 박명자 박명희 박무주행 박미자 박봉기 박봉순 박상기 박상돈 박상섭 박선애 박성례 박성수 박수영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신영 박양주 박연숙 박연신 박영준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용무 박용배 박용옥 박용진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인선 박장미 박재석 박재윤 박정노 박정상 박정숙 박정순 박정옥 박정자 박정희 박종수 박종임 박주찬 박주호 박지연 박진우 박징자 박찬 박천혜 박철홍 박청길 박춘미 박춘봉 박태 박태균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순 박현주 박형숙 박형채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화재 박희순 방명극 방명섭 방미애 방순자 방장수 배민화 배춘자 배태열 배현옥 백규현 백영묵 백종희 백혜원 변영희 변용태 봉창욱 봉철웅 봉현주 상현스님 서경자 서덕교 서미옥 서병학 서송자 서승수 서영주 서영혜 서예숙 서울월곡청소년 서원석 서윤이 서의숙 서재영 서정우 서청자 서춘건 서희숙 석영수 선덕스님 선현자 성경순 성동제 성재영 손대상 손문철 손순옥 손영선 손영실 송길순 송동호 송현희 송용관 송은경 송인옥 송재업 송재윤 송정구 송종화 송필재 송희경 신남선 신동호 신상균 신수영 신영찬 신용례 신윤기 신재철 신정규 신조현 신주호 신진임 신진희 신창순 신현순 신혜경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숙희 심영애 심원식 심현보 안광기 안국선원 안병윤 안은희 양세욱 양순조 양연숙 양연희 양영모 양익수 양재호 양준원 양태환 양흥용 엄흥수 여상배 연규혜 염흥수 오경환 오광자 오미덕 오병덕 오병희 오상숙 오승훈 오신재 오영남 오원중 오정애 오지은 오창규 오창희 오학규 오현규 오현자 오현희 오형만 옥영식 우동렬 우병선 우암스님 우지예 우춘자 원판영 위영란 위주환 유경자 유금열 유보향 유영미 유영신 유종욱 유지호 유진옥 육성희 윤기석 윤기암 윤기원 윤기홍 윤대수 윤병덕 윤병창 윤본숙 윤상현 윤석완 윤선영 윤여형 윤영숙 윤오인 윤웅상 윤정연 윤정일 윤제학 윤종기 윤종숙 윤지웅 윤지은 윤지응 윤채남 윤춘매 윤춘희 윤현선 윤현숙 윤희원 윤병창 이강만 이강민 이강희 이건우 이건주 이경남 이경숙 이경애 이경영 이경원 이경자 이경주 이경춘 이광수 이광현 이광훈 이구자 이군자 이귀순 이규달 이규만 이근기 이근혜 이기오 이길순 이단식 이대섭 이대성 이동주 이동진 이두영 이름 이명규 이명숙 이명희 이미경 이미나 이미라 이병태 이보편 이복동 이복성 이복희 이산궁 이상옥 이상은 이상태 이서호 이석순 이성용 이수양 이숙경 이숙희 이순덕 이순복 이순자 이순화 이순희 이승윤 이승은 이승훈 이신정 이양희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영경 이영민 이영숙 이영순 이영자이영진 이영환 이영희 이옥순 이왕구 이왕진 이용법 이용재 이용진 이우순 이우진 이우환 이운화 이원상 이원애 이유순 이은구 이은숙 이은희 이익수 이재숙 이정순 이정안 이정옥 이정임 이정조 이정헌 이정희 이종섭 이종성 이종숙 이종옥 이준섭 이준재 이중기 이지영 이지현 이진선 이진순 이진순 이찬수 이창호 이청 이춘근 이춘자 이충선 이태인 이태희 이필회 이한희 이향우 이해 이해송 이향림 이형신 이형호 이혜숙 이화자 이훈노 이희숙 이희영 익명 일진성 임경희 임광기 임금지 임명옥 임선희 임영애 임옥빈 임용식 임용호 임정숙 임종구 임종미 임춘희 임형준 장기홍 장기환 장만태 장명호 장문규 장미숙 장성윤 장영남 장재원 장정 장정자 장정희 장해기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경희 전계영 전병수 전수남 전유신 전은희 정경남 정구순 정규열 정근희 정금란 정금자 정대자 정미련 정상만 정설매 정성남 정성종 정수자 정연경 정영수 정영신 정영희 정옥녀 정운경 정윤채 정응균 정인순 정인자 정자화 정차효 정창남 정창래 정필순 정하석 정호영 정회철 정효남 조경숙 조계희 조공옥 조권식 조근영 조명래 조명숙 조미란 조민규 조봉호 조영석 조영완 조옥순 조원희 조재규 조정해 조정희 조진한 조창희 조춘교 조현수 조혜숙 주경숙 주미숙 주정숙 주정옥 주정희 주희숙 지명구 지명숙 지혜선진동석 진말련 진수명 진영숙 차동호 차민영 차상환 채동석 채은훈 천병길 천상봉 천수해 청무스님 청암사 최경락 최경진 최병조 최복림 최복섬 최복순 최상철 최순옥 최영봉 최영숙 최옥자 최원주 최윤희 최은희 최인자 최정희 최종열 최종원 최준성 최준영 최태영 최태준 최학우 최행규 최현수 최형선 최희숙 탁순례 태순덕 하근수 하미경 하미희 하재한 하정희 하태선 한경자 한기영 한기준 한동원 한세진 한숙희 한애삼 한영덕 한윤경 한윤진 한은섭 한인식 한철화 한화윤 허경순 허미옥 허복영 허성국 허재승 허태영 허태환 현남순 현미숙 현석선 혜숙스님 호소희 홍경욱 홍경화 홍순 홍순아 홍영순 홍월자 홍학란 홍현하 황경숙 황경욱 황금영 황논철 황문현 황순수 황순심 황용숙 황의식 황인순 황인형 황태숙

한마음선원 강릉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공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본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신도회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신도회

(2005년 5월25일 현재 · 가나다 순)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탱화의 미적가치에서 각각의 의미까지 전달 **신비한 불화의 세계**



사찰에서 만나는 많은 종류의 탱화들, 그 안에는 다양한 불보살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명호들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비한 불화의 세계>는 부처님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상단탱화, 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중단탱화, 신중과 천왕 등을 형상화한 하단 탱화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류별로 선보여 우리를 불화의 세계로 한걸음 다가서게 합니다.
소개되는 불화들은 박정자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명장의 붓끝으로 살아난 부처님 형상의 장엄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박정자 지음 / 광진문화사 / 3만원 / 양장본 올 칼라 / 신국판

부처님을 친견하는 사불(寫佛) 수행

한국 최초 사불 교본 출간 !! 붓끝 하나하나에 환희심을 담는 사불수행!! 이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권】 249쪽/50,000원 【2권】 269쪽/55,000원 【3권】87쪽/20,000원 【4권】55쪽/15,000원

● 사불 교본 1,2,3,4 (책크기 : 4절 395 × 545mm)

1권 – 탱화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상단, 중단, 하단 독존도의 탱화초와 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상초를 그리고 채색할 수 있다.

2권 – 관음 32응신도와 42수관음, 천수천안관음의 출현, 53불을 매일 그리고 채색하여 예불할 수 있다.

3권 – 만다라와를 그리고 채색하여 초파일 연등에 붙이거나 법당이나 가정에서 실에 꿰어 부처님을 장엄할 수 있다.

4권 – 삼신불, 팔대보살, 시왕님을 그려보고 채색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지장재일에는 지장보살을, 관음재일에는 관세음보살을, 약사재일에는 약사여래를 그려 부처님 복장에 넣어 모시거나 법당 부처님 좌복에 모시고 기도하여 신심을 높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

사불수행이란 ?

조금은 생소한 수행법이지만 이미 고려시대부터 사경과 함께 널리 행하여 그 찬란한 빛을 발했으나 억불정책의 과정에서 맥이 끊어지고 지금은 사경활동만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불수행은 사경보다 쉬워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마음속의 부처님을 눈으로 확인하며 신심을 다져 가기 때문에 불자들의 신심을 마음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불이라는 또 다른 수행으로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들의 절마당에서 모든 불자님들이 천백억화신의 부처님을 사불하여 금수강산을 불국정토로 이루고자 발원하나이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만하 박정자 합장

주문전화 061)333-4472 (은행계좌에 입금 후 전화하시면 택배로 배달)
국민은행 073-01-0289-484 / 농협 637015-52-036279 예금주 박정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숨겨진 예술혼 발굴 외곬

전통문화계의 '홀로 아리랑'

박동국

(공연기획자)

향기 도반의

16년간 '전통예술' 한 주제로 공연 기획
스폰서 냉대 속 '명인명무전' 16년간 계속
신예 발굴·전용극장 설립에 힘찬 도전
국악인들 "업고 다녀야 할 사람" 한 목소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문화재의 무대를 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초야에 묻혀 몇몇 제자들에게 조심스레 자신의 혼을 전해온 예인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랬다.

박동국(동국예술기획 대표 · 48)씨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강선영 선생의 태평무를 화보로 배우고, 박송희 선생의 흥보가를 테이프로만 익혀야 했을지도 모른다. '전통문화계의 홀로 아리랑'이라 불리는 박씨는 서양문화에 밀려 대중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의 춤꾼 및 소리꾼을 위한 무대를 16년째 기획해오고 있다.

그는 후미진 지방에 사는 탓에 공연할 기회가 적었던 '끼가 넘치는 예인'들, 현세에 예술혼을 오롯이 전하지 못한 채 연로해 가는 '살아있는 문화재'들을 위해 '한국의 명인명무전(名人名舞展)'을 쉼없이 열어왔다. 우리나라 공연사에서 '전통예술'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10년이 넘는 정기 공연을 지속해 온 경우는 거의 없다. '돈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을 힘들게 열었고, 그 길을 16년째 소리없이 다져오고 있다.

"외면당한 채 죽어가는 전통문화를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소리와 춤은 7살 이후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없어 시작한 거에요. 그것이 이렇게 거창해질 줄은 몰랐지요."

그는 7살 무렵 고향인 전남 함평의 우시장에서 유랑극단의 창극을 우연히 접하면서 전통의 소리와 몸짓에 눈을 떴다. 무대세트는 허름했지만, 장구와 대금 그리고 아쟁으로 내던 효과음악이 어찌나 놀랍고 신기했던지 그는 창극에 완전히 매료됐다. 그리곤 그 낯선 문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주말이면 광주 시립 국악원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몇 십리 길을 걷고 뛰었다. 고등학교때는 독학으로 배운 대금의 질좋은 재료로 꼽히는 쌍골죽을 찾아 부산의 범어사 근처까지 오갈 정도였다.

"그렇게 전국을 누비며 예인들의 곰삭은 소리와 몸짓을 20여 년 접하다보니 조바심이 더욱더 커지더군요. 이 빛나는 멋과 흥을 담은 문화가 그대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살려낼 방도는 없는지 참말로 처절하게 고민했죠. 그러다 꾸리게 된 것이 '동국예술기획'입니다."

1989년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기획사 '동국예술기획'을 열게된 그는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리게 된다. 그간 필드에서 봐왔던 '명성보다는 춤사위가 뛰어난 지방의 예인들'을 섭외해 공연을 기획했다. 출연자 섭외는 물론이고 포스터 제작, 홍보까지 모두 혼자서 해결하는 1인 기획사였지만 신명나서 하는 일이라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렇게 준비한 첫 공연. 국립국악원 역사이래 처음으로 관객들이 줄을 서서 공연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문화예술계의 극찬이 이어졌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러나 성황리에 끝낸 첫 공연 이후에도 그는



줄곧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좌석이 꽉꽉 들어차더라도 표를 팔아 남긴 돈으로 출연료와 대관료를 비롯한 부대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미미한 탓에 연이은 공연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단체도 사람도 쉽게 따라붙지 못했다.

"클래식이나 외국 스타들의 공연에는 수천 만원, 수억 원씩 쏟아붓는 기업들이 우리 공연에는 단돈 100만원 내놓는 것도 아까워하더라고요. 당시 문화체육부에서조차 재정적인 지원은커녕 후원명칭 사용하는 것을 거절했었죠."

스폰서 하나 붙지 않는 공연을 강행하면서 없던 재산은 거덜 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해 300만원을 빌려 9000만원을 돌려줘야 했던 웃지 못할 기억도 있었다. 어렵사리 얻은 후원사도 말썽이었다. 94년 한 · 중 · 일 명인명무전 공연 때는 기업들이 후원하기로 했던 1억원이 미납되는 바람에 살고 있던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 공연을 취소할까도 생각했지만, 전통문화를 팔아 국제적인 사기꾼이 될 수는 없었다. 98년경 중국 베이징 공연을 앞두고는 중국측에서 구두로 합의한 약속을 깨는 바람에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는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재를 털고 빚을 감당하면서까지 명인명무전을 끌어가는 그를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한양대 법대를 뛰쳐나와 추계예술대 국악과에 몸을 담은 그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집안에 쟁이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예술을 한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공연 섭외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어려웠다. 예술을 날로 배운 새파랗게 어린놈이 무슨 무대를 기획하냐는 무시였다.

그러나 그 같은 무대가 한 해 두 해 이어지면서 차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후원업체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외로운 노력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매방, 박동진 선생 같은 원로 인간문화재들도 선뜻 섭외에 응할 만큼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다. 오랜 기간 같은 주제의 공연을 기획하면서 그가 발굴해낸 국악계의 숨은 진주들도 적지 않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 엄옥자 선생은 "박대표가 아니었더라면 내 춤은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외롭게 전승되던 솔로 춤사위인 통영 승전무는 양지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이런 면에서 판소리 대가들 역시 "박동국 대표를 업고 다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그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명인명무전과 함께 신예들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의 소리와 몸짓' 공연도 함께 올리기 시작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아시아권에 머물렀던 공연을 구미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LA(8월 27일 포드 원형극장)와 워싱턴 DC(8월 30일 조지 워싱턴대학 리스너 강당)에서 무대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통문화전용센터 건립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 5만여 평의 땅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650여석의 전통예술 전용극장을 비롯해, 전통의상 · 전통악기 박물관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마련이 소프트웨어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개국 10주년 불교TV 큰스님 초청특별법회

불교TV에서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봉행되는 개국 10주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기 간 : 5월 22일 ~ 7월 10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무상사 법당
문 의 : 02)3270-3300

5월 22일 도문스님 네팔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조실
5월 29일 혜초스님 태고종 종정
6월 5일 무진장스님 前 포교원장
6월 12일 고산스님 향계사 조실
6월 19일 성수스님 함양 황대선원 조실
6월 26일 정관스님 부산 영주암 회주
7월 3일 대원스님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7월 10일 정무스님 안성 석남사 주지

나의 수행법

김경종 (上)



위빠사나 수행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보리수선원장인 붓다락키타 스님을 어느 작은 암자에서 만난 이후부터였다. 스님은 그 곳에서 오온(五蘊: 色受想行識)에 대해 법문하고 계셨다. 당시 스님은 "오온은 무상(無常)한 것이고 무상은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무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불교의 가르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스님의 말. 나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 후로 난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수행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쉽게 말하면, 나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은 우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여름휴가 1주일간 집중수행 참가
두번째 해 '고요함' 경험뒤 자신감

우리는 항상 모든 현상에 대해 의미를 붙여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몸의 현상에 대하여도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함께 섞여 있으며, 마음의 현상에 대하여도 의미를 부여하고 좋은 생각은 붙잡으려 하고 싫은 생각은 배척하려는 습관이 있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현상이 단순하지 않고 뒤죽박죽이 돼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위와 같이 형성된 선입관에 뭐가 뭔지 모르고 끌려 다니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달리 해볼 방법도 없다.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 가르침인 위빠사나 수행법이라고 생각한다.

1999년 이후로 나는 위빠사나 수행법을 익히기 위해,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1주일간 보리수선원의 집중수행에 참가했다.

첫해 집중수행 때는 '어떻게 7일을 견디느냐'가 관심거리였다. 새벽 3시 30분의 예불부터 밤 10시 잠들 때까지 식사시간과 식후의 휴식시간을 합한 3시간을 제외하고는 '경행과 좌선'을 한 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수행 프로그램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문제였다.

또한 수행기간 내내 묵언을 해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내가 과연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극기 훈련을 잘 버틸 수 있을까' 난 이런 의문과 걱정을 내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위빠사나 수행을 극기 훈련 프로그램쯤으로 생각한 내 생각은 이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빠사나 수행은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다. 현재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때문에 당초 극기 훈련식의 인내체험 프로그램으로 여겼던 내 생각은 보기 좋게 어긋나 버렸다. 더욱이 저녁 시간에 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 다시 힘이 솟아 수행을 하게 했다.

첫해의 집중수행은 위빠사나 수행법을 익히는 정도로 끝났다.

이후 2000년의 집중수행은 처음 2~3일간은 현실의 온갖 잡념과 걱정거리 때문에 집중이 안돼 힘들었다. 그러다 넷째 날에는 울음이 나와서 울음을 감추느라고 코를 훌쩍거리면서 법당 구석에 가서 경행과 좌선을 했다. 다섯째 날에는 처음으로 고요함을 경험했다.

좌선을 하면서 배의 팽창과 수축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지면서 수행하는 나 혼자 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계속)

■ 법조인

천천히 깊고 가늘고 고르게

'호흡은 생명이다. 한번 들이마신 숨을 다시 내쉬지 않으면 생명은 끝이 난다.'

너무도 당연해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이 말이, 과연 깨달음을 추구하는 절 염불 독경 참선 등의 불교수행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멈춰보자. 금방 숨길이 끊기고, 숨통을 조이는 엄청난 괴로움이 닥쳐올 것이다.

호흡은 이처럼 수행자의 몸과 마음상태를 좌우한다. 거칠고 세밀한 호흡, 소리가 나거나 고른 호흡, 얕고 깊은 호흡, 가늘거나 굵은 호흡 등 숨쉬기에 따라 수행 정진은 물론 삶의 질까지 달라진다. 호흡법이 모든 수행에 기초가 되는 셈이다.

그럼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까? 호흡법에는 무엇이 있고, 올바른 호흡법과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수행의 기초 '호흡법'이 궁금해요

숨 잘못 쉬면 집중력 떨어지고 쉽게 피로
언제 어디서든 저절로 단전복식 호흡해야

#수행의 기초가 되는 까닭

무엇보다도 호흡이 신체의 올바른 자세 유지와 마음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경우, 호흡을 제대로 가다듬지 않고 곧바로 마음의 성찰로 들어가면 상기병(上氣病)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안반수의경>에서는 호흡이 수행의 기본이 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호흡이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 △생사의 휩쓸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열반의 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종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호흡이 모든 수행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수행자 스스로에게 생각의 기멸(起滅), 육신의 생멸,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헤아리게 한다"며 "이것이 삼독심을 그치게 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이 같이 중요한 호흡법은 참선, 독경, 사불 등 수행법의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참선 수행에서는 호흡법이 '몸의 자세를 바로 하는 것'(調身), '마음의 다툼'(調心)과 함께 핵심을 이룬다. 만약 호흡이 거칠거나 목으로만 얕고 짧게 쉬거나, 혹은 뭔가 막히고 걸린 것이 있는 듯 매끄럽지 않을 경우, 평정심이 깨지게 된다. 즉 정신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쉽게 피로해져 선정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사불 수행에서도 마찬가지다. 호흡의 길이, 크기, 깊이, 완급 등에 따라 사불수행의 진척도가 결정된다. 한국사불수행연구회장 법인 스님은 "붓으로 부처님의 상호를 직접 그려내는 사불수행이 그때 그때의 호흡상태에서 따라 수행결과에 현격히 차이를 초래한다"며 "'들숨은 깊게, 날숨은 길게'로 요약되는 호흡법이 사불수행의 핵심이 된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호흡과 그 방법

그럼 호흡을 올바르게 하는 법은 무엇일까?

최근 <숨 기차게 잘 쉬는 법>을 펴낸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은 "좋은 호흡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 때든, 즉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간에도 저절로 단전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라며 "수행자는 절 염불 참선 독경 등 모든 수행에 올바른 호흡법이 저절로 대입될 수 있도록 기초단계에서 필히 호흡수련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집중력 향상을 통해 선정력을 키우는 호흡법은 보통 수식관(數息觀), 수식관(隨息觀), 지식법(止息法)이 있다. 우선, 수식관(數息觀)은 1부터 10, 다시 1까지 들이쉬는 숨에 홀수, 내쉬는 숨에 짝수로 숫자를 세는 방법이다. 또 수식관은 코끝에서 아랫배까지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전 과정에 생각을 집중시켜 살펴보면서 마음과 호흡이 일치되게 하는 방법이고, 지식법은 숫자 세는 것이나 호흡을 따르는 것, 또는 코끝에 온 마음을 집중시켜 숨의 출입을 살피면서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제거하고 마침내는 숨쉬는 것이나 마음으로 헤아리는 모든 것들까지 멈추는 방법이다.

선도회 박영재 지도법사(서강대 교수)는 "수식관 등은 번뇌 망상을 보다 쉽게 쫓아내는 기초적인 호흡법"이라며 "향 1개가 타는 40분 동안 지속적으로 수식관을 하면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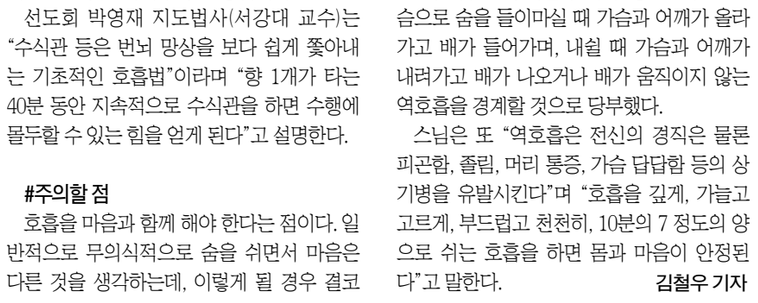
#주의할 점

호흡을 마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면서 마음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결코 공교한 호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호 스님은 이와 관련 "가장 바람직한 호흡법은 스스로 의식하지 않는 호흡을 하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역호흡'도 주의할 점이다. 청견 스님은 가슴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과 어깨가 올라가고 배가 들어가며, 내쉴 때 가슴과 어깨가 내려가고 배가 나오거나 배가 움직이지 않는 역호흡을 경계할 것으로 당부했다.

스님은 또 "역호흡은 전신의 경직은 물론 피곤함, 졸림, 머리 통증, 가슴 답답함 등의 상기병을 유발시킨다"며 "호흡을 깊게, 가늘고 고르게, 부드럽고 천천히, 10분의 7 정도의 양으로 쉬는 호흡을 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수행의 기틀은 호흡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된다. 사진은 서울 금강선원 신도들이 홍천 선문장에서 행선(行禪)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

조계종 중신회, 하안거 재가논강

'간화선 이해와 체험' 주제…매주 수·목요일 조계사서

26일 입제 3개월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5월 26일부터 3개월간 서울 조계사에서 '하안거 재가논강'을 개최한다. 입제식은 5월 26일 저녁7시. 최근 조계종 교육원이 발간한 <조계종 수행의 길-간화선>을 교재로 진행되는 이번 하안거 재가논강은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을 증명법사로,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을 법사로 진행된다.

'본래 부처를 찾아-간화선 이해와 체험'을 주제로 열리는 하안거 재가논강에서는 간화선 수행이론 공부와 실참실수를 선사들에게 직접 배우는 기회가 제공된다. 하안거 재가논강은 5월 26일 고우 스님이 '간화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주제법문으로 시작돼, 매주 수·목 저녁 7시에 강의와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12만원. (02)733-7277 김철우 기자

일시	법 사	주제
5월 26일(목)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6월 9일(목)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부처님께서 깨달은 중도와 연기
6월 22일(수)	〃	무아와 공과 선
7월 6일(수)	〃	정견과 육바라밀의 삶
7월 13일(수)	화랑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간화선 수행 체계의 이해
7월 20일(수)	고우 스님	화두란 무엇인가?
7월 27일(수)	진명 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좌선하는 법
8월 3일(수)	〃	생활 속의 화두 참구법, 실참단계1
8월 10일(수)	〃	간화선 실참 지도 및 질의응답, 실참단계 2
8월 17일(수)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간화선 공부인의 길
8월 27~28일		종합수련회

'2005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참가자 모집 공고

청소년 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인성개발과 공동체의식 및 자원봉사정신을 고취시키며,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구분

차수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인원 (선착순)	모집대상	활동내용	활동시간
1차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떠나는 "박물관 기행"	6월 12일 09:00~18:00	국립민속박물관	90명	청소년 및 지도자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보조	총 11시간 사전교육 2시간 민속박물관방문 9시간
2차	장애·비장애청소년 함께 떠나는 "갯벌생태체험"	9월 11일 09:00~17:00	오이도	80명	청소년 및 지도자	갯벌생태체험	총 8시간
3차	할머니 할아버지 효 실천 "손녀,손자 되는 날"	10월 22일 10:00~17:00	혜명양로원	155명	청소년 및 지도자	양로시설 위 문	총 7시간
4차	골수기증희망신청자 돕기 캠패인 "나눔의 기쁨을 함께"	11월 13일 09:00~17:00	소회의실 탑골공원 종묘 종묘공원 대학로	90명	청소년 및 지도자	헌혈·장기 골수기증운동 캠페인활동	총 8시간
5차	자원봉사 자료집 발간 및 시상식 "아름다운 선물"	11월 26일 11:00~17:00	동대문청소년 독서실	50명	청소년 및 지도자	자원봉사 우수 청소년 지도자 포상	총 6시간

◆ 접수기간 : 제1차 - 6월 1일 / 제2차 - 9월 1일
제3차 - 10월 21일 / 제4차 - 11월 3일
◆ 주 최 :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 후 원 : 서울특별시
◆ 접수및문의 :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110-13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 삼영빌딩 402호
TEL : 02)735-8165, 733-5138 / FAX : 02)722-6623
E-mail : yeba@chollian.net
◆ 2005년 청소년 자원봉사한마당 1차 ~ 4차까지 참가한 청소년 중 최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예정임.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목조건축물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서광사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방염제

목재 복원 시스템 (특허번호 특허 제 0476325호)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사찰부지안내

도심 속의 산사!!

● 최고의 사찰부지(포교당)
● 기존 건물은 포교당으로 즉시 사용 가능
● 도시 중심의 아파트 단지 내
● 50~100년된 수목 무성함
(인간 문화재의 저택임)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대지 630평
● 건물 108평
● 은행융자 4억 5천 있음
● 가액 : 13억원
● 주인 직접 거래

연락처 019-512-8696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⑤

- 서울 법수선원

간화선 수행의 핵심인 '화두'. 서울 법수선원은 화두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수행자 스스로가 품은 생로병사의 근본 의심을 화두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화두를 참구하지 않는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란 근원적인 의심만이 오롯이 수행자의 화두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와 인류를 구원할 근기 있는 '새끼 사자'를 키워야 한다는 조실 성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원력도 선원 가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스님은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자는 선수행을 간절히 해, 오도독 씹히는 불교의 참맛을 느껴야 한다"고 가르친다.



'나라와 인류를 구원할 근기 있는 새끼 사자를 기르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 스님의 원력이 녹아있는 법수선원. 재가선객들이 선원에서 참선정진을 하고 있다.

'생로병사의 근본' 화두로 정진

#'소수정예' 회원제로 운영

도심에서는 연등축제로 분주한 5월 8일 오전. 법수선원은 정진 열기로 뜨거웠다.

"참선수행을 통해 나를 깊이 참구해보겠다는 사람만 방부를 들입니다."

선원장 영주 스님은 단호했다. 30명 '소수정예' 회원제로 선원을 운영한다는 것, 한달에 참선 정진 8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은 가차 없이 퇴방 조치시킨다는 스님의 말에서 법수선원의 엄격한 수행가풍을 읽을 수 있었다.

선방 회원들도 이 같은 선원 청규에 이론을 달지 않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윤신효(59 · 용담) 씨는 "최소한의 정진 시간인 8시간은 깨달음을 위한 위대한 구속"이라며 "타율이 아닌 자율로써 참선수행의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법수선원이 이처럼 선방을 운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 1973년 성수 스님이 이곳에 선원을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고집스레 지켜온 청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선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만 입방을 허락한다'는 규칙. 이는 대중들이 주변의 장애 없이 자연스럽게 정진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법수선원만의 자발적인 수행풍토를 조성했다.

때문에 법수선원은 방부 들이는 조건이 까다롭다. 참선 유경험자들로 입방 자격을 제한한다. 특히 선원장 스님의 상담을 통해 지원자가 용맹정진을 하겠다는 신심을 확실히 냈는지 의심에 대한 분심이 일어났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최종적으로 방부를 부여한다.

#화두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법수선원의 수행 특징은 화두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일방적인 화두 제시가 오히려 수행자 자신에게 절실한 신심과 분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두를 주지 않는다. 대신 '죽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 즉 생사 그 자체가 화두가 된다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30년 넘게 수행해온 김희중(72 · 대비심) 씨가 자연의 무상(無常)함을 통해 화두를 들게 됐다는 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봄이 되면 푸른 잎이 돋고, 가을에는 낙엽이 돼 떨어지죠. 보잘 것 없는 풀도 마찬가지예요. 비바람에 짓밟혀도 어느새 봄이 되면 싹을 틔우죠.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놓인 풀이 방긋 웃으며 나를 보더군요. 그 순간 무릎을 딱 쳤죠. '미물인 풀도 생생하게 내게 무상을 일러주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죠. 그때 이후 지금까지 참선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나를 꾸짖으며 그것을 화두 삼아 정진하고 있어요."

이원호(71 · 보현성) 씨도 일상에서 얻은 경험에서 화두를 들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20년전 인가요. 버스를 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없어지고 버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죠. 버스에서 내려야 했는데, 내리질 못했죠. 내가 있고 버스가 있어야 내리죠. 순간, '여기가 극락이구나. 이것이 나고 죽지 않는 생명체구나' 생각했죠. 그 때 느낀 경험이 바로 제게 화두가 됐습니다."

선원은 이처럼 수행자가 일상사에서 직접 겪은 경험 하나하나를 상담을 통해 참구할 화두로 연결시켜준다. 의심 형성이 미비한 사람에게 특정 화두를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자발적으로 찾은 화두를 통해 올바른 마음공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일이 짚어준다.

#초심자 위해 '염불선' 프로그램 운영

법수선원은 올 3월부터 '염불선' 수행법을 정식 수행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다. 선수행 초심자를 위해 마련된 염불선 수행은 매달 한 번 불교기초교리 강좌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선원 신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 시민선원에서는 드물게 염불선 수행을 제안한 신도회 김상규(64 · 만산) 회장은 "일반신도들이 염불선 정근으로 수행의 맛을 보고 난 뒤, 부담 없이 선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염불선 수행을 도입하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선수행으로 연결시켜주려는 의도에서 염불선 수행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법수선원은 또 매달 음력 초하루 오전 11시에 선법회를 열고 있다. 성수 스님의 선법문,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선법회는 선원 신도들의 선수행 안목을 틔워주는 것은 물론, 공부점검의 장도 되고 있다. www.bssw.or.kr (02)3411-1139

글 · 사진=김철우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우곡선원, 참선교육

생활 참선 도량인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은 5월 30일부터 3주간 서울과 부산 선원에서 제27 · 28기 참선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서울 우곡선원은 5월 30일~6월 16일 매주 화, 목요일 8시부터 2시간 씩 진행되며 △실상관법 △좌선과 호흡 △좌선실수 △수행체계 요론 △우곡 선기공 △참선입문론 △선입문의 예(禮) 등을 주제로 장명화 선원장과 선원 법사단이 지도한다. (02)2055-3111~2.

또 부산 우곡선원의 참선교육은 5월 31일~6월 17일 매주 화, 금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씩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051)740-6288~9 www.zenkorea.org

금강선원 '임제록' 강의

서울 금강선원(원장 혜거)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원 대법당에서 중국 당나라 선승 임제의현의 법어집 <임제록(臨濟錄)>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선원장 혜거 스님이 직접 강연한다. (02)445-8484 www.geumgang.org

명상아카데미, 7차 캠프

명상아카데미(대표 혜봉)가 자연과 함께 하는 명상캠프를 7차에 걸쳐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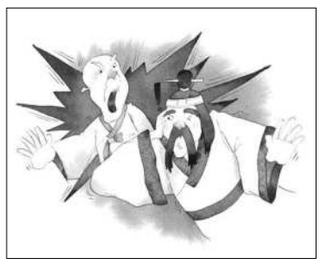
7월 8일~8월 23일 오대산 서울게스트하우스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4박 5일 프로그램으로 마련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바라보기 명상, 알아차리기 명상, 하나되기 명상, 지우기 명상, 참구하기 명상 등을 배울 수 있다. 각 차수별로 선착순 20명. 수련비 25만원. (02)598-7180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8> 황제를 두들겨 패다

중국역사에서 왕권과 교권은 협력관계인 동시에 긴장관계였다. 그런 까닭에 출가자가 왕에게 예의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늘 교단을 유지해야만 하는 선지식어른들의 화두이기도 했다. 고지식한 율사인 여산혜원 스님은 원칙론에 입각해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子論-사문은 설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된다)'을 저술하여 왕과 출가자의 관계를 이미 정립해 놓은 터이다. 인도에서는 종교인인 브라만 계급이 정치인인 크샤트리아 계급 위에 있으니 왕에게 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왕 위에 하늘 이외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황제를 '천자'라고 부르는 문화권이다. 따라서 출가자 역시 당연히 신하로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강요당해야 했다. 이 와중에서도 스님들은 불법에 의거하여 출가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왕권과 늘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신심있는 왕이 등장하면 바라문처럼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훼불내지는 법난을 당해 수도라 계급처럼 숨어서 지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선문답중 황제 될 사미 뺨 때린 황벽 선사
훗날 황제에게 '깡패스님' 시호 받을 뻔

염관선사 회상에서 황벽 스님이 공부할 때 일이다. 한 사미승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미는 당나라 훼불의 주역인 무종을 피해서 절로 도망쳐 온, 뒷날 선종황제가 될 인물이었다. 선사가 열심히 목탁을 치면서 예불을 지극정성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곁에서 보다가 한마디 거들었다. 제왕학을 어깨너머로 배웠고 또 게다가 절집풍월까지 이미 얻어들을 만큼 들은 처지였기 때문이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승(僧)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예불을 하십니까?"

아니! 이것 봐라. 머리에 삭도물도 안 마른 놈이 제법 질문을 할 줄 아네. 그렇다면…

"불에도 법에도 승에도 구하지 않고 늘 하는 예불을 하고 있을 뿐이니라."

사실 선문답은 여기서 끝났다.

사미가 알아듣고서 한소식 해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것이었다.

"예불은 해서 무엇합니까?"

그러자 황벽 스님은 할과 방이 필요한 순간인지라 그 사미승의 뺨을 한 대 후려쳤다.

각본대로 하면 '그 사미는 그 순간 깨쳤다' 하고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스님께서는 후학을 너무 거칠게 다루십니다." 이제부터는 피차 중생놀음으로 전락해 버렸다.

"얻어맞아도 싼 놈이 무슨 거칠게 다루니 마느니 할게 있느냐? (입은 살아가지고)" 그리고는 연거푸 두 대 더 때렸다. 도합 석 대였다.

뒷날 그 사미는 선종황제로 즉위하였고 황벽 선사 역시 한 산중의 방장이 되어 법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황제의 자격으로 선사에게 시호를 내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릴 때 절에서 지낸 인연으로 신심은 여전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 스님에게 얻은 맞은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추행사문(麁行沙門-정말 거칠었던 스님)'이라고 호를 지었다. 점잖게 표현한 '추행사문'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깡패스님'쯤 될 것이다. 그때 마침 재상인 배휴 거사가 이 교지를 받아들고서 깜짝 놀라 이렇게 간언하였다.

"세 차례 때린 것은 삼제(三際) 즉 삼세 동안의 번뇌를 끊어주려고 하신 자비행이오니 호를 단제(斷際)라고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사에게 얻어맞고서 업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말이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더니 배 정승의 안목쯤 되니까 이렇게 둘러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황제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한 까닭에 황벽 스님에게 '추행'이 아니라 '단제'라는 시호가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낄낄낄. 그러게 아무나 두들겨 패는게 아니라니까.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일즉다 다즉일(一法是一切法, 一切法是一法)

화엄은 세상이 더없이 완전하다는데

오늘은 <진역 화엄경소>의 서문, 그 두 번째 단락을 점검하겠습니다.

⑵ 이렇게 무장 무애한 법(法)이 법계법문의 술(術)이 되니 그곳은 제 보살이 드는 바요, 삼세 제불이 나오는 바이며, 이승(二乘) 사과(四果)가 귀먹고 눈멀어지는 곳이고, 범부 하사(下士)들의 멋모른 웃음거리가 되는 소이이다.

이 법문에 든 사람은 한 생각에 능히 무변 삼세를 나툴 수 있고, 시방세계를 온통한 티끌속에 넣을 수 있으리니, 이같은 도술을 어찌 가히 사의(思議)할 수 있겠는가.

⑵ 如是無障無礙之法, 乃作法界法門之術, 諸大菩薩之所入也, 三世諸佛之所出也, 二乘四果之聾盲, 凡夫下士之所笑驚. 若人得入是法門者, 卽能不過一念普現無邊三世, 復以十方世界 咸入一微塵內. 斯等道術豈可思議.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년전에 작고하신 김지견 선생님은 식사를 마치시고는 늘, "이제 좀 뭣이 보이네"라는 감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촌철의 진실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할 때와 빈털터리일 때, 우리가 느끼는 조바심과 행복지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느긋해 하는데, 이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지갑의 두께는 신체에 아무런 직접적 연관을 갖지 않지만, 그것이 심리적 포만감을 주고, 그것은 또 육체적 안정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삼계(三界)는 유식(唯識)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만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려 해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마음을 손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그것은 선가의 표현을 빌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법계로 들어서는 비결 또한 마음을 잘 먹는데 있습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것은 곧바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으로 이끌 것이니, 그때 문득 법계가 열리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법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물리적으로는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세상이라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사바도 되고, 또 법계도 되는 것입니다. 원효가 <대승기신론>의 요지를 설명하는 표종체(標宗體)의 첫머리에서 설파하는 것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대승(大乘)의 얼굴(體)은 만상의 거죽을 벗어나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 얼굴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효는 그래서 곧 "그러나 육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다"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대승 혹은 법계의 이 역설의 미묘(微妙)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같은 지구 위나, 정신적으로는 서로 다른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이 두 세계가 모순 없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이 오묘함에 불교 언설의 비밀이 있습니다.

육도, 인간들이 사는 서로 다른 세상 풍경

허니, 우리 모두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의 대가 스즈키는 <선의 입문>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차를 마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계같지만, 우리는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육도(六途), 여섯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짐승처럼 축생계에, 어떤 이는 늘 이빨을 드러내며 아수라에, 어떤 이는 늘 허기진 탐욕으로 아귀처럼, 어떤 이는 울고 웃는 인간세에, 어떤 이는 축복 속에 신선처럼 삽니다. 아, 제발 지옥에서 사는 것은 면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이 물리적 세계를 받아들일 것.'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지금 여기의 이 사바밖에는 없으니, 너는 네게 주어진 삶을 떠나려는 유혹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 2) 그 속에서 다만 우리의 정신적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시켜 나가자.



그런데, 그런데, 화엄은 이런 인간적 노력들을 일거에 헌신짝처럼 밟고 지나갑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파격적이냐 하면, "이승(二乘) 사과(四果)가 귀먹고 눈멀어지는 곳이고, 범부 하사(下士)들의 멋모른 웃음거리가 된다"고 적을 정도입니다. 화엄이 대체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느냐고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화엄은 지금까지의 불교와는 달리, "사바와 법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벗어나야할 사바도 없고, 들어서야할 법계도 달리 없다고 말합니다. 화엄은 모든 인간적 문제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흡사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을 끔벅거립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묻지 말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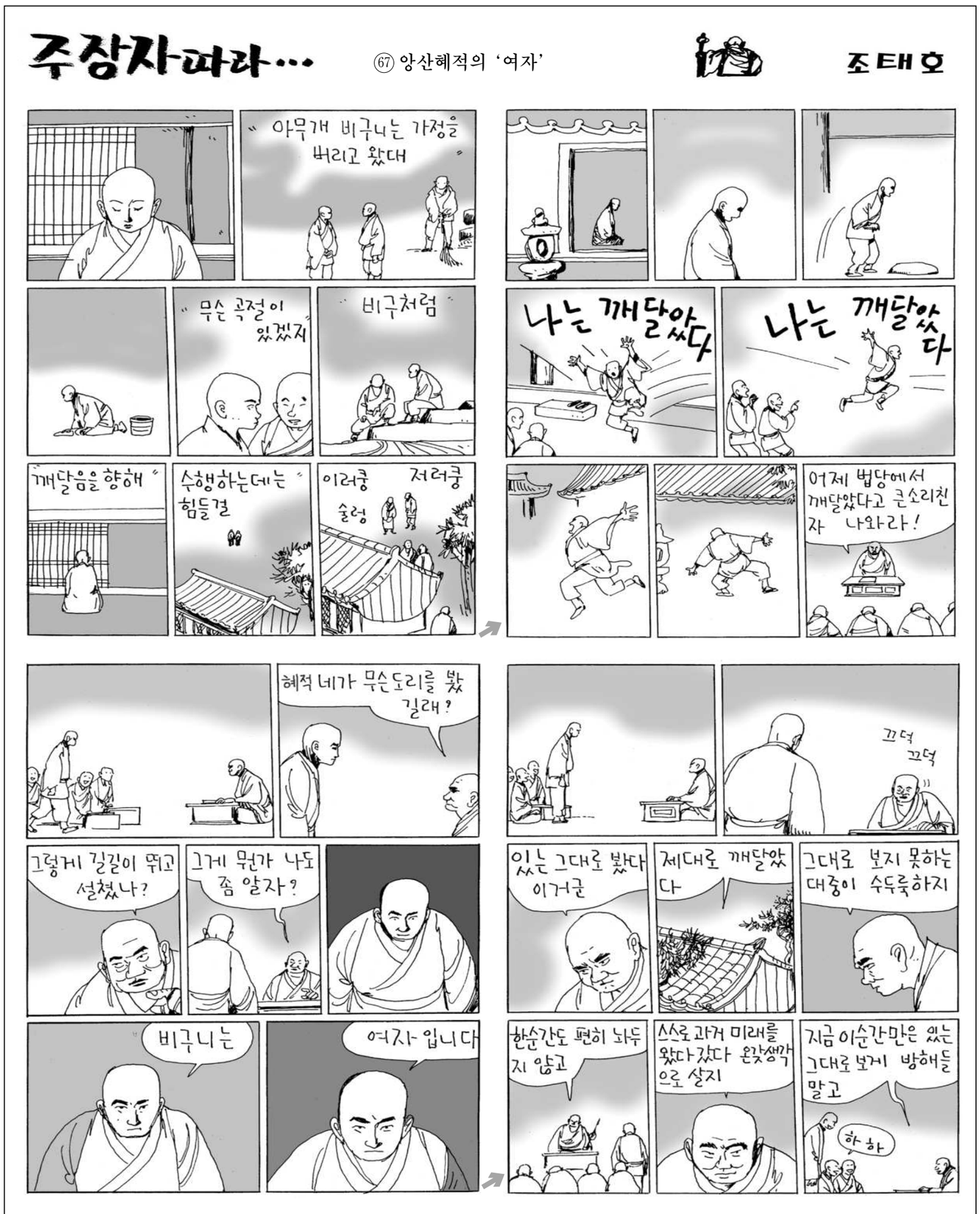
화엄의 취지를 좀 더 부연해 볼까요. 모든 '언설'이나 '교훈'은 좀 어려운 말로, '수행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지금 어느 한 군데가 불완전하며,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에게 "얘야, 밥 먹어라"라는 권유에서, T.V. 토론에서처럼 자기주장을 펼치는 마당, 나아가 지나간 과거를 읽고 해석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원리입니다. 최근의 독도문제와 정치권의 과거사 공방을 보면 그 점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양식은 다르지만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화엄은 이 모든 인간적 활동들을 웃어 넘깁니다. 화엄은 놀랍게도 "세상이 이미 완전하고, 우리가 이룰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엄은 과격하게도, 아무 것도 묻지 말고, 아무 것도 따지지 말고, 다만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네가 이 세상과 다투는 것을 그치면, 세상은 고요해 질 것이니, 그때 진정 세상이 이미, 우리가 손댈 필요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육조 혜능이 오랜 칩거를 마치고 나설 때, 어느 절에 두 스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하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맞서는데, 육조 스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들 마음이 흔들린 것일 뿐."

세상이 불완전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린 탓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온해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조차, 그 다시 없이 높은 아뇩다라삼막삼보리의 가르침조차, 평지에 일으킨 풍파 아니면 긁어 부스럼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발끈 주먹을 쥐고 흔듭니다. "그럼, 이 혼탁하고 불행한 세상을 그냥 두잔 말이냐." 이것은 불교를 향한 근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고대 조성택 교수님의 강의에 초대되었다가 어떤 학생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답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방의 선지식들은 이 화두에 무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앙산 혜적(仰山慧寂, 803~887): 당대 스님. 시호는 지통(智通). 소주 출신으로 17세때 출가해 무명지와 소지를 잘라 서원을 세우며 삭발함. 위산(潙山) 스님의 법을 이음.

네티즌 교리문답

보임(保任)이란 무엇입니까?

문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다, 깨닫고 나니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무엇이 있으랴' 하는 그런 말과 '깨닫고 난 뒤에라도 보임을 잘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에겐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궁금이)

답1 : 깨닫고 나서 보임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 건덕지가 없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깨달음이란 자성의 부와 자성의 자가 딱 상봉하여 계합하는 것입니다. 참나를 발견했다, 견성했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부자가 계합이 됐다 하는 것은 첫째 일체의 내 경계가 바로 거기서 나온 줄을, 거기로 드는 줄을 알았다는 것이고 둘째 나와 너, 주객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셋째 일체만법의 나투는 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쳐지기는 합쳐졌는데 싹이 났을 뿐 다 자란 게 아니라면, 즉 일체 경계가 다 내 탓인줄 투철히 알아 행 속에서 여여하지 않다면, 또는 둘 아닌 도리, 만법이 나투는 도리를 여실히 꿰뚫어 보지 못한 바가 아직도 있다면 더 닦을 바가 있다고 하겠지요. 그걸 보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여여하고, 찰나찰나 만법이 들고나며 자유자재한줄 알았다면 돈오돈수라 해도 맞겠지요. 공부하는 이에게 중요한 것은 돈오돈수가 맞다, 돈오점수가 맞다는 시비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이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이론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체를 항복받아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도리가 나올 때까지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불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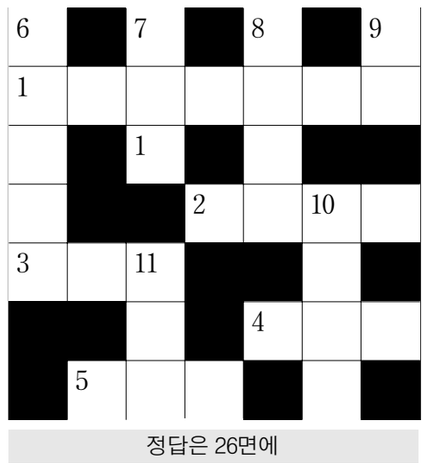
답2 : 이 보임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말해본다면, 깨달음이 완전하고 항상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키우거나 지킬 것도 없을 것이고, 지고의 진리를 증득하였으니 한 올의 삿됨이나 거리낌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살아가면서 온갖 세파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보임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시달리다 보면 보임이 왜 필요한지는 깨닫지 못하여도 저절로 알것 같군요.

결론적으로 보임은 깨닫기 전에는 향상사를 위해서 할 것이고, 깨닫고 나서는 향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1916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론을 확장하여 가속도를 가진 임의의 좌표계에서도 상대성이 성립하도록 체계화한 이론 2.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즐거움 3. 삼중주 또는 삼인조를 나타내는 외래어 4. '아무'보다 조금 홀대하게 쓰는 말로 김모씨의 표현, 김○○○씨, 5. 담석 때문에 담낭관이 막히고 거기에 세균이 감염되어 일어나는 질환.

세로 6.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 7. 사물을 사실대로 재현하지 않고 화가의 상상 등에 바탕을 둔 회화 8. 여성의 신체적 특질을 감안하여 근로 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 9.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언론 · 보도의 자유를 탄압하고, 외국자본의 배제와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함 10.더 없이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 11. 극단 '목화'를 창단한 연출가로 '천년의 수인' 등의 작품이 있음.



장욱진 화백의 '밤과 노인'.



사랑합니다 내게 하나뿐인 당신
김수환·한승원·최윤 외 지음
그림 장욱진
옹기장이 펴냄 | 1만8백원

'빛나는 가르침으로 당신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따라 미치도록 아프고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게 하나뿐인 당신!'

김수환 추기경, 연극인 손숙, 이윤택 국립극단 예술감독, 정동영 통일부장관,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소설가 한승원, 목판화가 이철수 등 이 시대 13명의 명사가 부르는 사모곡 또는 사부곡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졌다. 제목은 <사랑합니다 내게 하나뿐인 당신>이다.

글 속의 지은이들은 이 책에서 코흘리개 유년시절 아이로, 마냥 어리광을 부리는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다. 때로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반항하는 사춘기 소년 소녀로, 사랑찾아 훌쩍 부모의 품을 떠나는 이십대의 청춘남녀가 되기도 한다. 그런 그들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성벽이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궁전이자, 때로는 좀 떠나보고 싶기도 한 품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 그들은 남다른 자식교육으로 사회 각계 저명인사가 된 지은이들을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지은이들의 부모들은 여러 공통점이 있었다. 지은이들을 키우는 동안 그들에게 긍정의 힘과 자신감을 불어넣고,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고, 우리 것에 대한 미덕을 알게 해 주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라는 나무에

생각만 하여도 눈물나게 그리운

아! 어머니 아버지

우리시대 명사 13명이 쓴 '나의 부모님' 이야기

정성스럽게 거름을 주며 거목으로 성장하게 이끈 빛나는 가르침들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의 어머니는 옹기장수 아버지와 혼인해 일찍 남편을 여읜 뒤 평생을 가난에 쫓겨 살면서도 '아비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며 엄하게 교육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남들은 학창시절 김수환을 보면 귀하게 자란 부잣집 아들로 보았는데, "그것은 순전히 어머니가 가난 속에서도 귀하게 키우셨기 때문"이다. 김 추기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 나를 있게 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 "오로지 자식들을 피어나게 하기 위해 당신은 밑거름이 되신 분"이라고 어머니에게 헌사를 바친다.



장욱진 화백의 '두 가족'.

이윤택 감독의 어머니는 집 밖으로 도는 아버지 때문에 평소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 감독 역시 아버지의 역마살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지만, 바로 그것이 이 씨를 지켜주는 힘이 됐다. 항상 그의 어머니는 "누가 뭐래도 너는 이율곡 같은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준 것이 그를 절망에서 구해준 원동력이 됐다고 회고한다.

손숙씨의 어머니 회상록은 참으로 가슴시리다. 열여섯의 어린 나이에 천석꾼의 2대독자로 귀하게 자라 지독한 이기주의자였던 아버지가 공부한다고 훌쩍 일본으로 떠나 새살림을 차렸다. 그쪽 아이들과 비교해서 내 자식이 못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는 손숙씨 형제들을 들들 볶아댔다.

그런 어머니가 부당하게 느껴졌던 손씨는 무엇이건 해서 약올려 주고 싶었다. 그리고 손씨는 "지긋지긋한 집구석 미련없이 떠날거다"며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가난한 연극배우 남자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갔다. 막상 집을 떠날 때 떠나는 것도 내다보지 않고 방안에 누워계시던 어머니가 안쓰러워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고 한다.

왜소함을 단단함과 야무짐으로 극복했던 한 승원의 아버지는 소설가를 꿈꾸는 그를 무척 싫어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한번도 쟁기질을 해본 적이 없던 그에게 쟁기짐을 지우고 일을 시켰다. 새때가 되자 아버지는 손수 사발에 술을 따라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좌우간 가능하면 남의 그늘에 묻혀 살지를 않아야 쓴다. 내 불 내가 켜들고 내 게를 잡으면서 살아야 쓴다." 한승원의 좌우명이 됐다.

위로 네명의 형이 전쟁 와중에 치료 받을 틈도 없이 차례로 죽어 형님들을 제치고 장남이자 집안의 십삼대 종손이 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의 모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 속에 묻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했다. 정동영의 기억 속에 가장 뚜렷하게 각인된 아버지는 '그래? 음, 그래'하며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듣고 계신 모습이다. 자율과 인정이 아들을 자긍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무용가 홍신자의 어머니는 "여자는 남자와 달라 한번 혼인한 다음에는 배울 기회가 없으니 혼인 전에 남자보다 더 많이 배워놓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홍신자가 외국유학까지 하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이다.

이렇게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었던 지은이들의 부모들. 이들이 부모들에 대해 지금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뭘까. 바로 '풍수지탄(風樹之嘆)'이었다. 효도하고자 하나 이미 부모는 곁에 없어 슬프다는.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말 풀이사전
박남일 지음
서해문집 펴냄 | 1만4900원

무작정 어휘 수를 늘리는 것이 말글살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쉽고, 편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다듬어야 한다. 그것은 글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지은이는 소설, 시, 수필 등의 문학작품에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에서, 또는 대중에 대한 파급력이 높은 방송 대본 등에 우리말을 살려 씀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두루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 옛말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말 600여 개를 선정하여, 그 뜻과 어원을 자세하게 풀어 놓았다. 또한 그 말을 소설이나 수필, 기사문 등에서 어떻게 살려 쓸 수 있는지를 생생한 예문을 들어 보여주고자 했다. '우주와 자연' '생물과 사물' '사람과 사회' '경제활동' '일상생활과 문화' 등의 주제에 따라 구분해 놓았지만, 책 말미에 찾아보기를 두어 낱말만 가지고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작품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말 낱말들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갈래사전의 형식을 띠고 있어 실용서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하다. 예를들면 금성이 저녁 때 서쪽 하늘에 보일 때에는 이를 개밥바라기, 태백성, 어둠별, 장경성 등 여러단어로 사용될 수 있게 정리해 놓았다.

생각의 숲 가꾸는 우리말

이 책들을 접하면서 대학시절 공부할때가 생각났다. 물론 예전에도 우리말을 다룬 책들은 많이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정보의 공급에만 치중하다 보니 외면당한 우리말의 신세가 되곤 했다. 어떤 책들은 형식만 단행본이었지 옛날 초등학교 때 보던 전과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좀체 손이 가지 않았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책은 손에 맞춤하게 날씬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했지만 기획과 편집에 따라 같은 내용도 얼마나 새로운 형식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책은 일종의 공구서(工具書)이다. 공구서란 말 그대로 공부의 도구가 되는 책, 즉 사전, 도감, 연감, 지도책, 연표, 백과사전 등을 말한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종류가 다양해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빈약하다.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삼국지'는 물론 '홍루몽'까지 한 작품을 다루는 사전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토지' 사전을 비롯해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상태이다. 학문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기본이 철저한 나라일수록 이러한 공구서의 종류도 다양하고 신뢰성도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출판이 감당해야 할 큰 줄기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는 주제별로 나눈 도합 6503개의 올림말(표제어)이 수록되어 있고 본문에도 우리말들이 깨소금처럼 맛있게 박혀 있다. 식물 이름 100개만 외우면 아이들 심성이 절로 고와진다고 했다. 이 경청할만한 말에 기대어 말해본다. 우리말 100개만 중얼거려 보자. 머릿속이 빽빽해지면서 저절로 우리 생각도 울창해지지 않을까.

■김상미(강원대 국문학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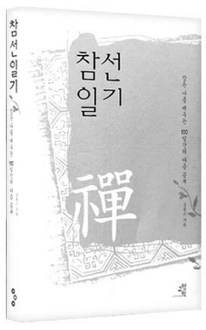






"앎이여 안녕! 이제 나와 만나고 싶다"

김홍근 박사의 진솔하고 꾸밈없는 100일 참선 기록



참선일기
김홍근 지음 | 교양인 | 1만원

'일기'는 지극히 내밀한 자기 고백인 동시에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때문에 다른 이의 일기를 읽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경험과 정신적 성장 과정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남미 문학 전문가인 김홍근씨가 지난해 가을부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cafe.buddhapia.com/community/khg)에 연재한 <참선일기>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떠난 100일간의 참선 체험을 하루하루 일기 형태로 써내려간 글이다.

비록 여러 사람들에게 열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쓴 글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지극히 진솔하고 꾸밈이 없다.

스페인 마드리드대학에서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은이는 동양 사상에 심취해 고전 강좌를 운영하면서도 정신적 갈증을 느꼈다. '이성을 통한 공부'의 한계를 느끼고 참선을 체험해보고 싶었지만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참선이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지도해줄 스승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고뇌하던 그는 20여 년간 유럽에 불교를 전파해 온 현웅 스님(육조사 주지)을 만나며 드디어 참선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이제야 스승을 만난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드디어 제대로 참선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 자신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1일 '열심히 해보시오' 中)

하지만 참선은 차례차례 배우고 익혀나가는 세속의 공부와는 달랐다. 어느 순간 공부의 진전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제자리를 맴돌기 일쑤였다.

"아, 머리 속이 왜 이리 복잡한가? 왜 화두가 딱 잡히질 않는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갔다. 믿음을 확인해보고, 화두를 점검해보고, 의식적으로 화두를 끌어내려 단전에 딱 붙였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3일 '앉아서 공을 들이다' 中)

공부에 진전이 없는 자신을 책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피로가 축적돼 앉아 있기도 힘들어하다가 현웅 스님에게 '몸 관리법'을 배우며 초발심(初發心)을 다잡는 과정도 눈에 보이듯 자세히 그려져 있다.

반복되는 시행착오에도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화두를 참구하고 소참법문을 곱씹던 그는 조금씩 참선에 익숙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아침에 문득, 참선을 시작한 뒤로 꿈을 거의 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놓여서 걱정을 하지 않으니 꿈이 없어진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말이다. 모두 믿음의 힘이라 믿는다."(29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中)

"이제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고, '남'도 제대로 알아 나가야겠다.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한다."(56일 '잘 가라, 앎이여')

물론 100일 간의 경험으로 선의 경지를 체험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은이도 알고 있다. "내면의 잠자는 꽃씨에 비를 뿌리는 것이 참선이고, 그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지은이는 100편의 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절절히 호소한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라고.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일본불교사 바로 알기



"흔히 일본불교를 말할 때 스님들이 장례식이나 기제사 같은 장례 행사에 얽매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제를 등한시한다는 뜻으로 '장례불교(葬禮佛敎)'라 부릅니다. 하지만 일본 승가(僧家)가 장송(葬送)에 종사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로, 이는 곧 일본 고대불교를 이끌어 온 관승(官僧)과 가마쿠라 신불교 교단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넨(法然, 1131~1212) 에이사이(榮西, 1141~1215) 닌쇼(忍性, 1217~1302) 스님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 불교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원제: 스님들의 일본사)>의 저자 야마가타(山形) 대학 마츠오 겐지 교수(사진)가 책의 한국 출간을 계기로 방한, 5월 12일과 13일 독자들을 만났다.

겐지 교수는 12일 서울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린 출판 기념 강연회에서 한센병 환자 치료와 항만 정비, 도로 정비 등 사회구제사업에 앞장섰던 에이존 스님과 닌쇼 스님의 예를 들며 "사체(死體)에 손이 닿거나 장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사예(死穢)라 하여 꺼리던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자비심에서 일어난 스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매우 혁신적이 일이었다"며 "이 같은 종교인들의 사회 구제활동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지 교수는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에서 일본 불교의 특징과 고대불교를 이끌어 온 관승, 신불교를 이끈 가마쿠라 신불교, 무로마치 시대의 불교의 흐름을 짚어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겐지 교수는 "일본 불교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장례불교'의 뜻과 의의를 정확히 알고, 불교계가 그 정신을 계승하는 봉사활동과 사회 구제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옮긴 김호성 교수는 "흔히 우리 불교계에서는 일본 불교라고 하면 무시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쉽지만, 서로를 좀 더 알아가려 노력한다면 상호소외에서 벗어나 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마츠오 겐지 지음 | 김호성 옮김 | 동국대학교출판부 | 1만2천원

설화 · 윤회 · 열두 동물 소재로

5월에 선보인 어린이 불서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함께 있는 5월은 '출판 불모지'라 불리는 어린이 불서 시장이 그나마 활기를 찾는 시점이다. 올해도 아이들을 위한 불서 3권이 잇달아 선보였다.

<팔만대장경 속 열두 동물 이야기>는 소설가 이금이씨가 <본생경>에 나오는 동물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한 것이다. 누가 더 어른인지를 두고 내기를 벌이는 코끼리와 원숭이, 참새를 비롯해 지나친 간섭으로 결국 자신이 곤욕을 당하는 자라 등 열두 가지 동물들의 다양한 우화들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옛이야기>는 김종회 교수(경희대 국문과)와 사진작가 안정호씨가 3년에 걸쳐 전국을 찾아다니며 모은 설화와 관련 사진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전등사 대웅보전의 처마 네 귀퉁이를 떠받치고 있는 나녀상에 얽힌 도편수의 사랑 이야기 등 우리나라에 전하는 설화의 뿌리를 찾아간다.

팔만대장경 속 열두 동물 이야기
이금이 글 | 한수진 그림
보물창고 | 7천8백원

우리나라 옛이야기 ①
김종회 글 | 최유진 그림
안정호 사진 | 두부공장 | 8천5백원

지구별에 온 손님
모디캐이 저스타인 글/그림
신형건 옮김 | 보물창고 | 8천5백원



미취학 아동에게는 '윤회(輪廻)'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꾸며진 <지구별에 온 손님>을 권한다. 연날리기를 좋아하던 티베트 소년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을 간직한 채 생을 마감한 후, 다시 연날리기를 좋아하는 소녀로 환생하는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환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템플스테이 준비하고 떠나라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
유철상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1만2천원보물창고 | 7천8백원



절에 머물며 사찰의 문화를 체험해 보는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02년, 참가자들의 배낭 안에는 잠옷과 책, 핸드폰, 간식 등의 '여행용품'이 가득했다. 이 모든 물건들이 산문(山門)에 들어서자마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 또한 낮았던 때다.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 한해만도 4만여 명이 참가했고 이 중 외국인이 3천여 명에 이를 만큼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템플스테이가 '이색 체험'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각 사찰별 프로그램의 특성은 물론이고, 차수나 합장, 발우공양 등의 의미조차 모른 채 참가한다면 수박 겉핥기식의 체험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은 전국 21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의 특성과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서다. 왕벚나무와 동백나무 등이 만들어내는 숲길이 인상적인 대흥사의 '새벽 숲길'과 골굴사의 '선무도 수련 체험' 등 사찰마다의 프로그램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사찰에서 지켜야할 예절과 발우공양 순서, 사찰 구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국내 첫 가요체 염불곡 '염불환향곡' 번역됐다

독송집 따로 묶어 법보시용으로 제격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 1693~1764) 선사가 지은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인 <염불환향곡>이 처음으로 번역됐다. 1975년 그 존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진지 30년 만의 일이다.

1767년 경남 밀양군 화악산 운주암에서 처음 간행된 <염불환향곡>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언구(四言句)와 아미타불 사언구 후렴으로 이루어진 팔언구(八言句)의 부드러운 가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은 중생들이 염불을 통해 마음의 본원인 고향으로 돌아가자(還鄕)는 것으로, 기성 스님은 이 과정을 가향(家鄕), 실향(失鄕), 실로(失路), 문향(問鄕), 환향(還鄕)의 여섯 장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 읊을 수 있는 부드러운 운율에 그 내용 또한 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종교적 학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염불환향곡>과 기성쾌선 스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발간된 <염불환향곡>은 우리말 번역은 물론 주(註)를 통한 심도 깊은 해석을 겸한 해설집과 언제나 수지 독송할 수 있는 독송집으로 구성돼 있다.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의 '<염불환향곡> 해제'와 앞서 열거한 연구 논문 등도 함께 실려 <염불환향곡>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조은수 교수는 해제를 통해 "<염불환향곡>은 선과 화엄, 정토를 불교의 세 가지 축으로 하고, 그것을 통합해 하나의 통일적인 불교 교학과 수행 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라며 "불교 입문서로의 기능뿐 아니라 당시 불교학의 이해와 수준을 보여주는 불교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을 엮고 펴낸 현대불교신문사는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법보시용 보급을 하고 있다.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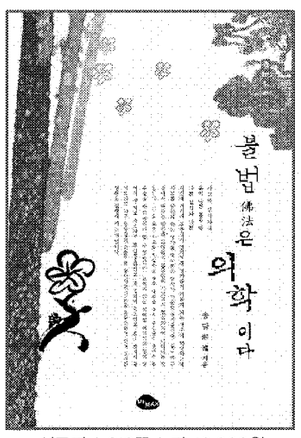


염불환향곡
기성쾌선 선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현대불교신문사
7천원 • 독송집 5천원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합제의 신간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潭 지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남양주 봉선사 월운 조실 스님
신국판 | 319쪽 | 값 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02) 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바보사

후원금 안내면서 '공짜표'만 좋아하니 …

해체위기 '니르바나' 통해 본 불교계 문화 마인드

변변한 연습실 없어 떠돌이 신세 못면해
종단·사찰의 인식 부족, 행사 초청 전무
획기적 콘텐츠개발로 '투자' 유포해야

불교계 유일의 서양음악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 · 이하 니르바나)가 해체 위기에 몰렸다. 창립 이후 7년 간 적자를 뒤집어쓰면서 용케도 버텨온 니르바나가 최근 정기연주회를 회향하면서 적자의 무게에 눌려 회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에서 몇 안 되는 전문적인 예술공연단체를 파국으로 몰아간 큰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누적된 재정난의 영향도 컸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하면 결국은 불교계의 부실한 문화 마인드로 귀결된다. 니르바나의 곪은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전문가들은 "불교계도 이제 이웃종교와 마찬가지로 예술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불교계가 '예술경영'의 당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니르바나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본다.



삽화=박구원

▽ 억대 빚에 '억' 소리 나는 연습실

변변한 후원 단체 하나 없이 7년 동안 정기음악회 등을 꾸준히 이어온 니르바나에는 적자만 남았다. 니르바나측에 따르면 창단 이후 니르바나가 쌓아온 빚은 무려 7억원에 이른다. 물론 강형진 단장이 사재를 털어 쏟아부은 돈은 제외한 액수다. 현재 강 단장의 집은 물론이고 20여 평의 사무실도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막을 길이 없다. 출연료와 대관료 등 행사관련 비용의 합계가 표를 팔아 얻은 수익금을 언제나 넘어섰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후원금은 매번 필수 지출금으로 충당됐다.

돈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최근 제7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니르바나는 연습실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결국 어렵사리 구한 봉은사 법당에서 악기 몇 번 맞추는 것으로 연습을 끝냈다. 50여 명이 내는 악기 소리는 천정이 낮은 법당 안에서 비빔밥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번 무대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인 '님맞이' 등의 창작명상곡 등은 검증과정도 거치지 못한 채 생으로 무대에 올랐다. 곡을 내놓은 작곡가들은 초조함 때문에 무대 뒤편에서 줄담배를 태워야 했다.

▽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지역주민은 물론 경기도에서까지 원정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 1년에 10억 이상의 지원금이 따라 붙는다. 이에 반해 니르바나는 지난 해 사찰 한 군데에서 200만원의 후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개별 후원금은 무에 가깝다. 7년 동안 1만원 후원계좌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이는 단 3명에 불과하다. 번 것 이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압박이 니르바나의 불씨를 꺼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강 단장은 "종단이나 사찰에서 우리를 초청할 때 마치 흥을 돋우는 '광대'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전문 연주집단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에게 불교 오케스트라의 활용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찰에서는 "잘나간다는 외부 오케스트라를 섭외해 몇몇 가수들의 고정 리사이틀 무대를 마련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하듯 올 한해 봉축행사에서 니르바나가 초청된 경우는 단 한 차례 뿐이었다.

이처럼 불교계의 문화포교 마인드가 부족하다보니 니르바나는 불교 안에서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 니르바나측으로부터 연주회 연습 공간 대여를 부탁받은 한 불교단체의 경우 "법당 마루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을 정도다. 이 같은 현실이 매 연주회마다 반복되면서 니르바나는 더 이상 존립할 이유도 없고 존립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 투자만 있을 뿐 수익은 없다는 생각 버려야

최근 개신교와 천주교 등 이웃종교는 '예술경영' 기법을 적극 도입해 전문적인 예술공연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단일 교회인 명성교회 내에 오케스트라가 6개나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불교계에도 이 같은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순히 예술단체만을 육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문화포교의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니르바나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불교문화를 활용하려는 마인드의 변화다.

축제기획사 '불무' 김유신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투자만 있을 뿐 수익은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잘 만들어진 불교문화 콘텐츠는 포교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지속적인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난타, 뮤지컬 명성왕후 등의 성공사례가 성철 스님의 일생을 다룬 오페라에서 재현된다면 그 영향은 실로 지대할 수 있다. 이때 불교문화 콘텐츠도 새롭게 생산될 수 있고, 니르바나 등의 전문 공연단체는 이것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불교 예술단체 내부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문화포교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려면 주먹구구식 운영의 고리를 끊고 사찰의 막연한 지원에 기대려는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니르바나의 경우 단장이 홀로 내부 경영과 외부 홍보 등의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내부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발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이 메세나(Mecenat: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기업의 후원과 지원) 정책으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듯, 불교 예술단체 등도 종단 및 사찰의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삼보 통해 불교의 근본 재조명

동국대학교 개교 99주년 기념 특별전


화엄경석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개교 99주년을 맞아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주제로 특별전을 6월 10일까지 연다.

삼보를 통해 불교의 근본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불상과 불화, 불교의식구, 경전 등의 박물관 소장 불교문화재 40여점이 진열대에 오른다.

전시되는 작품으로는 석가설법도, 금동여래입상 등 불보를 상징하는 불상과 불화를 비롯해 화엄경석, 상지은니묘법연화경, 금광명최승왕경 등 법보를 나타내는 경석·사경·경전 등의 문화재도 공개된다. 또한 불교의식구, 승사리장엄구, 영정비문 등 승보를 조명할 수 있는 유물도 접할 수 있다.


석가설법도, 1777年.

특히 이번에 출품되는 석가설법도와 석씨원류등은 그간 일반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작품이라 눈길을 끈다. 6월 10일까지. (02)2260-3462

가족·설화 단순 명쾌하게 표현

이만익 초대전


이만익 作 '새벽'.

'월인천강' 등 민화적인 느낌의 종교회화를 즐겨 그린 이만익 화백 초대전이 6월 30일까지 서초동 세오갤러리에서 열린다.

세오 2주년 개관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 가족도와 전통적인 설화 그리고 역사화 등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이 화백의 그림 40여점이 선보인다. 이 화백은 절제된 색채와 형태로 우리나라의 한과 기원이 담긴 얼굴을 그리며 민족의 삶과 역사를 재조명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숲속의 아이들' 등 아이들의 열정과 흥을 담은 그림, '명성황후' '청산별곡' 등 역사적인 주제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려낸 그림 등을 만날 수 있다. '까치와 호랑이' 등 설화를 이만익 특유의 유머로 표현한 작품도 다수 출품됐다.


절제된 색채와 형태로 기족애를 표현한 '모자도'.

세오갤러리 아트디렉터 김미진씨는 "화가의 삶과 화업의 연륜에서 배어나온 기품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522-5618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

CD 성명학



저자 : 소리 이부길
도서형태 : 신국판/ 391쪽/ 고급양장
가격 : CD포함 값 20,000원.

동양의 지혜와 컴퓨터의 만남!!
복잡한 수리와 음양오행학이 얽힌
성명학의 진수를 CD로 맛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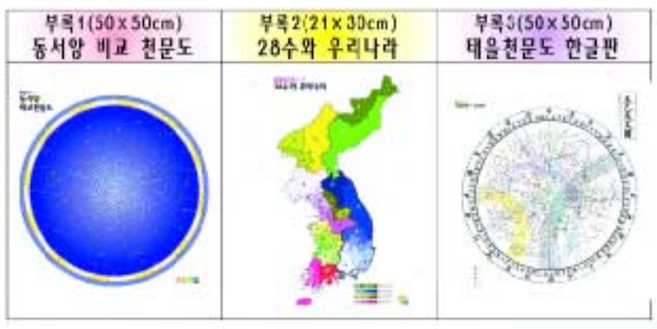
이름의 파장은 인제에 길은 경향을 준다
이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성명학이 어려워 제대로 된 이름을 구별 못했던 어려움을 문명의 총아 컴퓨터가 해결하였다.
좋은 소리는 귀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소리의 울림은 오장육부를 울리고 사람의 모든 감각기관을 울려서 화평하게 하기도 하고 전율에 떨기도 한다. 옛날 이름은 휘(諱)라고 하여 부르지 못하게 하였지만, 요즈음은 대통령의 이름도 부르는 세상이 되었다. 그만큼 발음의 영향이 더욱 커진 셈이다.

누구나
성명학을 배울 필요없이 이름을 짓고 감정할 수 있다.

태을천문도 보급판 출시



고급형(120,000원) / 보급판(60,000원)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을천문도, 28수를 우리나라에 배당한 지도, 휴대용 동서양 비교천문도, 태을천문도 한글판, 해설서.
저자 : 윤상철. 2005년 5월 출시
고구려시대의 천문도를 조선시대 태조의 명으로 권근이 수정보완한 「천상열차분야지도」! 세월의 풍우에 시달려 알아보기 힘들게 마모된 것을 고증을 통해 수정 보완하고 서예가 김홍구님의 필적으로 다시 재현하였으며, 안의 내용은 해설서에 도면과 더불어 번역하였다.



하락리수 CD



※ 가격 3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4년 3월 중보.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견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첨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풀이입니다.

주역신기묘산

편저자 : 건원 윤상철
도서형태 : 신국판/ 391쪽/ 비닐커버
가격 : 15,000원. 5월 15일 출간예정

주역을 활용한 점법의 일종으로, 점치는 방법을 설명하고, 각 효마다 개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17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단답형 풀이를 하였다.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3>



가난한 여인의 등불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저는 절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강의 시작하기 전 종무소에 앉아서 등을 달러오는 신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구들 숫자를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등이 몇 개 필요한지 세어보는 이, 좀더 값이 싼 등이 없는지를 낮은 소리로 묻는 이, 절대로 둘째 이름이 맏아들 이름보다 먼저 적히면 안 된다는 이, 깜짝 놀랄 거금을 등 값으로 '쾌척' 하는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서야만 볼 수 있는 풍경들이겠기에 바라보는 재미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등을 접수하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그리 밝지 않은 표정을 띠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그들은 종무소 직원이 접수하면서 "초파일에 절에 오셔서 법문도 들어 보세요"라고 권하면, 등 값만 받으면 되지 뭘 그런 주문까지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등을 접수하는 짧은 시간 내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우는 아이 달래려고 마지못해 떡 하나 더 쥐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이나 절의 종무소 직원들에게 강제로 주머니를 털리기라도 하는 듯 등을 다는 것을 무척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액난을 당하면 허겁지겁 커다란 굿판을 벌이고 허리를 굽히면서도 무속인들을 비천하게 여기는 이중심리가 초파일 등접수처에서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어떤 절에서는 정성껏 내시라며 등값을 정해놓기 않기도 한데, 더 헷갈린다며 "차라리 등 값을 정해놓고 팔지…"라는 볼멘 목소리는 역시 터져 나옵니다.

찌푸린 얼굴로 절에 찾아와 마지못해 지갑을 열고 접수한 뒤에는 대웅전 문고리조차 잡아보지 않고 총총히 떠나는 '불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부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초파일 연등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거지 여인 이야기입니다. 동냥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며 나날을 보내던 거지여인은 프라세나짓왕이 석 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하였는데 그날 밤에는 또 수만 개의 등불을 켜 연등회(燃燈會)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등불을 하나 밝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난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 여인은 동전 두 닢을 겨우 동냥하여 등불을 밝힐 기름을 샀습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부처님이 다니는 길목을 밝히면서 "보잘것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내생에는 나도 부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다 꺼졌으나 동냥으로 겨우 마련한 그 등불만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났습니다. 등불을 끄려고 애쓰는 아난존자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질없이 애쓰지 말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다. 그러니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成佛)할 것이다."

자기보다 하천한 여인이 겨우 등불 하나 밝히고서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프라세나짓왕이 한걸음에 부처님께 달려가 자기는 수 천 개의 등불을 켰으니 자기에게도 수기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당하였습니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 잡사)

요즘 같아서는 거지 여인의 등은 정말 하잘것 없고 초파일 당일에 법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경내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냉대를 받다 버려질 게 뻔한 등입니다. 하지만 수 천 개의 등을 밝힌 왕도 받아내지 못한 당당한 보장을 부처님에게서 받아낸 등불입니다.

커다란 보시를 한 사람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고 부러워한 그 마음, 하지만 자기도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 보시를 하려는 결심, 그리하여 작은 등불을 밝히면서도 그 속에 담은 '부처가 되고 싶다'는 서원, 이 세 가지가 담겼기에 왕이 밝힌 수 천 개의 등불보다 더욱 빛이 났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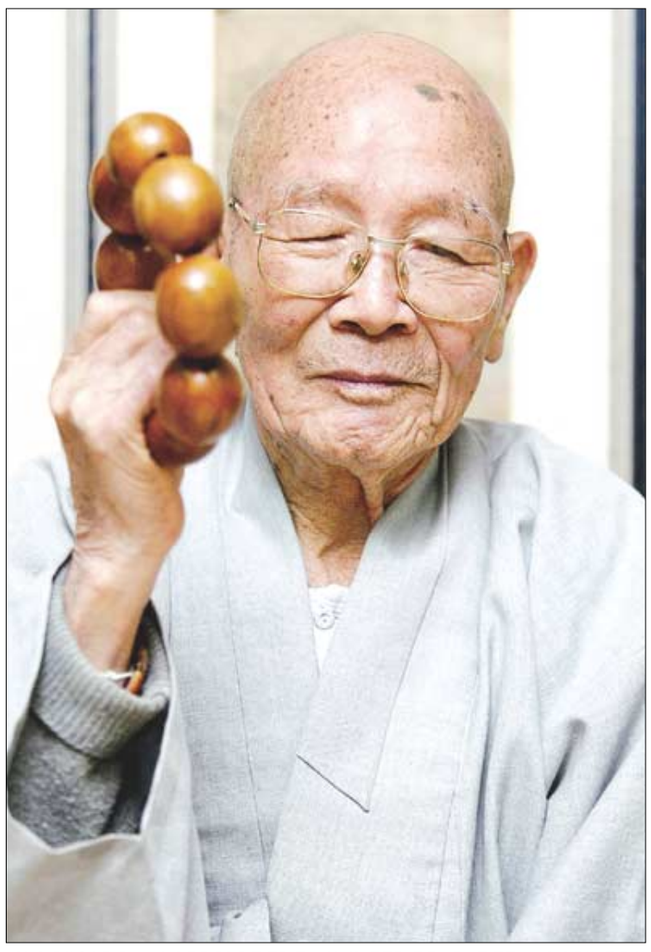
남이 하니까 따라서 등을 사고, '좋다니까' 등을 달고, 정작 자기 자신이 가장 소망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등을 왜 밝히는지 이유를 알아볼 마음조차 내지 않고, 값을 흥정하고 돈을 내밀고 장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총총히 떠나가 버리는 오늘날 불자들의 가슴 속에 거지여인의 등불이 빛을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모든 이의 등불이 거지여인의 등불처럼 이 침침한 사바세계를 밤새도록 환히 비추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동냥으로 겨우 마련한 초라한 등불 밝힌 여인
정성 다해 '성불' 서원…밤새 꺼지지않고 빛나

"참된 말은 입밖에 나지 않는다



"스님이 열반하시면 가는 곳이 어딘가요?"라고 묻자 동산 스님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 모르는 곳이 어디냐"고 다시 묻자 스님은 염주를 쥔 손만 불끈 내밀었다.

지상 백고좌

동산 스님

(태안 송림사)

'세계일화(世界一華).'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정진을 했던 수덕산 정혜사 시절, 만공 스님은 무궁화 꽃을 붓 삼아 한국 불교사에 우뚝한 덕숭산의 가풍을 이 네 글자에 담아냈다. 그래서 경허에서 중흥의 싹을 틔운 한국의 선불교는 만공에게서 줄기를 튼튼히 하고, 오늘로 이어져 꽃을 활짝 피웠다.

아직도 그 세계일화의 꽃 한 송이가 성성한 수행력을 간직한 채 안면도에 피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효봉 성철 벽초 인곡 용음 해산 삼공 등 큰스님들과 함께 만공 선사를 모시고 정진했던 한 노스님을 만나기 위해 충남 태안 안면도를 찾았다.

송림사 동산 스님(92). 스님은 만공 스님의 애제자인 보월 스님의 법맥을 이은 분이다. 만공에서 보월로 내려온 법맥은 동산 스님과 금오 스님에게 이어졌다. 보월 스님이 요절하자 만공 스님은 대신 동산 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이를 보전케 했다.

삼배를 마치고 앉아 동산 스님께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파 왔다"고 여쭈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한참 염주만 굴리다가 마침내 말문을 여셨다.

"만공 노스님은 여름 겨울 살림을 시작할 때마다 법문을 하셨지.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무어냐면 바로 '진언(眞言)은 불출구(不出口)'라는 것이야. 참된 말은 입밖에 내지 않는다는 뜻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평생토록 수행 정진한 스님의 깨달음을 한번에 이해하려는 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말을 내는 순간 그르친다는 스님의 답변에 순간 무엇을 더 물어야 할지 깜깜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한번 더 욕심을 내어 스님께 그 뜻을 캐물었다.

"요새 사람들은 왜라고 묻고 따지길 좋아해. 그런데 불교는 왜라고 묻는 게 아니야. 만공 노스님은 이 말만 가르쳤을 뿐이야."

직접 몸을 쓰지 않고 괴로움만 면해 보려는 게으른 불자를 경책하는 말씀일 게다.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산 스님의 수행 여정을 조금이라도 엿보기 위해 출가 동기를 물었다.

"출가 이유는 별게 없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절에 다녔어. 불교가 좋고 부처님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신심을 부처님께 무조건 바쳤어." '무조건'이란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는다면 무조건 믿을 것이지 어찌 이유를 따지랴!

"불교는 왜라고 묻는게 아니야"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동산 스님은 마곡사 토굴에 수행하던 보암 노스님 밑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스님은 15살에 정혜사 서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사미계는 정혜사에서 만공 스님을 계사로 같은 해에 수지했고, 비구계는 서울 선학원에서 일봉 스님을 은사로 수지했다.

스님의 수행이 궁금해 어떤 화두를 타파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스님은 "모두 잊어버려 화두가 뭔지 모른다"며 계송을 따로 짓지도 않았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만공 스님을 모시고 살던 정혜사 선방이 어떠했는지 묻기로 했다.

"정혜사 선방 분위기는 어떻다고 말할 게 없어.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야기할 게 없었어. 그 때는 대중 모두가 원만히 화합하고 정진할 따름이었지."

'원만히 화합하고 정진했다'는 몇 마디 말씀에서 간절했을 당시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만공 노스님도 마찬가지였어. 물론 조실 스님이니 모범적으로 정진을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앉아서 졸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곡차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웃 조청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山寺 청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山寺 기청량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山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당신의 맑은 피부를 위한
청정생기세심비누
특 허 : 제0482418호(식양청 허가제품)
발명자 : 김지문
◆ 성분 : 천연진주가루, 콜라겐, 카마모일, 구기자, 당귀 등 천연생약 10여종 및 팜유와 라벤다 천연오일향
◆ 효능 : 피부에 무자극으로 보습효과 항균성 뛰어남,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기미, 각질제거, 발바닥 갈라짐 방지, 피부알레르기, 두피(탈모방지), 세안 및 미백효과 탁월 하며 청정한 생기력은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 제조원 : (주)海仁우리
■ 100g × 4개 1Box 42,000원
■ 전 화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 청정생기 세심 비누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가 맑고 젊어집니다.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1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돈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일 것
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5일 - 8월 4일 (31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게왕국-알리-도마-다홍리탄-마자르-예청-호탄-민풍-체르첸-차르크리크-루오지앙-하루고-돈황
● 안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수미산 여행은 많은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라”

를 잡수기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 그런 얘기 뭐 할 거 있겠어. 밥 먹고 차마시고 세수하는 것이 다 똑같을 뿐이야. 우리는 그냥 스님의 행동거지를 보고 배우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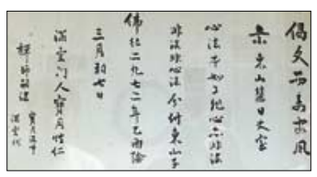
스님은 오로지 화두타파에만 몰두하는 수행자의 모습이 이랬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불자들의 편견에 ‘할’과 ‘방’을 내리는 것 같았다. 알음알이에만 집착하는 우매한 중생이 헤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듯, 스님은 문득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셨다.

“밤이면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잔다는 말이야. 아침이면 또 부처님과 같이 일어나 앉아. 마음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그 말하는 이것이 바로 그거야. 이걸 깨쳐야 하는 거야. 이야기 다 했어. 너무 많이 했네.”

“신심을 ‘무조건’ 바쳤지”

스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급한 마음에 스님이 입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걸 알 수 있나? 나도 몰라.” 또 다시 침묵. “그럼 스님, 그 모르는 곳이 어딥니까?” “이것이지.” 스님은 염주를 쥔 손을 힘차게 내어 보였다. 스님은 다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라는 무언의 법문을 해주시는 게다.

“예전에 일제가 총본산을 만들어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합방시키려고 했지. 그 당시 마곡사 주지였던 만공 스님도 총독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어. 그런데 한 스님이 ‘데라우치 총독이 스님들을 천민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불교를 잘 되게 해줬으니, 우리는 스님 노릇 잘해 총독의 은혜를 갚자’고 하는 거야.



만공 스님이 보월 스님을 대신해 동산 스님에게 주었다는 전법게.



모든 수행의 기본은 죄업을 쉬고 마음을 기르는 ‘식업양신(息業養神)’이라는 동산 스님. 스님은 젊은 불자들에게 ‘식업양신’할 것을 당부했다.

‘곰은 몽둥이를 휘두르지만 사자는 사자후를 한다’는 말로 경책을 했지. 선학원 조실이던 만해 스님은 당시 한참 일본을 비난하는 글을 불교 잡지를 통해 발표했어.” 거침없는 행동 때문에 혹시나 만해 스님이 잘못될까 걱정했다는 것이다.

후학을 사랑하는 만공 스님의 자상한 마음을 느끼며 젊은 불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는지 물어보았다. 역시 선승답게 동산 스님의 답변은 간단했다.

“오직 ‘식업양신(息業養神)’을 하도록 노력해.”

식업양신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물어보았다.

“만공 노스님께서 보통 법문을 하시면 꼭 이 말을 잊지 않았어. 업을 쉬고 정신을 기른다는 말이지. 정신을 기르고 악한 죄업을 다 쉬고 소멸해 버려야 해. 화두 염불 기도의 근본이 식업양신이고, 식업양신이 곧 화두야. 참선하는 스님들의 공부법도 식업양신이야. 요새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 말 안 들어도 식업양신만은 잘 해야 해.”

밤마다 부처님 안고 잠들다

스님 친견을 마치고 처소를 나서자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노스님은 젊은 손님을 꼭 배웅하겠다며 기어코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간곡한 만류에 문밖을 나서는 것은 포기하셨지만 젊은이들이 갑기 걸릴 것을 걱정하셨는지 우산을 들고 가라며 손에 쥐어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동산 스님이 길 떠나는 객에게 선물로 들려준 시를 음미해 보았다. 만공 스님이 금강산에서 수행하며 지었다는 시다.

신등벽공(身嶝碧空)
족하비로(足下毘盧)
안리대해(眼裏大海)
세안세족(洗眼洗足)
불시고야(不是苦也)

몸이 푸른 하늘을 오르니
발아래가 비로자나이네
눈 안에 동해 큰 바다가 있어
눈을 씻고 발을 씻으니
이것이 고가 아닌가?

글=강유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만공 · 보월 스님 법맥 이어 평생정진

동산 스님은

동산 스님은 수덕사 스님들에게 몇 안 되는 어른 중 한분이다. 만공 스님은 보월 스님을 대신해 ‘심법을 스님께 전한다’는 전법게를 동산 스님에게 내렸다. 스님은 만공 스님의 태산 같은 은혜를 갚기 위해 세수 아흔을 넘긴 지금까지 만공 스님 다례제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래서 수덕사 문중 스님들은 동산 스님을 ‘하늘이 두 쪽 나도 만공 스님 다례제만은 꼭 챙기는 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스님은 다례제에 참석하면 꼭 후학들에게 경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1983년 동산 스님과 수덕사 초대방장인 혜암 스님이 법거량을 한 것은 한참 동안 수덕사를 출입한 수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만공 스님 다례제 날 동산 스님은 “화소참불면(花笑慘佛面)이니 의제가 어떠하십니까”라고 묻자, 혜암 스님은 “수불리파 파불리수(水不離波 波不離水)이니, 오늘 다례법문은 동산 스님이 다했다. 시자야, 스님께 포도주 한잔 드려라”고 했다.

동산 스님은 28세에 정혜사 주지 소임을 맡아 대중들의 공부를 도왔다. 그 이후에는 대승사 송광사 심원사 마곡사의 선방과 강원을 돌며 수행을 했으며 경허 스님의 보임처인 천장암에서 30년간 주석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그 덕분인지 기자들이 동산 스님을 만난 바로 직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수 스님

지수(智首) 스님은 내가 운문암(雲門庵) 선원에서 연이어 두 번 살 때 여름 안거를 같이 산 스님이다. 스님은 전 철에 눈이 많기로 유명한 수도암(修道庵)에서 입승을 살며 겨울 안거를 마치고 운문암으로 오셨다. 나는 그때 불전 예불과 청소 담당인 지전(知殿) 소임을 살았고, 지수 스님은 한주(閒主) 소임을 사셨다.

운문암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름과 안개로 유명하다. 어떤 때는 며칠씩 구름에 싸여 햇빛을 볼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산도 구름, 하늘도 구름, 산 밑도 구름이어서 그야말로 고립무원이 되어버린 때도 많았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방문을 열어놓고 산 아래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단정히 앉아 차를 마시는 스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림 · 문병성

스님은 그렇게 차를 좋아하시고 꽃과 새 같은 자연에 관심이 많았다.

스님은 일반 선승의 경력에 비교하면 화려한 편이다. 스님은 한때 송광사에서 강사를 역임하고 대흥사에서 수련원장을 하며 재가불자들을 지도했다. 그러다가 해외 포교에 대한 원력이 있으셨는지 영국에 포교당을 개원하였다.

10여 년 동안 영국이나 포르투갈 등 유럽을 오가며, 선(禪)을 지도해서 무명(無明)에 싸여있는 외국인들에게 혜안을 밝혀주었다. 스님은 지금도 안거가 끝나면 유럽을 돌며 법회를 열고 참선 지도를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보통 스님들이 직책을 갖게 되면 그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마치 칼날 위의 꿀을 혀로 맛있다고 핥아먹고 있는 격이다. 그러나 지수 스님은 그런 생활을 접고 당당하게 선(禪)의 길을 택하셨다. 아니, 이판과 사판의 길은 둘이 아니며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요즘 본사주지나 총무원 소임을 마친 스님들이 모든 것을 홀홀 털어버리고 걸망을 지고 선원에 가는 모습을 보면 같은 수행자로서 존경스럽다. 내가 지수 스님을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은 깔끔하고 깐깐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작고 아름다운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계셨다.

스님은 점심공양이 끝나면 스님의 상징인 까만 선글라스와 밀짚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산행을 나서곤 했다. 나를 비롯해 몇몇 젊은 스님들이 스님의 산행에 가끔씩 동행을 했다.

한번은 의견이 모아져서 절에서 가인봉까지 속도를 높여 가기로 한 적이 있었다. 거의 십리 거리의 산길을 거의 뛰다시피 하였다. 지수 스님이 앞장서서 참나무 숲과 돌밭 길을 지나고 시누대나무 사이를 번개처럼 달렸다. 스님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오히려 젊은 스님들이 뒤쳐져서 낙오자가 생겨났다.

스님은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 젊은 스님들이 해제 철이라고 해서 몸을 함부로 놀리거나 아니면 공부한답시고 몸을 다 버려서 고생할 때도 스님은 아픈 티를 내지 않았다. 사실 수행자가 몸이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몸 관리를 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런 경향이 많다. 지수 스님은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 건강도

다양한 경력 · 직책에 걸림없이 자유롭고 깐깐

수행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게 스님과 산행을 하면서 나는 스님에게 새나 꽃 이름에 대해서 많이 배우웠다. 운문암의 상왕봉과 사자봉 주위에는 내가 모르는 이름 모를 꽃들이 무수히 피어났다. 물레나물, 동자꽃, 노루오줌풀 같은 꽃들은 다 운문암 주위에서 피는 꽃들인데, 모두 다 지수 스님에게서 처음 듣고 배운 꽃이름들이다.

또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는 되지빠귀다, 으스스한 저 소리는 호랑지빠귀다 하며 자상하게 가르쳐주었다. 내가 매일 오르는 상왕봉 등성이에서 매일 콧대높게 울어대는 새소리가 휘파람새라는 것도 스님에게 배웠다.

스님은 현재 길상사에서 시민선방의 선원장을 맡고 계신다. 이제 안거가 시작되면 스님은 번잡한 도심을 떠나 다시 걸망을 싸서 선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직책이 따라다니면서도 흐르는 강물처럼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스님, 녹차를 즐기는 스님, 자연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스님, 젊은 스님들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꾸중할 줄 아는 깐깐한 스님.

스님의 수행이 날로 수승해져서 황벽 스님의 시구(詩句)처럼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만나고 나서, 코를 찌르듯 진한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현성 스님은 괴산 공림사에서 출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했고 그동안 송광사, 운문암 등에서 참선정진해 왔으며 현재는 충북 청원 현암사에서 총무소임을 맡고 있다.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여래심으로 바꾸는 수행체계

법기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바른수행과 바른깨침의 길을 제시하는 법기불교대학은
불교기초교리, 수행방법, 수행단계등을 강의와 수행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합니다.

[강의 일정]

차례	강 의 내 용
1강	입재, 불교바로보기 / 사찰의례 (삼귀의, 사홍서원, 전각별당, 사찰예절, 합장, 절하는법, 예불문),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무기·번뇌, 가아·진아) / 친목의 시간
3강	수행방법 (결인관, 수행자호흡법, 설관 / 염법) / 법담 나누기
4강	요처수행(산행)
5강	기초교리 (4성제 8정도, 3법인, 5온, 12처18계, 연기법) / 호흡점검
6강	삼매와 삼매관성, 경계와 법, 업장소멸의 원리 / 선배의 수행경험담
7강	**토요일** 철야정진 / 상기의 극복(멜로디),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
8강	수행자의 건강관리 / 반별 법담 (도반의 수행담)
9강	좌선과 행선 / 돈오이전의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10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돈오, 무념, 반야, 삼신불) / 이근관, 안근관, 호흡점검
11강	봉사활동
12강	기복불교, 염불선, 북방불교, 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멜로디 연습
13강	불교상식 바로 알기 / 설문조사, 발원(정근)
14강	수료식 / 선지식 법문

부산 법기불교대학 <제7기>
· **개강** : <야간반> 2005년 6월 7일(화요일) (오후 7:30 -9:30)
<주간반> 2005년 6월 8일(수요일) (오후 2:00 - 4:00)
· **기간** : 3개월, 주 1회씩 수업
· **접수** : 부산법기선원 (T.051-516-9104)

서울 법기불교대학 <제5기>
· **개강** : <야간반> 2005년 6월 23일(목요일) (오후 7:30 -9:30)
<주간반> 2005년 6월 24일(금요일) (오후 2:00 - 4:00)
· **기간** : 3개월, 주 1회씩 수업
· **접수** : 서울법기선원 (T.02-854-1848)

* **수강료** : 총 65,000원 (교재비 포함)
* 수강생 편의에 따라 중복 수강 가능합니다.
*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BUBKI BUDDHIST TEMPLE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TwoTwo www.twotwocom.co.kr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金剛壯士



- 2000여 가지의 출력양식 지원 (축원, 등표, 위패, 봉투, 우편엽서 등)
- 나이별 편지 발송 기능을 내장한 막강한 생일관리 기능
- 국내의 모든 우편물 양식을 지원하는 우편물 발송 기능
- 신도의 효율적 관리의 핵심, 행사관리(인등, 연등, 기타행사)
- 단위 사찰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계관리 기능
- 영가위패를 한번에 입력, 출력, 관리하는 영가관리 기능
- 그 외 명함관리, 일정관리, 출력관리 기능
- 특정축원만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모듬처리 기능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전송가능

저희 투투컴퓨터에서는
사찰신도관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종단관리 프로그램, 납골당관리 프로그램,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 투투컴퓨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 역학 프로그램 나주대전!
투투컴퓨터에서 만나보십시오!



투투컴퓨터 서울 (02)585-1141 부산 (051)505-2434 대구 (053)563-9841 제주 (064)721-2434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5월 25일 수요일 제 527 호

파릇파릇 싱그러운 봄과 여름 사이

숲길에 들어서면 마음 맑아져요



이즈음의 신록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신록을 대하고 앉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 낸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티끌—나의 모든 욕망과 굴욕과 고통과 곤란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다음 순간, 볕과 바람과 하늘과 풀이 그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나의 빈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고이고이 들어앉는다. 이양하의 '신록예찬(1947)' 中

초목의 새 잎이 여리게 푸른빛을 발하는 신록의 계절 5월의 끝자락. 사람들은 저마다 푸른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숲을 찾아 깊은 심호흡을 해보고, 자연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 속까지 시원해진다.

밖으로 나가보자. 차를 타도 좋고, 걸어도 좋다. 가까운 전통사찰을 찾아 건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는 기분도 그만이다.

시간에 쫓기는 도시민들은 갑자기 과격한 근력운동을 하기보다는 걷기로 몸에 부담을 줄이면서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하루에 20~30분의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효과적이다.

집에서 가까운 야산이나 주변의 공원에 조성된 산책로를 걸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 시민이라면 경복궁, 덕수궁 등 시내 주요 궁을 걸으며, 가슴 벅차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 경호원과 마주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경복궁에서 청와대 쪽으로 올라가는 호젓한 길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시간이 있다면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평창 월정사와 공주 마곡사등 사찰에서 운영하는 걷기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중요한 것은 그저 신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마음 한 자락에다 묻어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저 이 계절을 바라보기만 해도 삶의 힘, 자연은 고스란히 내어준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신록의 계절 5월 말의 경복궁 돌담 주변길은 푸른 빛으로 넘실대고 있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가볼만한 나무가 있는 길

장소	가는 길	산책코스 및 포인트	하나 더 찾을 거리
서울 경복궁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하차	경복궁 내 및 경복궁에서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	조계사, 법련사 불일미술관, 인사동 등
서울 남산	지하철 4호선 회현 또는 명동 역	남산 1호터널에서 서울과학교육원~남산도서관 ~식물원으로 이어지는 길	남산식물원, 서울타워,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한옥마을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버스 또는 택시 이용해 삼청공원 입구에서 하차	삼청경복궁 뒤쪽에 솟아있는 북악산 능선의 동서 방향.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	북한산, 팔각정, 서울성곽, 삼청각, 길상사 등
서울 석촌호수	8호선 석촌역 1번 출구	석촌호수와 700여 주에 이르는 나무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길	올림픽 공원, 위례성길 등
충남 천안 예안 이씨 집성촌 민속마을	고속철 천안아산역에서 공주쪽으로 차로 15분	영화 '취화선' 의 배경. 돌담길과 조선시대 가옥 등이 볼거리	설화산 계곡, 맹사성 고택, 현충사, 독립기념관 등
강원도 평창 월정사 전나무숲	고속버스 진부면 하차 –월정사행 버스	월정사 일주문에서부터 심어져있는 울창한 전나무 숲	상원사 적멸보궁, 비로봉 등
경북 청도 운문사 숲	대구 청도 경산 등지에서 운문사행 버스 이용 가능	버스에서 내려 운문사로 올라가는 숲길. 특히 굽은 소나무가 볼거리	운문사 자연휴양림, 운문댐 등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청량리역 버스정류장에서 광릉대–봉선사행 버스 차례로	근처 수목원이 많아 수목 종류가 다양하고 삼림욕 하기 좋음	광릉수목원, 불암산, 모란미술관 등
부산 이기대 자연공원	부산시내에서 용호동 구종점에서 하차, 공원 표지판 따라 800m	이기대 어울마당~바닥가~잠바위~ 난끝~공원순환도로를 따라 바다 풍경과 해송 오솔길을 볼 수 있음	백련사, 오륙도, UN묘지 등
광주 5·18 기념공원	광주 시내버스 이용해 5·18문화기념관 하차	대동광장~팔각정~무각사 ~오월루~학생교육문화회관	5·18 공원 참배, 광주 시내 일대 등

게시판



사찰꽃살문 사진전 국립진주박물관 전시실에서는 사찰꽃살문 사진 순회전(사진)이 5월 29일까지 계속된다. (055)742-5951

실버미팅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 '행복한 성상담 센터'에서는 6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버미팅' 대상자를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만 60세이상,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02)929-7950

무료급식 봉사자 모집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무료급식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시접수 중. (031)431-9114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관광부는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 요건과 이용 코스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3704-9555

케어복지사 과정 사회복지법인 수효사(주지 무구) 수효사회복지대학에서는 케어복지학과 4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9월부터 시작하는 6개월 과정 수료 후에는 케어복지사 2급 · 따주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02)313-2398

불교상담교육 조계사(주지 원담)는 기초교리를 이수한 불자들 중 상담에 관심있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7기 불교상담전문교육생'을 25일까지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02)732-2178

20면 상식 퍼즐 정답

오		추		모		페
일	반	상	대	성	이	론
게		화		보		
이			강	호	지	락
트	리	오			공	
		태		아	무	개
	담	석	증		사	

우리시대 대표작가와 만난다

만해마을서 정현종 시인 등 문학 강연



6월부터 '토요문학 아카데미'가 열리는 만해마을.

우리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과 전국의 문학 독자들이 교유하는 자리가 백담사 만해마을에 마련된다.

백담사 만해마을은 12월 10일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우리시대 대표작가와의 만남–토요문학아카데미'를 연다.

'문학은 살아있다'는 주제로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시인 정현종(6월 11일), 소설가 김별아(7월 9일), 시인 정호승(8월 20일), 소설가 조정래(9월 10일), 시인 문정희(10월 8일), 소설가 김성동(11월 12일), 소설가 전상국(12월 10일) 등 우리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강사로 나선다. 강연 및 작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수강료 무료.

한편, 만해마을은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전업작가 및 원로 · 중진 문인들에게 '만해마을 문인의 집'의 집필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기간은 단기 1개월 · 장기 4개월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사용자를 선발한다. (033) 462-2304

강신재 기자

전시



지난해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서울국제도서전 6월 3일 개막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책 제작방법을 보고 싶다면 6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열리는 '2005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가 보자.

'책으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는 국내외 출판사와 잡지사, 저작권 에이전시, 서점, 유통업체 등 126개사가 참석하며 해외에서는 20개국 166개사가 부스를 설치해 각자의 출판물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독자들이 책과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특별 부대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돼 눈길을 끈다. '직지홍보 특별 전시'에서는 '직지심체요절' 전시와 금속활자의 제작과정 소개, 고인쇄체험 코너 등이 마련된다. 이오덕 윤동주 정지용 기형도 최인호 한승원 박완서 등 유명 작가들의 육필 원고를 볼 수 있는 '유명작가 육필원고전'과 이원복 김진경 등의 작가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도 선보인다. 이 밖에 출판 산학협동 포럼, 해외 북 아티스트 초청 북아트 세미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3일 06:00 불교강좌
24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25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6일 07:05 아침저널
27일 09:05 행복한 미소
28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29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3일 08:00 명상음악산책
24일 15:10 명상육아
25일 14:25 불교TV 메디컬
26일 15:10 휴먼다큐
27일 16:40 향토음식기행
28일 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29일 15:2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5월 27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5월 일 아침 8:35~09:20) 동양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반야심경 고급 손목시계



마하몰에서 고급 시계가 새로 나왔다. 큐빅 13피스와 6시와 12시를 제외한 시간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글자를 새긴 시계는 스위스 론다사의 부속품을 채택해 견고함과 품격을 더했다. 브라운과 블랙 두 가지 색상, 원형 또는 아크형의 두 가지 형태로 4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스텐 본체, 3기압 방수 .

이영화 어때요?

냉혹한 가장 김준평 일대기

피와 뼈 감독: 최양일 출연: 기타노 다케시, 스즈카 교카 등급: 18세 이상



2005년 마이니치 영화 콩쿨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화 '피와 뼈'.

이 영화는 양석일 작가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동명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로, 오사카로 건너간 재일 한국인 김준평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10대중반 '재패니스 드림'을 안고 제주도에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간 실존인물 김준평.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력적이며 탐욕적으로 살아간 잔인한 마초의 생애를 잔혹하게 그려낸다. 그의 삶의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어도 관객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며 과연 '인간의 피와 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묻는 감독의 질문에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으로 일본에 건너가 한 조직의 보스까지 올라선 김준평은 영화 속에서 일찍이 본적 없는 파격적인 캐릭터다. 폭력적이면서 몰인정하고 동시에 냉혹하고 잔인하다. 피붙이인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정한다.

영화에서 비춰진 준평 일가의 삶은 단지 영화적 허구가 아니다. 어쩌면 1900년대 중반까지의 동양의 가부장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며 그 시대를 산 우리네 가족사의 비망록은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모든 인연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하)

한다현 (전남 무안군 일로읍)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다’ 고 생각했는데 명상을 통해 나를 관조해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만약 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눈을 뜰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모두 내겐 고맙고 소중한 존재이며 스승이었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보였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차츰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것도 알아차리는 훈련을 통해 줄일 수 있었고 아예 108배나 명상을 통해 흐트러지려는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초월하기 힘들었다. 특히 생활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비참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집안이 힘든데 무슨 마음공부를 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 명상이나 염불마저도 귀찮기까지 했다.

어느 날 한 번은 개학을 앞두고 큰 아이를 미장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난감했다. 남편에게 짜증을 냈더니 남편은 대꾸도 않고 나가버리고, 난 돈 만원이 없어 이런 궁상을 떨며 살아야 하는 내 처지가 한심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고 또 울었다. 당장 생계가 걱정인 판에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다 무슨 소용인가! 절에 다니고 싶어도 돈도 없고 여유도 없던 내게, 그 순간은 종교도 사치처럼 느껴졌고 다 귀찮게만 느껴졌다.

이런 내 기운을 알았는지 아이들은 셋이서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놀기만 했다.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크는 아이들이 대견하면서도 내가 클 때보다 더 궁핍한 생활을 하는 애들 생각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저녁때 쯤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는 혹시나 하고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자 화가 치밀어 왜 왔냐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대꾸도 없이 마당으로 나가더니 “연화야, 우리 공주님. 아빠가 머리 잘라줄게”하며 아이들을 불렀다. 난 어이가 없어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이들은 “아빠, 아빠가 머리도 자를 수 있어요?”하며 좋아서 우르르 나갔다.

남편은 의자에 큰 아이를 앉히고 보자기를 어깨에 둘러 주더니 정말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큰 아이는 속도 모르고 아빠가 머리를 잘라준다는 소리에 신기해하며 좋아했다. 두 녀석들은 깔깔거리며 무엇이 그리 좋은지 턱을 괴고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나는 돈이 없어 미장원에도 못 데리고 가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역으로 아이들은 신나는 이벤트인양 즐거워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들은 신이 나 있고 나는 세상이 다 무너진 거처럼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아빠.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럼, 우리 공주님, 아빠가 최고로 예쁘게 잘라 줄게.”

“야! 우리 아빠 최고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아이들은 벌써부터 자기네 방 꾸밀 생각에 부풀어 있고 남편과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선물해 줄 수 있어 행복하고 모처럼 부모노릇 한번 한 것 같아 뿌듯하다.

남들에겐 당연한 일 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진다. 우리에게 돈이 많았다면 결코 느낄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인 것이다.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조건이나 실체가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진정으로 느끼고 깨닫는 순간 진정한 행복도 자유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돈이란 상대적인 것이고 자기 눈높이와 다르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손 빨래를 할때면 으레 화가나곤 했는데 이러한 성찰을 계기로 그 뒤에는 빨래하면서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108배 · 명상통해 마음 관조하는 법 배워

궁핍한 생활 속에도 행복 있음 깨달아

욕심도 번뇌도 친구로 여기며 살아갈뿐…

덩달아 신이 난 바둑이까지 멍멍 짖어 대며 깡충깡충 뛰어 다니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난 내 괴로움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오늘 왜 그토록 절망했었는지 의아해 졌다. 내가 만일 오늘 돈이 있어 미장원에 데리고 갔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만들 추억은 없었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은 평생 해보기 힘든 이벤트를 가진 것이다. 돈이 없는 것 자체는 물론 슬프고 괴로운 일인 것 같지만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슬퍼만 할일도, 괴로운 것만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많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다섯 식구는 아직도 한 방에서 살고 있다. 좁은 방에서 다섯 식구가 자다 보니 아이들이 밤잠을 설치기가 일수다. 그렇지만 한방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니 가족애도 남다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작은 아이는 내 품을 찾아든다. 나는 아이의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아이는 내 체온을 느끼며 만족해한다. 얼마 전 아이들 방 공사를 시작해서 며칠 후면 완성이 된다.

거창하게 불교란 어떤 종교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순 없지만 불교라는 종교가 파국으로 치달을 뻔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건져 낸 것만은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으리라. 불교의 힘은 부처님께 어떤 것을 바라고 비는 것만이 아닌 스스로의 불성을 깨우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그 무엇을 일 것이다.

나는 주기적으로 절에 가지도 않고 십재일도 챙기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난 내 종교가 불교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리고 불자라는 생각이 나를 뿌듯하게 한다. 요즘 나는 번뇌에 시달리다 지치면 <금강경>을 읽거나 잠시 면벽자세로 좌선을 한다. 혹 <법구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려보기도 한다.

가족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때는 상대방의 사진을 걸어놓고 108배를 하며 하심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부처님께 혹은 관세음 보살님께 무엇을 빌거나 매달려 보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할 뿐 집착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한 줌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이젠 내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불법은 내 삶의 전부다.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고 살수 없듯 불법을 떠나서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이 든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 준 부모님과 언니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돈이나 그 어떤 물건을 물려주신 것보다도 나에게 불법을 알게 해준 것이야 말로 진정 나에게 값진 재산이 될 것이다.

지금의 순간 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살이라는 칭호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분이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 조카와 맺은 모자의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조금 전 전화 통화에서 언니는 그 어떤 동요나 흔들림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차분했다.

그렇지만 그 차분함의 뒤편에 숨겨져 있을 언니의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온다. 염주를 돌리는 내 손이 빨라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도 같이 빨라진다.

전생의 어떤 인연으로 조카와의 인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소중한 인연에 대해 감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카나 언니 모두에게 내 기도가 힘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랄뿐이다.

불법의 인연을 맺고 나니 어려운 일도 두려운 일도 많이 없어졌다. 두려움이나 겁을 내기 전에 난 모든 것을 근본자리로 되돌리고 그 안에서 녹이고 자비로 감싸고 보듬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찰나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느껴본다.

그렇지만 난 아직도 하고 싶은 일도, 바라는 것도 많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많이 힘들다. 특히 두터운 업 때문인지 참회가 부족해서인지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은 좀처럼 끊기가 힘이 든다. 나라는 생각이 없다면 고통도 번뇌도 모두 사라질 것 같지만 난 나에 대한 모든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지런을 떨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욕심도 번뇌도 친구로 여기다 보면 없애려는 것 또한 모순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난 얼마나 웃고 울며 살아가게 될까? 혹 울어야 할 일이 웃어야 할 일보다 많을지도 모르겠다.

웃음도 눈물도 난 여유로움으로 맞고 싶다. 그래서 내가 혹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더라도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불법으로 승화시켜 내 남은 모든 업장과 같은 근본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싶다.

내가 중년이 되고 할머니가 되어 죽음을 맞을 때도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싶다. 떠날 때를 기약할 수 없으나 세상에 태어난 그 때처럼 떠날 때도 천진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떠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리라.

불법은 그런 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며 나의 든든한 벗이 되어 줄 것이다.(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제46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5월 28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얀마음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영산범음집 한문본 증정)
영남범음범패집 카세트. 비디오와 상용천도집. 영산범음집 한문본을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 개인상담 및 세미나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자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개인상담과 교육/세미나를 실시합니다.
• 불안증 및 공포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개인상담 : 전화예약에 의한 상담실시
◎ 세 미 나 : 수시모집 및 교육실시
◆ 상담지도전문가

설기문 박사 :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전생상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전생퇴행 ” , “ 최면과 최면치료”, “ 전생가기 참 쉽다 ” 와 같은 다수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201-1102호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indcoach@naver.com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제8회 국제녹차심포지엄



■ '녹차가 초등학생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실험 결과

※서울대 치대 백대일교수

충치야 가라~ 녹차 마신다

백대일교수, 초등생 구강에 미치는 영향 발표
4학년 학생 3백명 대상 최초로 임상실험

카테킨과 데아닌, EGCg(EpiGallo Catechin Gallate) 등 녹차에 포함된 성분들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카테킨의 체지방 감소와 노화예방 효과, 데아닌의 신경안정효과, EGCg의 항암작용 등 최근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녹차의 효능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녹차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의식에 발맞춰 음료업계는 아예 카테킨이나 데아닌 등 녹차의 주요 효능을 집중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기능성 음료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녹차는 이 같은 효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실제 음다생활을 통해 이런 유용한 성분들을 다 섭취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대한의학회(회장 고윤웅)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녹차의 관상동맥질환과 비만 예방 효과에 대해 '근거자료 불충분' 등급을 매김으로써 녹차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72가지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내외의 논문을 검색 · 분석한 후, 질환별 효능에 대해 '권고'에서 '근거 자료 불충분' 등급까지 모두 7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여기서 녹차가 '근거 자료 불충분' 등급을 받은 것은 녹차의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또한 녹차의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녹차 추출물을 재료로 이루어지는 실험과 '기호성'을 중시 여기는 음다 생활 사이의 간극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례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이지만, 그 맛이 떫기 때문에 차를 우려 마실 때 이 성분이 많이 우러나지 않도록 하는 음다법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 지난 5월 1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녹차심포지엄'에서는 과학적 연구결과와 실제 음다 생활의 간극을 줄이는 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바로 서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의 백대일 교수(56)가 발표한 '녹차 음용이 초등학생의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이다.

백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국내 최초로 3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간 대규모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서울시에 있는 2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163명에게 하루에 두번 100㎖씩의 녹차를 음용하도록 하고, 대조군 137명에게는 일반 식수를 음용하게 했다. 이 결과 실험군의 구강 내 충치 유발 세균수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고 치아를 썩게 하는 요소인 산(acid)을 완충시키는 능력(buffering capacity)이 상승함을 확인, 녹차가 구강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입증했다.

녹차와 구강건강과의 관계는 이미 차를 즐기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연구되고 있지만 모두 실험실 내 동물에 국한된 것이었고, 사람들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한 것은 백 교수팀이 최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일상적으로 마시는 농도로 우려낸 녹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충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하루 세 번, 식후에 녹차를 입 안에 머금고 치아를 충분히 적신 뒤 마시는 것이 좋으며 티백보다는 잎녹차를 우려내 마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들이 마시는 것보다 연하게 우린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백 교수는 올해 연말까지 이 연구를 지속해 2006년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치과학회에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우리 사발 이야기〉 펴낸 도예가 신한균

"우리 도자 기술 자존심 되찾을 때"

옛이름 '황태옥' 찾기운동 펼쳐

"조선 사발은 따뜻하게 끌어당기는 맛, 있는 듯 없는 듯한 포용성, 가장 자연과 가까운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발을 '막사발'이라 비하하며 그 숨겨진 역사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15세기 이래 세계 최고의 도자 기술을 가졌던 우리의 자존심과 역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전통 조선 사발을 재현해 낸 도예가 신정희옹의 장남이자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도자기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도예가 신한균(사진)씨가 우리 도자기의 역사를 살펴보는 〈우리 사발 이야기〉를 펴냈다. 역사학자나 미학자가 아닌 도예가 신씨가 우리 도자기의 잊혀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저도 우리 옛 사발들의 실체를 모른 채 일본책에 실린 사진만 보고 사발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사발의 역사와 미학도 모르면서 그저 빚기만 하는 것에 대한 소리 없는 질책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조선 사발을 재현해냈다면, 저는 그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신씨는 우리 사발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조선 사발이 있다는 미술관이나 개인 소장가들을 직접 찾아가 한 번만 직접 만지게 해 달라고 애걸했다. 일본으로 건너가 국보가 된 사발을 살펴보며 그 사발이 어디서 탄생했고 어디에 쓰이던 사발인지를 추적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막사발'이란 용어는 일본의 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우리 사발을 '막사발'이라 부른 이후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최근에는 도자기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조차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신씨는 "일본인들이 이도(井戶) 다완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옛 사발을 '황태옥(黃台玉)'이라 부르자"고 주장하며 '우리 옛그릇 이름 되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해나 진주 등의 지역 이름을 붙여 부르기보다 노란 색을 기본으로 하며 굽 부분에 유방울이 달린 사발의 특징을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옛 사발이 비록 우리 곁을 떠나 일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빚은 조선 사기장의 후예인 우리들은 그 사발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④



이 시기에 오면 일부 차의 산지가 정비되어 공물로도 바쳤으나, 아직도 중앙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다세(茶稅)가 차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김종직은 지방의 목민관으로 그 실상을 보고 혁신적인 타결책을 찾아낸다. 실제로 차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이 세금을 내는 어려움을 보고 촌로들에게 물어 엄천사 대밭 속에서 야생 차나무를 발견하여 다원을 일으켜 세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도 여러 곳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차 농사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도 외국의 사신 접대나 공물에는 차가 빠지는 일이 없었고 국가의 행사에도 차는 언제나 있었다. 선가(禪家)에서는 차가 미약해졌으나 선비들 사이에는 꾸준히 이어졌다.

중국은 차의 무역이 여의치 않고 국내 소비량도 줄어 군인의 봉급을 차로 대신 준 일도 있었다. 일본은 강호 시대가 열렸고 성을 축조하고 동산류(東山流)를 위시한 차의 맥이 계승됐으며 사원의 차도 확대되었다.

① 신숙주: 일본과 중국을 다녀온 차인이었다. 그의 〈해동제국기〉에는 일본의 음다풍습을 기록했다.

② 6월 이후 사신 접대 다례가 다섯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③ 박팽년이 내시, 다방에 관해 상소를 올렸다.

④ 특별한 행사 때가 아니면서 왕이 신하들과 차를 마신 일은 드물었다.

⑤ 남효온(1454~1492): 호는 추강(秋江). 김시습과 교유하며 노장사상에 심취했으며 차를 매개로 더욱 가깝게 지냈다. 다시 '은당자다(銀?煮茶)'가 유명하다.

조위(1454~1503): 호는 매계(梅谿). 성종의 총애를 받은 점필 문하의 차인으로 차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 다시 '가섭암'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⑥ 이때 쯤에는 제다기술이 발전해 명에 보내는 공물에 차를 보낼 만큼 품질이 좋았다.

⑦ 김수동(1457~1512): 호는 만보당(晩保堂).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문인이다. 예서를 잘 쓴 차인으로 '야좌유음(夜坐有吟)'에는 차겨루기 얘기도 나온다.

농민들 다세(茶稅) 부담, 차농사 쇠퇴

⑧ 정희량(1469~?): 호는 허암(虛庵). 무오사화 때 유배된 후 현허(玄虛)한 사상에 심취한 차인이다. 그의 '야좌전다(夜坐煎茶)'는 인구에 회자되는 명시다.

⑨ 진강: 명대인으로 어사가 되어 섬서지방을 둘러보고 〈다마지(茶馬志)〉 네 권을 썼다. 말과 차의 교역(茶馬貿易), 말을 기르고 거두는 일 등을 기록했다.

진정: 명대학자로 그의 〈양산묵담(兩山墨談)〉에는 육안다(六安茶)에 과한 것도 있고, 서한시대에 차가 있었다는 기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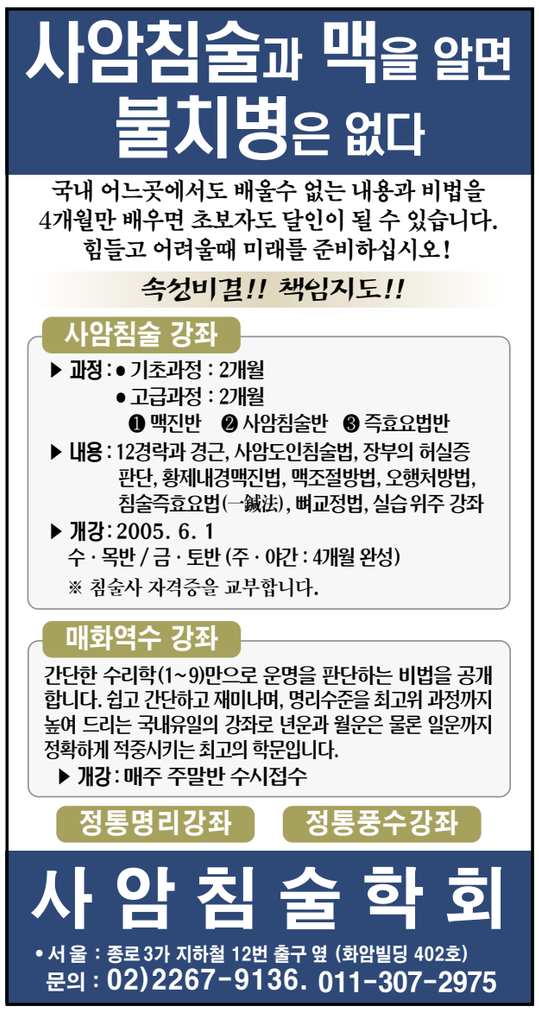
⑩ 소보(1460~1527): 명대 문인으로 호는 이천(二泉). 차를 즐겨 노승(老僧)과 품다(品茶)한 얘기들이 전한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① 1450 사신 접대 다례 수차례 열림 ② 다방에 관한 박팽년의 상소 ③ 1452 주다례, 사신맞이 다례, 상회례 때 다례를 없애기로 함 1453 왕이 신하들과 음다 ④ 대마도에 차를 보냄 1454 남효온(南孝溫), 조위(曺偉)의 출생 ⑤ 차산지 35개 지역 〈계유정난〉 1455 원의충(源義忠)이 사신으로 오다 1456 명(明)에 작설차 5말을 보냄 ⑥ @ 사신 맞이 다례가 거의 매년 있었다 1457 김수동(金壽童)의 출생 ⑦ 1467 사옹방을 사옹원으로 개칭 1468 사신 맞이 다례와 주다례 1469 정희량(鄭希良)의 출생 ⑧	명대 1451 관리와 군인 봉급을 찻잎으로 지급 @ 진강(陳講), 진정(陳霆)의 활동 ⑨ 1460 소보(邵寶)의 출생 ⑩	남북조 @ 대내소이(大內小二)의 송사(送使) 1457 강호성(江戶城) 축조 1460 각 지방의 절에 차를 바침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모든 걸 들어오는 대로 바다와 같이 집어삼켜라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문 저는 우연히 스님에 관한 책을 보고서 감명을 받아 선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에 스님의 말씀대로 공자리에 되돌려놓는 작업을 5년 이상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잘되지 않고 머리가 욱신욱신 아파서 병원에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있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돌려놓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가르침 바랍니다.

답 나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깨우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해요. 빨리 해야겠다 하면 빨리 하겠다는 대로 가슴이 답답하게 돼 있어요. 또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게으른 생각이 들어가서 답답하구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놓으란 말입니다. 물 흐르는 그대로, 물 흘러가는 것같이 그렇게 살란 얘기지요.

어느 게 들어와도 물러서지 말고 더러운 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구요. 흙물이든 고름물이든 핏물이든 오물이든 모든 걸 들어오는 대로 그냥 집어삼킬 수 있다면, 바다와 같이 집어삼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편안해요. 악도 집어삼키고 선도 집어삼킨다면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유가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다 놓는다면, 욕심도 놓고 모든 걸 다 놓는다면, 놓으라고 해서 아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수억만 냥을 쓴다 하더라도 그걸 놓고 써라 이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홀연히 다 밝게 하시려면 화두를 쥔다는 생각도 말고, 놓는다는 생각도 말고, 좌선을 한다 생각도 말고, 좌선을 안 한다,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이 그대로 내 주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 아프게 들어오는 것도 주인만이 낙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주인의 심부름이에요. 내고 들이고 하는 것이 다 주인으로 인해서 나간다면 여러분이 병고에 휘들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30%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라면, 70%는 자기가 거기에다 충당해서 나간다면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죽을 때 되면 죽겠지요. 안 그래요? 옷 벗을 때 되면 벗겠지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니깐 고통을 그렇게 안 받고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공부하는 데 실험할 때는 거기에서 별의별게 다 나와서 어떠한 뭐가 닥쳐도 거기다 되입력하는 그 자세로써 나간다면 여러분은 얼마 안 있어서 내면에서 올바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의 그 뜻을 찾지 못하고 계발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옳다, 이걸 빨리 해야겠다 하는 욕심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놔야 미지수의 우주 세계의 그 하나에 내가 더불어 같이 들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요게 틀리고 요건 좋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그래 가지고 몸뚱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럭하다 보면 그 미지수의 세계에 내가 한데 합쳐져서 어떻게 들어가 보겠습니까? 마음이 움죽거리면 몸도 움죽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갔다 오고 그러는데 삼천 년이 걸린다, 이러는 게 한 찰나예요. 삼천 년을 만약에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한다면, 아니 삼천억이라고 하더라도 미세한 티끌 수와 같이 그렇게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 생각이면 그냥 다 맞붙어 버려요. 그래서 과거를 전부 알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되고 현실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깐 내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말고 더디 해야겠다는 생각도 말고 오직 믿는 거! 수없는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 참, 자기 장본인을 진짜로 믿어라 이겁니다.

회사를 개업하려는데

문 항상 높으신 법문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회사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고사를 지내야 하는 것인지요. 만일 지낸다면 준비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의 항상 건강하심을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어떤 회사를 하더라도 화목재를 한 달에 두 번을 지내든지 한 번을 지내든지 지내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사라고 하고 모두 지냈는데 그게 고사가 아니에요. 화목재라는 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기계의 마음들이나, 보이지 않은 마음들이나 보이는 마음들이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떡이라도 썰어 놓고 음료수나 과일이라도 좀 사다 놓고 그렇게 해서 같이 화목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또 일하는 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아주 껴끌껴끌했던 것도 다 녹아지고 모두 일을 내 일처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산 사람의 화목재지 뭐냐 이런 소립니다. 하나의 마음이 뒹글어지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재를 지낸다 하는 것도 그것이 결국은 화목재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구요.

여러분도 어려웠던 시대를 지내보셨으니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층 더합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자기 그릇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그 사람들 그릇을 좇아가 주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식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고,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자식도 그렇지 못하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게 자식이 아니라 즉,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자란다고 하면 뒤를 돌아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이끌어야 하는데, 자기는 돌아다보지 않고 그냥 그 차원에서 막 내뜨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가친척이라도 그렇고, 친구라도 그렇고, 사업을 한다면 직원이라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 차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마음, 한생각을 내는 데 잘 내게끔 이끌어 주는 선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홍보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한생각을 잘 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어떤 분이 공장을 하는데 공장에서 자꾸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손가락도 부러지고 손목도 다치고 그래서 이익이 남질 않고 자꾸 그런 데로 돈이 빠지고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다고 하길래 새로 들여놓은 기계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주인이 모든 거를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한번 진짜로 믿고 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믿고 기계도 사람도 돌이 아니게 둥글리면서 화목재도 지내면서 점점 잘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감사재라는 것을 화목재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초하루나 보름에 떡을 해서는, 떡도 요즘은 맛이 없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기증떡 보풀보풀한 거 크게 한 서너 개 하고 물 한 그릇 떠 놓고 향과 초 켜 놓고선, 그저 우리가 한마음으로서 기계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마음으로서 구성되게 하라고 감사재를 지내고 화목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다면 껄끄러웠던 마음도 녹아지고 화합이 됨으로써 운영이 잘돼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모두 내 일같이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넉넉히 베풀고 말입니다.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는 거를 전부 알게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을 좀 보태 주고 이렇게 해 나가 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3년이 됐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모릅니다. 단합이 돼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고사입니까? 화목재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하다못해 기계에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사람이나 말하고 그러는 줄 알지만 하다못해 풀포기도 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공장 안에 기계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또 사람이 출납을 하고 모두 가지각색으로 다 분야마다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히 안 된다고 할 때 화목재로 지내라고 일러 줍니다.

어떨 때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스님이 그런 거 지내란 말도 없더니 왜 저렇게 지내라고 하나?' 하기도 합니다만 얼마나 여러분이 똑똑하고, 얼마나 잔재미가 없고, 얼마나 화목을 도모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음료수라도 사다 놓든지 같이 화합을 도모하는 얘기를 나누고 어떡하든지 같이 해 보자고, 어떡하든지 같이 해서 같이 먹고 살자고 이렇게 화목하게 해 나간다면 어느 누구가 그 마음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럴지언대 아마 귀신의 마음도 그래서 한마음이 돼 줄 겁니다.

그러하니 이것은 말을 붙이기에 달려 있는데 붙이기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 작게 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해 농사를 잘못 지으면 추수해 들일 게 없어요. 그렇듯이 내 자식들의 농사도 잘 지어야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추수를 해서 잘 거둬들이려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안팎으로 노력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수없는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 장본인을 진짜로 믿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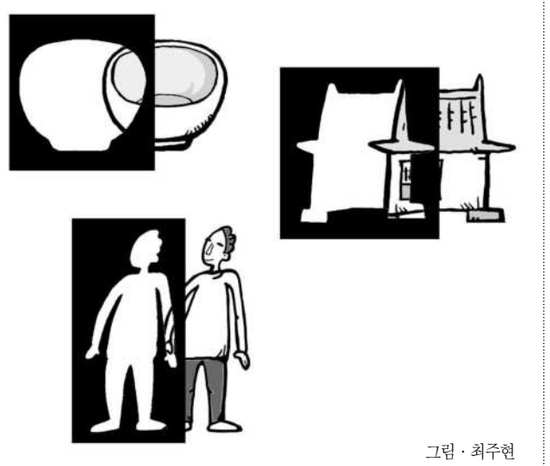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계율과 깨달음에 대해서

문 다른 스님들은 계율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스님께선 계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법문 중에서 조금씩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계율과 깨달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답 계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계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벌써 상식과 교양, 교육을 다 받고 잘못된 거 잘된 거 알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벌써 근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말은 안 해도 좋지만, 사회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회에 계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이 사는 도량에는, 도량은 여러분이 사는 데나 우리 스님들이 사는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량 하면 전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절 도량에서 사는 스님들도 스님들대로 계율이 있고 그렇지마는, 그 계율을 무시하고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계율도 거기에 근본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지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근본적으로 상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절에 들어가면 절의 계율을 지켜야 하고, 들에 나가면 들에 나가는 대로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계율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어느 회사엘 들어가거나 한다면 거기는 계율이 없습니까? 모든 게 계율은 제가끔 받고 있기 때문에 계율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지금 계율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차를 피한다, 차 속에 들어가지 말라니깐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을까 봐 안 들어가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돼 있죠? 차가 오는데도 무조건 내가 차 속으로 들어가질 않죠? 차를 피해서 내가 갑니다. 그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근본적인. 집안에서도 그럽니다. 더러운 것은 좀더 훔치고 깨끗하게 씻고 다듬어 놓는 것도 계율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는 것이 계율에 의해서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행한다 이 소립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더러 저기 길에 나가서 강도질을 한번 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안 그래요?

계율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하기 이전에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계율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계율이다, 아니다.'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계율에다가 딱 얽매여 놓는다면, 그건 독재예요! 자유 계율이 아니라 독재!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율 속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강제 계율 속에서는. 마음이 자유스러워야지, 노동을 하면서도 죽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자유스러워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강제 계율을 받으면서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그러고 식탐을 가지지 마시라고 한 것도 그것도 역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외로워야 하고 고독해야 하고 배고파야 하고 어따 기댈 데도 없을 때에 자기의 생명수를 홀연히 맛을 보는 거지, 배부르고 호화롭고 안락하고, 마음이 이래서는 일심으로서 그 철벽을 뚫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있어도 바로 자기 것이 아니고 먹을 게 많아도 자기 것이 아니고 호화로워도 자기 게 아니고, 모든 게 자기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일체같이 돌아가고 있으니 언짢아할 것도 없고 또 슬퍼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이 항상 마음을 중도에다 두고 중심을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계율 자체가 말입니다, 계율이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몇 시부터 공양을 끝내고, 또는 아침에 몇 시서부터 예불을 올리면 그다음에 법당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30면으로 계속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넉넉히 베풀 수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참선한다 이런 계율, 또는 소임을 맡은 사람들의 짜임새가 똑똑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을 계율이라고, 이름해서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승려라면, 승려라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으레 계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 씻고 여자는 밥한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뒷을 하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몇 시면 벌써 어디까지 간다. 회사에 나간다. 장사를 한다. 이런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 것도 역시 그것도 이름 붙이다 보면 계율이죠. 그리고 나가서도 올바로 해야만 그게 계율이죠. 우리가 올바로 못하는데 어떻게 계율이 됩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시간을 요땐 요거를 하고 요때는 요거를 하고, 요렇게 짜여 놓는 거를 계율이라고 이름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입산한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계율을 지키면서 철두철명하게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참선이니깐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똥도 옆으로 누면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고, 똑바로 누면 똥이 쏙 들어가니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무슨 '계율을 지키랬으니까 난 똥을 올바로 눠야겠다.' 이럽니까? 똥 눌 때도 그냥 저절로 '한데다 누면 안 되지. 삐뚤어지면 다른 데 묻으니까. 그리고 가래침을 뱉으면 이거 더러우니까.' 이렇게 스스로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교육이나 또는 상식, 교양을 가지고 그대로 계율을 지키고 나가는데 인간 자체가 그래서 첨단을 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벌써 재력을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앉아서 우주를 그냥 굴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굴릴 수가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계율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해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불성 법성 무에 대해서

문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경전에 불성과 법성, 그다음에 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법성과 불성과 무와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답 무(無)라는 것은 일체만물이 모두가 고정됨이 없이, 여러분이 이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만날 때 고정됨이 없이 바뀌어 돌아가듯이 가고 옴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對)가 없는 게 무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누구든지 어떤 걸 만날 때 어떤 걸 볼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없는 게 무다 이거예요. 그게 무심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을 통틀어 봐도 우주 전체가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무!

불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저 풀 한 포기도 남김없이 전체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불성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내는 것은 법성이고 본래 가지고 있는 거는 불성이다 이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는 무다 이거죠. 이것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끝없는 진리,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 찰나찰나 나투는 도리 이것이 한데 합쳐지면 그것이 무입니다. 어떤 걸 나라고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이라고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내지 않으면 몸뚱이가 움죽거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일으켜야만이 내 몸이 움죽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법성이다 이겁니다. 불성은 또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법성은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무로 전체가 같이 돌아가지만 한 생각을 냈을 때는 법성이죠. 한 생각을 냈을 때.

그래서 무 법 불,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돌아가는 거조차도 무다 이거죠. 하나로 돌아가는 거. 보는 것도 오늘 여러 사람 봤죠. 고정됨이 없어요. 듣는 것들도. 그러니까 모든 게 무예요.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무. 찰나의 무. 찰나 생활이 거든요. 시공을 초월해서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무예요, 전체가. 불 법 승 전체 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무의 세계에 유의 세계를 같이 거둬지고 100%를 찰나찰나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인도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무라는 이치는 우리가 끊임없이 찰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여여하게. 여러분의 불성이 본래 있고 마음을 내는 법성이 그대로 있고 움죽거리는 생활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찰나찰나 자기가 보는 것도 하나만 고정되게 보는 게 없고, 만나는 것도 고정되게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없고, 먹는 것도 한 가지만 먹는 게 없고 또는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한마디만 고정되게 하는 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찰나찰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애가 "아빠!" 하고 들어왔을 때 금방 아버지가 되고, 부인을 만났을 때 금방 남편이 되고, 부모를 만났을 땐 금방 자식이 돼요.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 것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무(無)라고 했던 거예요. 깨닫지 않고는 참 어려운 문제죠.

지금 저기 물이 흘러 돌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 돌고 있는 데 끊임없습니다. 그 물은 여기서 흐르나 저기서 흐르나 똑같이 흘러서 제자리로 항상 모입니다. 또 위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만약에 산으로 비유한다면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낮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없다면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 도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무의 세계, 유의 세계와 같이 우리가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린 항상 살아 있는 겁니다. 저 물이 흘러서 돌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뿌리가 살아 있는 그거는 설명을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은 그냥 저 물이 흘러 돌듯이 도는 거, 산이 높고 낮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낮은 게 있기 때문에 높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기 때문에 낮은 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낮은 게 없는데 높아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을,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을, 흘러가는 물이 끊어짐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를 증득해서 내가 낳기 이전을 발견해서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생기고 모든 걸 통달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예요. 왜 없다고 하느냐. 번연히 이렇게 앉았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의 근본 자체는 영원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근본 자체가 살아 있고 근본 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움죽거릴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다 무다. 그래서 이거를 통달하기 전에는 모른다 이겁니다, 모두. 내가 나기 이전과 나와 결부돼서 깨달아야만이 그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설로 할 수도 없고, 정법이 어떤 것이고 사법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이 각자 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을 내고 바깥으로 움죽거리고 이러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관계상 고정된 게 없이 돌아가는 이 자체 진리가 공했다 이 소립니다. 이거를 알아들으려면, 이거를 알려면 깨달아야만 안다 이겁니다. 그거는 말을 해 가지고 아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 법이예요. 그게 법이예요. 무도 되고 법성도 되고 불성도 되고, 불성이 없으면 그렇게 받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줘도 모르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거야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낳기 이전 과거의 나를 발견해야만이 현재의 모든 걸 똑똑히 보고 모든 걸 똑똑히 처리하고 똑똑히 이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고 일체제불과 한마음이 돼서 한마음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요, 일체제불의 법은 내 한마음의 법이고 생활이고, 그렇지 않아요?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선행을 저지르는 것도 내 한마음입니다. 부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 중생은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높고 낮음도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둘이 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그 도리를 증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증득하고 나를 발견해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 도리를 환하게 통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도 집어삼키고 선도 집어삼킨다면
그 가운데 자유가 있다!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 지 도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 지 석 지형
신도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연수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전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전법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이론 및 실제
6. 원고 작성법(문장구성 및 내용구성)
7. 표현상의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적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수시모집(주문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됨(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大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황토 먹물염색)
■ 시원한 차이나 남방, 모지, 걸망,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과일의 왕 두리안
Sale!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후적으로 망고스틴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교혼례식으로 평생도반 맺으세요

불교전통혼례식 이렇게

'소중한 인연' 평생간직 다짐 현대감각 살린 혼례방식 인기

#1 5월 11일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서 열린 '화혼식-성스러운 인연, 연꽃같은 삶' 시연회. (사)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가 주최한 시연회에는 지나가던 시민 500여명이 몰려들어 불교혼례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곱게 한복으로 단장한 신랑신부가 시자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하자 시민들은 탄성을 질렀다. 식장 정면에는 십바라밀을 상징하는 당건과 불전이 있고 초례상에는 연꽃과 초가 올라와 있어 일반 전통혼례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신랑신부가 맞절을 하고 삼귀의가 있은 뒤 고불식과 헌화식이 이어졌다. 불교혼례식에서 빠질 수 없는 순서인 '헌화식'은 부처님 본생담에 나오는 선혜 선인과 구리 선녀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선혜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던 당시, 연등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기 위해 구리 선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는 대신 함께 연꽃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 본받아 신랑이 5송이, 신부가 2송이의 꽃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헌화다. 이 때문에 불교혼례식을 '헌화식'이라고도 부른다. 불교혼례식의 또다른 특징인 '고불식'은 부처님께 부부됨을 고하는 순서이다. 헌화식과 고불식 후에 이어지는 근배례에서도, 술을 마시는 일반 전통혼례와는 달리 신랑신부는 차를 나눠 마셔 눈길을 끌었다.

주례 대신 증명법사 역할을 맡은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진행된 이날의 시연회는 두 사람이 발원문을 낭독하며 끝맺었다. 시연회를 주최했던 (사)우리는선우의 임동숙씨는 "기형적으로 변질된 결혼문화 대신 우리 고유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적 감수성에 어울리는 대안혼례방식이 바로 화혼식"이라며 "전통혼례식 안에서 불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시도로 불교혼례문화의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2 지난 5월 7일 오후 1시 서울 봉은사에서는 시연이 아닌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의 주례로 현재 법무부 한국갱생보호공단 불교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윤용병(52)씨와 김애열(44)씨가 불교혼례식을 올린 것. "예전부터 불자라면 당연히 불교식으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국적불명의 예식장에서 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부모, 불연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면 더욱 뜻 깊지 않을까"라는 윤씨의 평소 생각이 현실로 된 순간이다.


불교전통혼례식은 꽃을 부처님전에 공양하기 때문에 '헌화식'으로도 불린다. 사진은 지난 5월 11일 열린 화혼식 시연회. 사진=고영배 기자

헌화·고불식은 빠질수 없어 근배례, 술대신 차 나눠 마셔

풍물패의 흥겨운 '길놀이' 가락이 봉은사 앞마당을 한판 감돌고, 사모관대를 한 신랑과 활옷으로 곱게 단장한 신부가 들어섰다. 서로 맞절을 한 뒤 양측 가족이 초에 불을 붙이고 증명법사로 모신 원혜스님의 집전 아래 삼귀의를 올리고 고불문을 읽은 뒤 신랑신부가 부처님 전에 꽃을 바치는 헌화식이 이어졌다. 나머지 순서는 '(사)우리는 선우'의 시연회와 같이 진행됐다.

불교혼례식을 올리고 싶은 불자들은 재적사찰에 먼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서울 구룡사, 서울 능인선원, 일산 여래사, 광주 향림사, 해남 대흥사 등 많은 사찰들이 불자들의 결혼식을 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국대 정각원에서도 여법한 불교혼례식을 올릴 수 있다. 특히 한마음선원, 구룡사, 능인선원 등은 결혼회관이 따로 마련돼 있어, 사찰 법회가 있는 일요일에도 장소걱정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시자들이 꽃과 청정수를 뿌리면 신랑 · 신부가 그 뒤를 따라 입장한다.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서서 신랑과 신부가 맞배하고 불전을 향해 절한다.


신랑은 5송이, 신부는 2송이의 꽃을 부처님 전에 올린다.

불교 화혼식 순서

1. **개식** : 종을 5번 친 후, 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2. **등공양** : 양측 아버지는 불단에 놓여있는 오방색 초에 불을 붙인다. 양측 어머니는 초례상에 놓여있는 초에 불을 붙인다.
3. **신랑 · 신부 입장** : 신부 친구가 꽃잎을, 신랑 친구가 대나무나 솔가지로 물을 뿌리며 지나가면 신랑신부가 입장한다. 입장 후 신랑 신부는 불전에 경례한다.
4. **삼귀의례** : 일동 일어나 부처님 전에 삼귀의를 올린다.
5. **고불식** : 증명 법사나 평소 존경하는 사람이 대표해 부처님께 화혼식을 고한다.
6. **헌화식** : 다섯 송이는 신랑이, 두 송이는 신부가 부처님께 헌화한다.
7. **교배례** : 신랑은 남쪽 대야물에 손 씻고, 신부는 북쪽 대야물에 손 씻은 뒤 각기 상대 시자(侍者)가 건네준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8. **근배례** : 신랑신부는 초례상 좌우에 마련된 다기에 차를 따라 시자의 도움을 받아 서로에게 헌다(獻茶)한다.
9. **증명법사의 법문** : 증명법사는 법문 시작 전 불단에 향을 피우고 법문 뒤에는 경전, 염주 등 신행생활에 필요한 불구를 선물한다.
10. **신랑신부의 발원문 낭독**
11. **인사** : 신랑신부는 부처님과 증명법사를 향해 삼배를 올리고 양가 부모님과 하객께 큰 절을 올린다.
12. **사홍서원**
13. **폐식**
14. **탑돌이** : 퇴장 후 신랑, 신부를 포함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이 초례상을 중심으로 탑돌이를 한다.

자료제공=우리는 선우



'조장' 풍습은 해부학 발전에 큰 영향

티베트의학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이 일찍부터 인체의 구조에 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티베트의 '조장(鳥葬)' 풍습 덕택이다.

티베트인들은 히말라야 고원의 혹독한 기후와 험준한 지세 때문에 시신을 땅에 매장할 여건이 못 되었다. 고산지대의 바위나 돌밭에 시신을 매장할 땅이 어디 있겠으며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꽁꽁 언 동토에 시신이 어디 썩기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한 척박한 자연환경과 불교적 세계관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장례 풍속이 바로 '조장'인 것이다. 인연 따라 몸을 빌어 잠시 이승에 머물다가 홀연히 떠나며 마지막 육신까지 한점 한점 독수리에게 보시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보다 장엄한 순간이 어디 또 있겠는가!

육신을 보시 받은 독수리들은 망자의 영혼을 싣고 내생으로 인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장' 풍습을 미개하고 흉측스러운 엽기적 풍속으로 오도하거나 곡해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처럼 종교적으로 성스럽고 과학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세속적으로 비장한 풍습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세상 연을 다해 한갓 고깃덩이나 다름없는 이 몸뚱이를 대궐 같은 호화 분묘에 모셔 한풀이하듯 유세라도 부려야 문화 민족의 미풍양속이란 말인가.

우리의 장례 문화에도 일대 의식의 전환이 일지 않으면 안 된다. 사견이지만 최근 소개된 '수목장(樹木葬)'이 우리 자연환경과 민족정서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아 매장 풍속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티베트인들은 조장의 오랜 풍속에 따라 망자의 시신을 일일이 해체하며 자연스럽게 인체의 구조나 장기 상태 그리고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꾸준히 축적해 온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임상 사례를 남기는 셈이다. 얼마나 환상적인 일인가. 시신 기증자가 없어 해부학 실습도 제대로 한 번 못해보고 졸업해야 할 지경에 이른 오늘의 우리 의학교육의 참담한 현실이 자꾸만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신체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제각기 일정량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건강을 잃게 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남녀 모두 뇌는 두 움큼의 분량이고 근육은 남자가 500주먹 여자는 520주먹의 분량이라고 한다. 여자의 근육이 더 많은 것은 젖가슴과 엉덩이살 때문이다. 여자의 혈액량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순환 혈액뿐만 아니라 생식기능 관련 혈액도 포함된 것이다. 생식기능 관련 혈액도 남자의 정액과 같이 두 움큼의 분량이다. 남자나 여자 똑같이 정상 순환혈액량은 14움큼 분량이다.

인체의 일곱 가지 기본성분은 소화와 대사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 위 속에서는 왜깬이 그것들을 잘 섞이도록 하고 때빠는 소화를 도우며 룽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와 쓸모없는 불순물로 분리해 낸다. 필수 영양소의 정수(精髓) 성분에서 혈액이, 혈액의 정수 성분에서 근조직이, 근조직의 정수 성분에서 지방이, 지방의 정수 성분에서 뼈가, 뼈의 정수 성분에서 골수가, 마지막으로 골수의 정수 성분으로부터 정액 또는 생식액이 각각 만들어진다.

시신 해체하며 장기·인체구조 등 지식 축적 일곱가지 체구성 물질 소화·대사 통해 조성

일곱 가지 체구성 물질의 생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소장에서 흡수된 필수 영양소는 정수 성분과 분순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정수 성분은 간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혈액을 만들게 되고 불순 성분은 점액으로 변한다. 혈액은 정수 성분으로부터는 근조직이, 불순 성분으로부터는 담낭의 쓸개즙이 만들어진다. 근조직은 정수 성분에서 지방조직이, 불순 성분에서 눈곱과 귓밥 같은 아홉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만들어진다. 지방조직의 정수 성분으로부터 뼈가, 불순 성분으로부터는 땀과 피지가 만들어진다. 뼈는 정수 성분에서 골수가, 불순 성분에서 털 · 손발톱 · 치아가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골수로부터는 정수 성분에서 정자나 난자의 생식액이, 불순 성분에서 피부나 얼굴을 매끄럽게 해주는 기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퇴마승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 가	빙의현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자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검색창에 해원사 라고 치세요

해 원 사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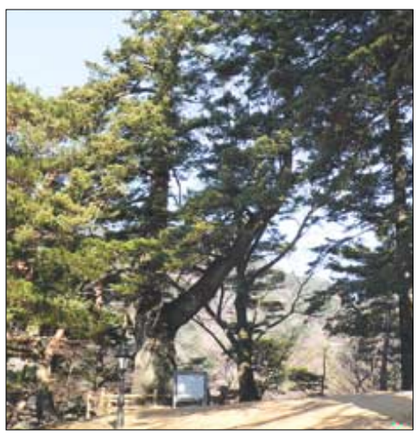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0) 가야산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신라말 최치원이 짚고 다니다가 거꾸로 꽂아둔 전나무 지팡이가 자라서 된 것이라고 한다.

영지(影池)로 유입된
생활하수로 수질오염 심각
가야산 녹지보존은 좋은편
교란율은 국립공원 중 최악



가야산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홍류동 계곡에 자리잡은 소나무.



홍류동 계곡은 많은 원앙들이 서식하고 있다.



해인사 영지는 자연물을 물 위에 비치게 하는 '인경(引景)'이 특징이다.

자연합일로 이루어진 대화엄

가야산의 진면목은 국립공원 매표소가 있는 홍류동 계곡에서부터 시작된다. '紅流洞'은 가을이면 단풍의 붉은 그림자가 물길 따라 흐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일 뿐, 동네 이름이 아니다. 그러나 홍류동 계곡엔 이름과 달리 단풍 드는 활엽수보다 소나무가 더 많다.

홍류동 계곡은 원앙계곡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원앙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크고 작은 소(沼)마다 몇 쌍씩 노닐고 있다. 원앙은 오리과의 새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새이다. 암컷은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보호색을 띠고 있지만, 수컷은 외모에 공을 엄청 들였다.

주차장에서 해인사 큰 절까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이 길 뿐만 아니다. 가야산의 크고 작은 절들은 한결같이 시멘트를 좋아한다. 계곡 등산로가 아니면 도무지 흙길을 밟아볼 기회가 없다.

홍류동 숲길과는 달리 일주문까지의 진입로는 온통 활엽수림이다. 특히 해인사 주변 활엽수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겨우살이 군락이다.

영지(影池)는 물의 투영성(投影性)을 이용한 '그림자 연못'이다. 외국의 영지는 가까운 주위의 건물들을 물 위에 비치게 하는 차경(借景)인데 비해 우리 사찰의 영지는 수 km나 떨어진 곳의 자연물을 물 위에 비치게 하는 인경(引景 : pulled scenery)이다. 해인사 영지가 그렇다.

영지의 인경을 방해하는 나무들을 솎아내고, 물 위에 띄운 연꽃을 걷어내어 영지의 기능을 되살렸으면 한다. 그리고 요사채에서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그대로 영지로 유입되는 바람에 녹조류 해캄이 군데군데 엉켜있을 정도로 수질이 떨어져 있다.

해인사의 가람배치는 가장 높은 곳에 장경각을 안좌시키고, 그 아래쪽에다 대적광전을 놓고, 다시 석탑과 석등을 그 아래 공간에 구광루와 함께 배치했다. 해탈문은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나게 놓고, 아래쪽 봉황문과 일주문은 다시 중심축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러한 배치는 자연지형과의 합일을 도모한 고도의 슬기이다. 전통건축의 기술은 얼마나 자연에 합일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일주문에서 일직선상에 사천왕문인 봉황문이 있다. 직선은 팽팽한 대립을 강조한다. 이 팽팽한 대립을 원융으로 바꿔놓는 것이 주변의 숲이다. 주로 키 큰 나무들로 조경되어 있지만, 침엽수와 활엽수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대화엄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환경 고려해 조성한 '장경각' 우수한 과학기술 자랑



장경각은 대적광전을 돌아가면 가파른 석축위에 있다.

대적광전은 가파른 석축 위에 간살이가 넓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조선 중기 문인 정시한(丁時翰)도 <산중일기>에서 '섬돌이 높고 견고한 것과 불전이 장엄하고 기교한 것과 불상이 높고 엄숙한 것이 마치 하늘의 조화인 듯하고 인력(人力)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듯했다'고 격찬하였다.

대적광전을 돌아가면 가파른 석축 위에 장경각(藏經閣)이 안좌해 있다. 장경각의 문화재 공식 명칭은 일제가 지은 '대장경판고(經板庫)'이다. 단순히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라는 뜻이다. 이제는 대장경판전(大藏經板殿)으로 고쳐서 불러야 한다. 추사 김정희도 서울 봉은사에 있는 경판고를 일찍이 '판전(版殿)'으로 부르고 현판까지 써서 걸었다.

건축은 자연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다. 경판전이 그러한 명제를 여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경판전 위치는 햇볕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된 서남향이다. 자외선은 이끼나 곰팡이를 막아주고, 적외선은 찬 흙바닥을 데워서 공기의 대류를 촉진시켜 온도를 균일하게 해준다. 경판전 천정이 연등천정인 까닭은 우물천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벌레들의 서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경판전 광창은 남창과 북창의 크기와 배열이 각기 다르다. 이것은 외부 공기가 큰 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작은 창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건조한 공기가 경판전 내부에 골고루 퍼지게 하였다.

얼마 전, 경판전 내외부의 일교차를 조사 비교한 바에 따르면 외부의 일교차는 10도까지 이르지만, 내부의 일교차는 기껏 5도 정도였다고 한다.

경판전의 흙바닥은 온도의 차이로 생기는 습기를 흡수하도록 한 배려로 보인다. 창건 당시 한 자 두께로 흙과 소금과 숯을 깔았는데, 이는 습기와 병충해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판전 뒤쪽 담장 너머에 수미정상탑이 자리하고 있다. 해인사가 앉은 형국은 피안으로 가는 한 척의 행주(行舟)이다. 배는 돛대가 있어야 한다. 높이 약 14미터의 팔각칠층석탑이 바로 해인사의 돛이다. 말하자면, 풍수비보로 세운 탑이다.

학사대 전나무는 신라 말 고운 최치원이 짚고 다니다가 거꾸로 꽂아둔 전나무 지팡이가 자라서 된 것이라고 한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개의 전나무가 두 팔을 V자형으로 한껏 벌린 형태인 데 비해 학사대 전나무는 가지가 모두 아래로 처져 거꾸로 자라고 있는 느낌을 준다.

해인사는 또 산내암자를 16개나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저마다 독특한 암자문화들을 갖고 있어서 암자를 순례하는 맛이 쏠쏠하다.

가야산의 녹지 자연도는 8등급이 전체의 61.7%로서 자연보존성이 양호하다. 8등급이란, 20~50년생으로 이루어진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림에 가까운 2차림을 가리킨다.

가야산 정상 주변에 이르면 신갈나무숲에 쫓겨 올라온 소나무를 비롯하여 추위에 잘 견디는 잣나무와 구상나무 등이 관찰된다. 해발이 높아지면 그에 상응해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잣나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잣나무는 건축재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경판전인 수다라장 기둥도 바로 이 잣나무로 세운 것이다.

구상나무는 소나무, 잣나무와 함께 가야산 3대 침엽수이다. 구상나무는 해발 1,350미터에서부터 1,420미터 사이의 아고산대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가야산 구상나무는 덕유산과 더불어 분포의 북한계(北限界)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로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초원과 쪽빛하늘이 끝없이 이어지는 몽골 !

불교방송에는 오는 **7월 14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몽골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라마교의 중심지인 간등사원에서의 법회를 시작으로
몽골초원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바얀고비, 몽골의 옛 수도
하르호름의 에르덴죠 사원과 잔바자르 박물관을 방문하며
울란바트르의 테를지에서는 승마와 유목민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705의 5301번에서 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참 금 : 1,200,000원 (4박 5일)
- 비 자 : 반명함 사진 1장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비자비, 가이드비,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출발 12일전까지
- 출 발 : 7월 14일(목요일)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7 / 14 (목)	인 천 울란바트르	OM302 전용버스	11:00 14:30	인천국제공항 출발 울란바트르 도착 후 호텔체크인, 자이승 전승탑, 이태준열사 공원 견학 후 호텔휴식	조	
					중	기내식
					석	중국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2인 1실)		
제02일 7 / 15 (금)	울란바트르 바얀고비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간등사원 법회 및 한몽불교 교류간담회 (간등사원:몽골라마교의 총본산, 중앙아시아 최대의 금동불상) 점심공양 후 바얀고비로 이동 저녁공양 후 (몽골전통요리 허르식 제공) 밤하늘의 별 감상하며 캠프파이어	조	호텔식
					중	한 식
					식	특 식
				HOTEL 게르(4인 1실)		
제03일 7 / 16 (토)	바얀고비 하르호름 만투하이 울란바트르	전용버스	전일	기상 후 바얀고비 일출감상 및 산책 아침공양 후 하르호름으로 이동 13세기 몽골 징기스칸제국의 도읍지 에르덴조사원 (몽골 최초의 사원 108개의 탑이 있음) 방문, 점심공양 후 만투하이 여제기념비, 한빈사원 방문 울란바트르 귀환	조	현지식
					중	현지식
					식	현지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7 / 17 (일)	울란바트르 테를지 울란바트르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잔바자르 박물관 관람 후 테를지로 이동 점심공양 후 거북바위등 기암괴석 감상, 야생화 군락지 관광 후 유목민과 함께하는 승마체험, 미니 나담축제, 몽골 전통공연 관람, 유목민 생활탐방(수태차등 시식, 목가생활체험)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식	현지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5일 7 / 18 (월)	울란바트르 인 천	전용버스 MU5312 MU5041	오전 14:30 17:35	아침공양 후 시내투어 및 자유쇼핑 울란바트르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성불하십시오-	조	호텔식
					중	기내식

문의전화 : BBS 불교방송 (02)705-5301~3 / www.bbsfm.co.kr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